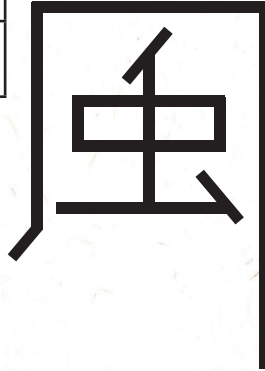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43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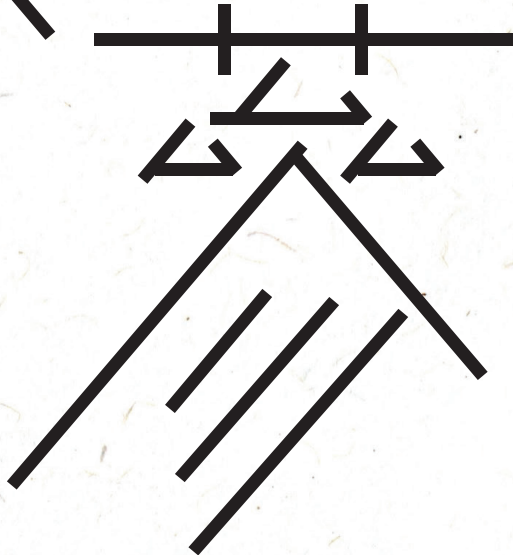
바람, 물, 사람으로 자라는 인초

GOD GIVEN  
KOREAN GINSENG



우리가 몰랐던

# 진짜 고려인삼 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GOD GIVEN KOREAN GINSENG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려인삼 이야기



## 우리 겨레의 자긍심, 고려인삼



1,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고려인삼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키우고 거두는 신비의 명약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삼의 가치를 약효로만 따지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려인삼에는 우리 겨레의 문화와 자긍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려인삼 이야기》는 고려인삼의 그 숨겨진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고려인삼 인문서입니다.

여러분은 그 옛날 고려인삼이 요즘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이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선현들은 고려인삼의 명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천금 같은 인삼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확충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데 고려인삼은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이렇듯 고려인삼은 우리나라 문화, 경제를 막론하고 우리 삶 곳곳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입니다. 그 위상에 맞게 고려인삼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려인삼 이야기》를 발간합니다. 이 책에는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고려인삼 이야기가 다채롭게 담겨 있습니다.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소중한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고려인삼의 가치와 명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 CONTENTS

## 인삼은 생명의 뿌리다

'삼'의 뿌리는 '심'에 있다	11
인삼혁명, 삼밭을 일구다	18
인삼 재배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을까?	24
수삼 · 백삼 · 홍삼, 진짜 이름이 뭐니?	30
인삼밭을 군대가 지킨 이유는?	36
인삼 제대로 알기 최고의 인삼은 무엇이 다를까?	43

## 한국을 지킨 인삼 이야기

실크로드부터 유카탄반도까지	49
독립운동 자금의 뿌리가 되다	55
인삼을 키워 군사력을 키우다	60
천금 같은 인삼을 왜 불태웠을까?	66
인삼에서 시작된 독도는 우리 땅	73
조선 경제의 심지, 심	78
인삼 제대로 알기 인삼은 어디서 어떻게 자랄까?	83

## 세계와 만난 인삼

대항해 시대, 유럽으로 입성한 고려인삼	89
루이 14세에게 진상한 인삼	95
유럽 근대과학은 왜 인삼에 몰두했을까?	100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인삼 광풍	106
근대 서구 의사들, 인삼을 처방하다	112
북미 인삼농장, 세를 확장하다	116

## 인물과 예술로 만나는 인삼

구구절절 편지 속 최고급 선물	125
최고 권력자가 누리는 최고의 사치	131
문학 속 숨은 인삼 찾기	136
1500년을 이어 인삼을 노래하다	141
가부키에 왜 인삼이 등장했을까?	144
인삼 제대로 알기 세계인들은 인삼을 어떻게 먹을까?	150

## 인삼의 놀라운 힘

우리 몸을 지키는 완벽한 한 뿌리	155
내 몸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다 : 면역력 증강	158
피로와 스트레스야 가라 : 피로 개선	161
혈액순환을 돕는 혈관 청소부 : 혈행 개선	163
뇌의 노화는 늦출 수 있다 : 기억력 개선	167
몸 안의 노폐물을 막아내다 : 항산화/항노화	170
암과 대적하다 :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	172
그 밖의 효능	176
인삼 제대로 알기 인삼의 효능, 제대로 알고 있을까?	182
참고 문헌 및 주석	186



# 01

## 인삼은 생명의 뿌리다

- '삼'의 뿌리는 '심'에 있다
- 인삼혁명, 삼밭을 일구다
- 인삼 재배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을까?
- 수삼 · 백삼 · 홍삼, 진짜 이름이 뭐니?
- 인삼밭을 군대가 지킨 이유는?





## ‘삼’의 뿌리는 ‘심’에 있다

한국의 영문 국호가 ‘Corea’인가, ‘Korea’인가를 놓고 한창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원래는 ‘Corea’였는데 일제가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을 일본(Japan)보다 뒤에 입장하게 하려고 바꾸었다는 설이 난무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명칭이 지닌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논란이다. 인삼의 명칭을 놓고도 설이 많다.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주장부터 영어명인 진생(Ginseng)이 일본어에서 파생됐다는 설까지 더해진다. 사물의 이름을 밝히는 일은 그 기원을 찾는 것과 같기에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인삼은 우리 고유어로 ‘심’이다.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삼(參)’이라고 쓴다. 현재 우리나라도 ‘심’ 대신 ‘인삼(人蔘)’이라 하는데 이 명칭은 고려인삼에만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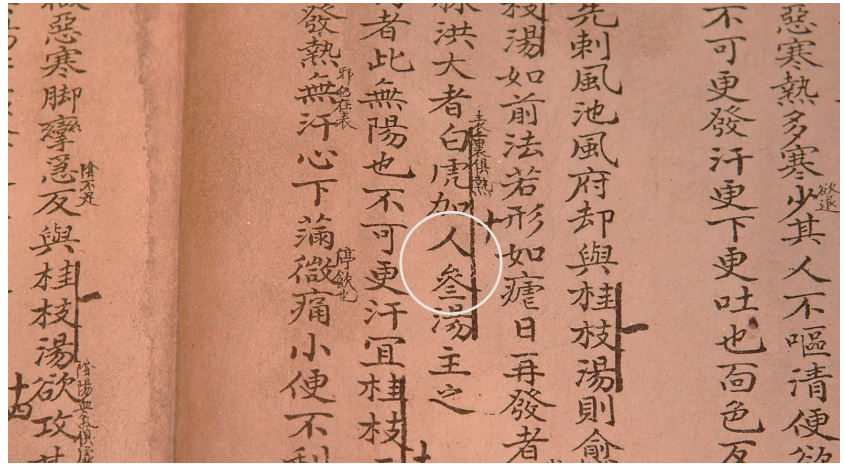
중국 고대 문헌에서 인삼을 나타내는 한자는 參·蔘·蓐·漚·淩·侵 6가지다. 이 중 최초의 문자는 ‘參’으로 전한의 사유(史遊)가 저술한 《급취장(急就章)》에 나온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人參’이라 썼으나 조선 시대 이후에는 모두 ‘人蔘’으로 표기했다.

인삼의 기원에 대한 논란에서는 삼이란 말이 중국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을 근거로 중국을 기원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인삼의 자생지가 한반도와 만주 일대란 점에서 중국 기원설은 타당치 않다. 더욱이 중국이 최고로 인정한 고려인삼의 산출지인 한반도가 인삼 기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고유어 '삼'에서 기원한 '삼' <sup>1</sup>

한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삼이 발견되고 이용됐지만 세종대왕(世宗大王) 이전에는 우리 문자가 없어 인삼을 우리 식으로 표기할 수 없었다. 중국 문헌에 최초로 삼이 등장한 것은 한사군이 설치된 전한 시대다. 한사군은 중국을 통일한 전한의 무제(武帝)가 당시 고조선이던 우리나라 서북부 지역에 설치한 군현으로 이를 통해 중국과 한반도 고대 국가 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때 한반도의 인삼이 중국으로 전해져 그 효능이 알려지고 귀한 약재로 다루어져 문헌에도 수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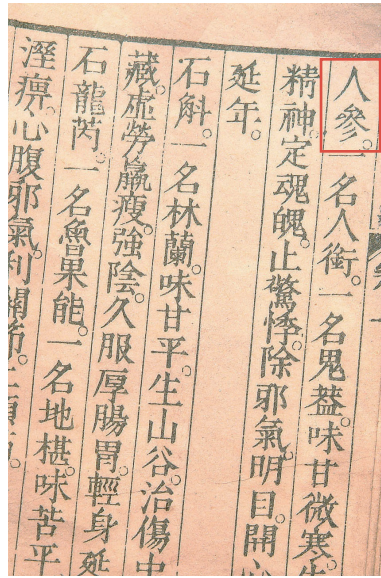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인삼을 '삼'이라 불렀다. '삼'이 등장하는 우리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성종 20년(1489년)에 편찬된 《구급간이방언해(救急簡易方諺解)》다. 이 문헌에서는 '人蔘'이라고 쓰고, 언해할 때는 '삼'으로 번역해 기록했다. 어학 교재인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서도 인삼을 '삼'으로 언해했다.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 '인삼조'에서도 '人蔘' 바로 밑에 한글로 '삼'이라고 표기했다. 유희(柳僖)가 지은 《물명고(物名攷)》에서도 '삼'이라 했다. '삼'의 명칭이 어떻게 유



- 후한 시대 장중경이 저술한 《상한론》은 한의학의 중요한 원천으로 '人參'을 기록해놓았다.

래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어로 인삼을 가리켜왔음을 알 수 있다.

사물이 외부에서 유입될 때는 본래 명칭도 함께 따라온다. 우리나라의 담배가 타바코, 남포가 램프, 냄비가 나베에서 유래한 것도 이런 원리다. 마찬가지로 인삼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인삼 본고장의 명칭까지 따라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에서는 처음 들어온 약재인 '삼'을 표기할 새로운 한자가 필요했을 터. 이때 본래 사물의 발음인 삼과 유사한 발음이 나는 문자 중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유로 '삼'과 유사한 중국의 발음[siəm]으로 읽히는 한자 6개 즉 參·蔘·蓂·淺·浸·侵이 중국 문헌에 나란히 등장한 것이다. 특히 '삼'자를 반절(한자의 음을 나타낼 때 다른 두 한자의 음을 반씩 따서 합치는 방법)하는 데 '소침(疏侵)'을 택했다. '소'에서 '스'를 따오고, '침'에서 '김'을 따 이를 한글로 읽으면 '삼'이 돼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 양나라 도홍경이 저술한 《신농보초경》은 365종의 약물을 상중하로 나누면서 인삼을上品으로 분류했다. “인삼은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나쁜 기운을 몰아내고”라고 서술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이마무라(今村)의 《인삼사(人參史)》를 근거로 인삼의 중국 기원설이 정설로 간주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인용, 재인용하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 전공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나오면서 ‘조선인삼기원설’이 힘을 얻고 있다.

## 학명 ‘진생(Ginseng)’의 어원은?

인삼의 국제 학명인 진생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일각에서 진생은 인삼의 일

본식 발음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인삼’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생의 어원이 일본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인삼을 오래전부터 ‘고라이 닌징(こうらいにんじん)’이라고 부른다. ‘닌징(にんじん)’은 당근을 가리킨다. 고려를 뜻하는 ‘고라이(こうらい)’를 붙여 인삼을 표기한 것이다. 1713년 편찬된 백과사전류인 일본 고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서는 인삼을 ‘이무소무(伊無所無)’, 《조선물어(朝鮮物語)》에서는 ‘인손(人孫)’이라고 표기했다. 이처럼 인삼의 일본 발음은 진생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경우 인삼은 베이징어 발음으로 ‘런션 [renshen]’이다.

그렇다면 진생은 정말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인삼의 공식 학명인 진생은 러시아 학자 칼 안톤 폰 메이어(Carl Anton von Meyer)가 1843년 세계 식물학회에 ‘*Panax ginseng* C. A Meyer’로 등록하면서 공식화됐다. ‘Panax’는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뜻하는 ‘Pan’과 ‘의약’을 뜻하는 ‘Axos’가 결합된 것으로 만병통치약을 의미한다. 이미 메이어에 앞서 많은 학자가 인삼을 ‘Panax속’으로 분류해 명칭을 부여했다.

1754년 식물분류학자인 칼 폰 린네(Carl von Linne)는 인삼을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에서 파낙스 즉 Panax라 불렀다. 그리고 Panax 뒤에 잎이 다섯이라는 의미로 라틴어의 Quinque(다섯)와 Folius(잎)을 붙여 캐나다 남부에서 자라는 서양삼을 ‘*Panax quinquefolius*’으로 명명했다. 북미 대륙에서 인삼이 발견된 초기부터 명칭을 달리해 동양삼과 구별했다.

1800년 네덜란드의 지에 볼드는 서양삼과 별도로 고려를 뜻하는 ‘Coraiensis’를 붙여 고려인삼은 ‘*var. coraiensis*’, 일본삼(축절삼)은 일본을 뜻하는 ‘Japonicus’을 붙여 ‘*var. japonicus*’, 네팔에서 자라는 인삼은 ‘*var. nepalensis*’로 명하고,

이들을 인삼 변종으로 취급했다.

그 후 독일 학자 네스 폰 에젠베크(Nees von Esenbeck)가 1833년 그의 저서 《Icones Plantarum Medicinalium》에서 고려인삼을 ‘*Panax shinseng var. coraiensis* Nees’라고 기술했다. 즉 그는 아시아에서 자라는 인삼을 북미의 서양삼(*Panax quinquefolius*)과는 다른 새로운 종으로 인식해 ‘*Panax shinseng*’으로 명명한 것이다. Shinseng은 인삼의 중국 고명(古名)인 상삼(祥蔘)의 발음 [xiangshen]에서 연유한 것으로 점차 발음이 변해 ‘Shinseng’을 거쳐 ‘Ginseng’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인삼 학명이 우리의 고유어인 ‘삼’이 아닌 중국 발음에서 유래한 것은 인삼이 중국을 통해 서양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네스의 등록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고려를 표기한 ‘*Panax shinseng var. coraiensis* Nees’가 공식 학명으로 등록돼 고려인삼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 오직 고려인삼을 말하는 진생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식물 분류 학명에서 보듯 진생은 고려인삼만을 뜻한다는 점이다. 미국삼, 캐나다삼, 일본삼을 똑같이 진생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약효는 물론이고 식물학적 분류로 보아도 이들은 유사 인삼(pseudo-ginseng)으로 속(屬)만 같을 뿐이다. 지구상에서 파낙스속이 자생하는 지역은 동아시아와 미주 북동 지역 두 곳이다. 아시아에서는 동경 85도에서 140도, 북위 22도에서 48도로 한반도와 만주 지방, 연해주, 일본, 네팔이다. 북미에서는 서경 70~97도, 북위 34~47도에서 자생한다. 인삼이 자생하는 지역은 북반구지

만 재배는 남반구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삼은 온도, 기후, 일조량, 강수량 등 제반 조건만 적합하면 어디에서든 재배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삼의 형태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약성(藥性)은 큰 차이가 있다.

고려인삼 이외에 오가과 식물인 미국삼, 죽절삼, 삼칠삼 등도 흔히 인삼으로 부르지만 학명에서 보듯 이들은 진생(고려인삼)이 아니다. 외국 삼은 모두 파낙스속이지만 종이 다른 것이다. 이는 양파와 마늘, 오이와 참외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즉 마늘의 학명은 '*Allium sativum*'이고, 양파는 '*Allium cepa*', 오이는 '*Cucumis sativus*'이고, 참외는 '*Cucumis melo var. makuwa*'이듯 고려인삼과 서양삼은 전혀 다른 식물이다. 같은 파낙스속이라도 '*Panax ginseng*'은 (고려)인삼이고, '*Panax quinquefolius*'는 서양삼(화기삼)이다. 진생 즉 고려인삼은 하나 뿐이다. 마늘과 양파, 오이와 참외의 쓰임새가 서로 다른 것처럼 엄격히 말하면 고려인삼과 미국삼(화기삼)은 다른 식물인 것이다. 앞으로 과학적인 분류법에 따라 서로의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인삼혁명, 삼밭을 일구다

산에서 채취하던 인삼을 밭에서 기른다? 이는 인삼 역사에서 거의 혁명적인 변화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언제부터 재배했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조선 시대 문집과 농업서에 언급된 인삼 재배 기술을 토대로 18세기 초반에 시작해서 중·후반기에 널리 보급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반면 일본은 사카노우에 노보루(坂上登)가 1737년 집필한 《인삼보(人參譜)》와 1747년에 집필한 《인삼경작기(人參耕作記)》<sup>2</sup>를 근거로 일본이 재배의 원조라고 주장한다. 사카노우에 노보루는 1759년에 막부 어용계에 임용돼 니코(日光) 산 아래에 있는 인삼 시험장에서 감시와 시험 재배를 담당한 인삼 전문가다.

일본의 인삼 관련 농서는 1770년 영조(英祖)의 지시로 편찬한 《어제삼기산지(御製蔘芪山識)》보다는 빠르다. 그러나 《인삼보》 서문을 보면 “당시에 그가 기록하는 인삼 이야기가 그 이전에 밝혀져 체계화돼 있던 조선 인삼의 재배·제조 요령과 같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의 인삼 재배가 일본보다 이른 18세기 이전에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719년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통신사에게 일본 측이 재배 농법을 탐문해 이에 대한 문답이 오간 기록도 18세기 이전에 조선에서 인삼이 재배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인삼 재배에 대한 문답이 오간 것은 이미 조선에서 인삼을 재배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한 수 위의 인삼 재배 기술

18세기 초까지도 일본은 인삼의 생태를 잘 몰라 인삼을 상세히 그려 보내라고 쓰시마(대마도)에 지시할 정도였다. 쓰시마 중가 문서에는 1719년 막부에서 쓰시마사무소에 인삼 그림을 그려 보내라고 지시한 기록이 있다. 18세기 후반 들어서는 조선 지식인들의 문집과 농사서에 가삼(재배삼)이 등장한다. 인삼처럼 까다로운 다년생 식물은 오랜 기간 경험이 쌓이지 않고서는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결실을 맺은 후 재배법이 공식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세기 조선 문헌에 담긴 종삼법, 토양 고르는 법, 병충해 방제법, 보관법 등 인삼 농사 기술은 지금도 그대로 통용될 정도로 정교



• 인조 14년(1636년) 제4차 통신사 일행이 에도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행렬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하다. 수십 년간의 경작 경험과 실험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정립할 수 없는 농법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에서의 인삼 농사는 아무리 늦어도 17세기 후반에 시작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 산삼이 밭으로 내려온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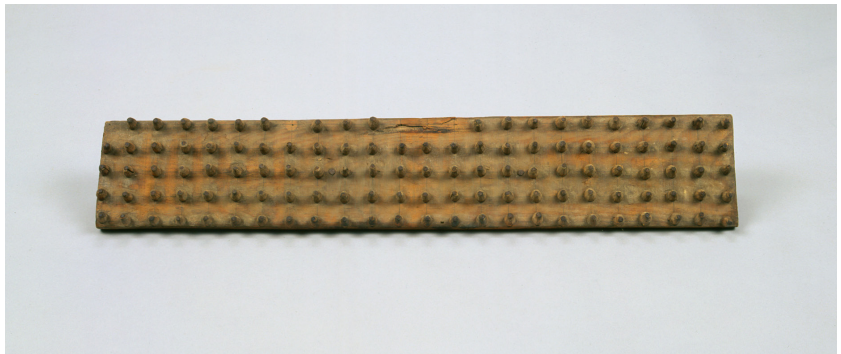
조선에서 인삼 재배를 시작한 경위는 대체로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인삼 공납을 둘러싼 폐단인 삼폐(參弊)가 심각해지면서 인삼을 구하기 위해 암암리에 재배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설이다. 인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삼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웠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특정 지역에 부과된 삼공(參貢)의 양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를 채우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산삼이 고갈되면서 삼폐는 더욱 심해졌고 이것이 인삼 재배로 이어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는 평안도 강계를 비롯한 각 지역 관찰사가 삼폐의 실상을 호소하는 보고가 많이 나온다. 산삼이 귀해짐에도 지역 수령들의 가혹한 삼공 요구와 가렴주구로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음을 고발한 것이다.

산삼이 귀해진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1707년 이이명(李爾命)은 “근래 중외(中外)의 인삼이 몹시 귀해져 공사(公私)의 수용(需用)이 거의 바닥이 나는 데 이르렀다”라는 장계를 올렸다. 인삼 수요가 증대하면서 남획이 이루어져 인삼이 고갈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관서(關西)의 세포(稅布)와 공목(貢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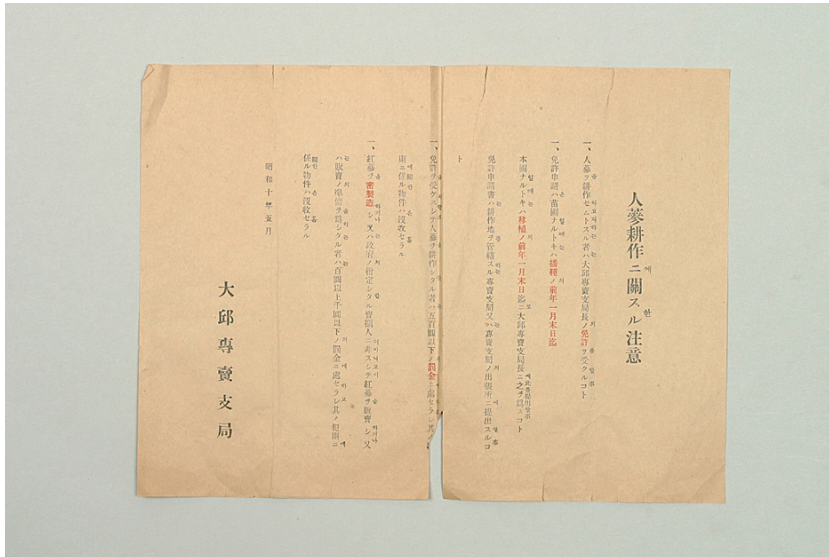


-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인삼을 수확할 때 쓰는 인삼 채취용 곡괭이.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 재종천혈판(栽種穿穴板)은 인삼씨를 파종할 때 쓰는 농기구로 판 아래에는 인삼씨를 심기 위해 구멍을 내는 족이. 판 위쪽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강계(江界)로 들여보내 여기에서 시가(時價)에 따라 인삼을 구입하여 호조(戶曹)에 수송해서 국가의 수용(需用)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는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sup>3</sup>



• 1935년 대구전매지국에서 인삼 경작에 관한 주의 사항을 설명해놓은 전단.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둘째, 인삼이 농가의 큰 수입원이 되므로 유망 품목으로 이를 재배하기 시작할 수 있다. 산삼은 구하기 점점 힘들어진 데다 인삼이 시중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조 원년(1777년)에 호조판서 구윤옥(具允錫)이 “삼가(蔘價)가 크게 뛰어오른 것은 공용(公用)이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근래 사가(私家)에서 인삼을 사용하는 것이 전보다 10배나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한 기록이 《일성록(日省錄)》에 나온다.<sup>4</sup> 또 16, 17세기 들어 대청, 대일 무역에서 인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량의 인삼을 해외로 수출해 값이 급등하자 너도나도 상업적 재배에 나섰다. 정약용(丁若鏞)이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농민들에게 수익이 높은 작물 재배를 권고하는 당시 상황을 감안해볼 때 인삼 역시 수익성이 높은 상품 작물에 속해 재배가 성행했을 것이다.

## 400여 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유산

인삼 재배는 삼폐에서 비롯돼 나중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시장 경제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짐작된다. 시대적 상황과 문헌상의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인삼은 삼폐가 극심했던 14세기 후반 또는 15세기 초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산양삼으로 재배가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은 삼포 재배법은 17세기에 농가에 알려졌고, 18세기 들어 보편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어 18세기 후반 최대 인삼 시장인 중국,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졌다. 인삼은 지금도 전문 인삼 농사꾼이 아니면 재배하기 어렵다. 당시로서는 고난도의 기술이었던 인삼 재배법은 국가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일반 백성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발전해왔다. 선조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유산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인삼 종주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인삼 재배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을까?

인삼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인삼은 농가의 고부가가치 작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렇다면 그 첫 재배지는 어디일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화순, 풍기, 금산이 원조로 거론되고 있다.

### 화순 동복현 기원설

20세기 초 김택영(金澤榮)이 편찬한 소호당 문집 《홍삼지(紅蔘志)》에 인삼 재배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김택영은 개성 출신의 부모와 한양의 통역관으로 부터 보고 들은 내용과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속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조정에서 얻은 문헌을 근거로 “전라도 동복현에 살던 김 진사의 며느리인 어떤 여자가 산에서 산삼 종자를 얻어 밭에 심었는데 최 씨 성을 지닌 사람이 이를 전파하였고 이로써 가삼의 이름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헌비고》(영조 46

년 1770년에 전라도 동북면 최 씨라는 사람이 파종해 가삼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김택영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다. 전라도 동북현은 현재 전남 화순군 동북면으로 모후산이 있다. 장지연(張志淵)도 《위암문고(韋庵文稿)》에서 명릉 즉 숙종대(1674~1720년 재위) 이 같은 일이 일어났고 개성 사람에게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이 전파됐다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1914년 간행된 《중경지(中京誌)》는 개성의 산물로 인삼, 구기자, 송이, 백자, 백당 등을 소개하며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중경지》는 김택영의 글을 참고해 '토산편'을 기술했음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화순 기원설이 김택영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중경지》는 1648년에 간행된 《송도지(松都誌)》와 1881년 개성 유수 조경하(趙敬夏)가 이를 증보한 《중경지》를 바탕으로 추가 사실을 담았다. 특히 앞서 말한 《홍삼지》는 인삼의 종삼법, 홍삼의 세와 교역 등에 관해 1908년까지의 사실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 같은 문헌을 근거로 화순군은 인삼 시배지가 화순군임을 주장한다. 산삼을 캐러 들어가기에 앞서 제사를 지내는 개삼제가 일부 심마니를 중심으로 매년 10월 모후산에서 열리고 있다.

## 풍기 기원설

풍기를 근거지로 한 영남 기원설도 전해진다. 인삼 재배가 풍기 군수 주세봉(周世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설로 문헌적 근거 없이 전설로만 전해올 뿐이다. 1541년 경상도 풍기 군수에 부임한 주세봉이 인삼 때문에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배법을 개발해 농민들에게 전수했다는 주장이다. 10년 후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해 그곳에서도 인삼을 재배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고 구전만 된다. 풍기에서는 이처럼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산삼을 재배삼으로 대납했음이 알려지면 화를 입을 것을 우려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세붕 군수의 인삼 재배설과 비슷한 내용은 훗날 유득공(柳得恭)이 쓴 《고예당 필기(古芸堂筆記)》 ‘권3’에 나온다. “해마다 약포에서 가삼을 많이 판다. 영남이 재배한 것이다. 산삼에 비해서 성미가 못하지만 가격은 3분의 2가 싸다. 복약하는 자들이 편하게 여긴다. 충주 심홍경이 와서 말하기를 충주 사람들 또한 배워서 재배한다고 하였다… 영남인은 밭에 재배하기를 채소와 다름이 없게 한다. 이로움이 소재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투어 모풍(慕風)하는데 소를 팔고 밭을 팔고 삼으로 바꾸어 종하여 왕왕 부유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풍이 영을 넘어서 충주까지 이르렀다”<sup>5</sup>고 기술한 것이다.

문헌은 영남 지역에서 시작된 인삼 재배가 유행처럼 번져 충청도 충주 지역 주민들까지 뛰어 들었다고 소개했다. 당시는 산삼이 귀한 데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으로 수요가 막대해 삼폐가 심한 실정이었다. 이에 유득공은 “삼은 특별히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種)하여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즐겨 종하는 것이면 어찌 팔로(八路)에 두루 쓰지 않을 것인가. 삼에 여유가 있으면 백성이 본래 곤궁하지 않을 것이니 다행이 아닐 것인가. 내가 그러므로 그 방법을 기록하여 마음이 있는 자들이 보게 하려 한다”며 가삼 재배법을 정리한 이유가 삼폐의 해소에 있음을 밝혔다.<sup>6</sup>

서호수(徐浩修)의 《해동농서(海東農書)》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금속(今俗)에 혹은 산삼본(山蔘本)을 이종(移種)하거나, 혹은 취자(取子)하여 재배하는데, 영남(嶺南)





• 풍기 인삼 개삼터



• 풍기인삼조합 공덕비.

에서 시작하여 국내에 퍼졌다. 모두 가삼(家蔘)이라고 칭한다”라고 가삼 재배가 영남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음을 기술했다.<sup>7</sup> 영남은 본래 삼국 시대부터 ‘나삼(羅蔘)’이라 하며 중국에서도 품질을 높이 인정한 인삼의 산지다. 여기에서 나삼은 산삼이다. 나삼을 마구 캔 까닭에 조정에 바칠 삼이 필요해진 영남 지역 주민들이 인삼을 재배한 것으로 추측된다.

### 금산 기원설<sup>8</sup>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전국 330개 군현의 약재 산출지를 기록한 것이 나온다. 그런데 금산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중종 25년(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진산군이 인삼 산출지로 기록돼 있다. 금산과 인접한 진산군은 1814년 금산군으로 편입됐는데 현재의 금산군 진산면이다. 따라서 이는 금산에서 인삼이 산출됨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하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삼이 풍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금산은 뒤늦게 인삼 재배가 성행해 현재와 같은 인삼의 고장으로 자리 잡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금산의 인삼 재배 기원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다. 풍기와 화순이 《문헌비고》《중경지》 등에 전해지는 것과 달리 금산은 언론을 통해 설로 전해진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1460년경 금산면 상옥리에 김 씨 성을 가진 과부가 진악산에서 삼지오엽에 선홍색으로 달린 열매를 따 정원에 심었다. 이듬해 봄에 새싹이 나 이를 몇 년 동안 재배했다. 김 과부의 외동아들이 열 살 때 불치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했는데 재배하던 인삼 뿌리를 먹었더니 불치병이 나왔다. 이 소문이 전파돼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였다”<sup>9</sup>고 한다.

〈매일신보〉는 인삼 재배 설화를 주인공만 바꾼 채 또 다른 내용으로 신기도 했다. “금산 읍내 중도리에 사는 강방환의 6대조 강득무가 진악산 아래에 있는 금산면 계진리에 거주하던 중 관남봉에서 산삼을 채취해 그 열매를 따다가 재배를 시작했다”<sup>10</sup>고 정리한 것이다.

금산의 인삼 유래를 전한 〈매일신보〉 기사는 화순의 인삼 재배 설화와도 약간 비슷하다. 1929년 금산군 산업 기수였던 호소카와 간지(細川幹一)는 “김립이라는 사람이 1770년경 개성으로부터 인삼 종자를 가지고 와 묘포를 만들어 시작했고 성과가 좋아 육묘를 개성 인삼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sup>11</sup> 호소카와의 말처럼 금산은 18세기 후반 인삼 산지로 부상했을



• 금산군이 조성한 개삼터 공원 모습.

가능성이 있다. 18세기 말에는 영남과 마찬가지로 인삼 재배법이 보급되던 시기였고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18세기 말에 편찬된 《금산군읍지(鎭山郡邑誌)》에는 인삼이 주요 물산으로 등재돼 있다.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품목이 새로 등장한 것은 뒤늦게 재배가 성행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에는 인삼 재배를 처음 시작했다는 개삼터가 있다.

## 수삼 · 백삼 · 홍삼, 진짜 이름이 뭐니?

인삼은 수삼, 백삼, 홍삼 등 모든 종류의 삼을 총칭하는 말이다. 수삼은 땅에서 캐낸 원형 상태의 삼인데, 수분 함량이 75% 이상으로 장기 보관이 어렵다. 백삼은 수삼을 그대로 또는 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말려 건조한 삼이다.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인삼으로 형태에 따라 직삼(直蔘), 반곡삼(半曲蔘), 곡삼(曲蔘)으로 구분한다.

홍삼은 수삼을 수증기로 찐 다음 건조시킨 담황갈색의 인삼이다. 증삼과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가공하는데 제조 과정 중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 짙은 갈색을 띤다. 또 물성이 단단해져 길게는 2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중국 사람들은 홍삼이 오래될수록 효능이 좋다고 믿어 오래된 것일수록 값을 더 높게 쳐줬다. 실제로 홍삼은 시간이 흐를수록 특유의 향이 짙어진다. 태극삼은 홍삼과 백삼의 중간 상태의 제품이다. 수삼을 뜨거운 물속에 일정 시간 담가 익힌 다음 건조해 제조한다. 표피의 색상은 담황갈색을 띠고 절단했을 때의 단면은 백삼의 절단면 색상과 유사하다.



- 다양한 종류의 백삼. 왼쪽부터 직삼, 반곡삼, 곡삼이다.



- 사람의 형태를 갖춘 수삼의 모습.



- 태극삼의 모습.



## 삶아 말리는 홍삼이 나타나다

인삼의 다양한 변신을 이끄는 가공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원래 인삼은 밭에서 막 캔, 가공하지 않은 생삼 즉 수삼을 약용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수분 함량이 높은 생삼은 보존이 어려워 상품 가치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특히 왕실에 진상하거나 중국에 조공품으로 바칠 경우 운송 도중에 곰팡이가 피고 말았다. 이를 극복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을 것이다.

인삼 가공의 역사는 확실하게 기록돼 있지 않다. 다만 중국 당나라 시대 이전에는 주로 생삼을 먹거나 물에 씻어 햇볕에 껍질째 말린 피부백삼 정도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 건조시킨 건삼 혹은 백삼은 오래되면 부서지는 한계가 있었다.<sup>12</sup>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한 번 삶은 후 건조하는 방법이다.

청나라의 풍조장(馮兆張)이 저술한 《금낭비록(錦囊秘錄)》을 보면 “인삼채(人蔘採)가 있으면 비탕(沸湯)에 넣어…”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삶은 후 건조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크고 작은 인삼을 혼합해 끓여 말린 다음 여러 개를 묶은 파삼(把蔘)은 임진왜란 때 출병한 명나라의 군대를 따라온 중국 상인으로부터 전해졌다고 한다. 이에 앞서 명나라 말기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청 태조)가 오래 저장할 목적으로 백성에게 자삼(煮蔘) 즉 삼을 삶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한편 1830년에 간행된 《중경지》는 “중국에서는 아편 중독자들이 인삼을 복용했으므로 조선인삼을 진귀하게 여겼다. 가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에 최 씨는 인



- 삶아 말리는 방법으로 가공한 홍삼.

삼을 증팽(蒸烹)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를 홍삼이라 하였다”며 개성을 홍삼의 기원지로 전했다. 하지만 청나라 이전인 고려 시대에 이미 홍삼 형태의 인삼이 제조되고 있었다. 1123년 고려 인종(仁宗) 때 송나라의 국신사를 수행해 개성 지역을 방문한 서경(徐兢)은 귀국 후 당시 고려의 생활상을 기록한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출간했다. 그런데 그 안에 홍삼의 증제법이 전해진다.

인삼의 줄기는 한 주기로 나뉘고 어느 지방이고 있으나 춘주(春州) 것이 가장 좋다. 또 생삼(生蔘)과 숙삼(熟蔘)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삼은 빛이 희고 허(虛)하여 약에 넣으면 그 맛이 온전하나 여름을 지나면 쯤이 먹으므로 써서 익혀 오래 둘 수 있는 것만 못하다. 예로부터 전하기를,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고려 사람이 돌로 이를 눌러 즙을 짜내고 삶기 때문이라 하였지만, 이제 물으니 그것이 아니다. 찢 삼의 뿌리를 쪼개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달이는 데에도 마땅한 법이 있다.

여기에서 숙삼이란 찢 인삼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홍삼과 다를 수 있지만 홍삼의 전신으로 홍삼 제조의 기원을 보여준다. 특히 ‘찢 삼의 뿌리를 쪼개어 만 든다’는 제조법은 지금의 홍삼 제조, 포장 방법과 일치한다. 이미 고려 시대에 인삼의 가공이 시작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오늘날 홍삼의 전신 형태인 다양한 인삼 제조법이 고려 시대부터 있었고, 중국에서는 청나라 초기에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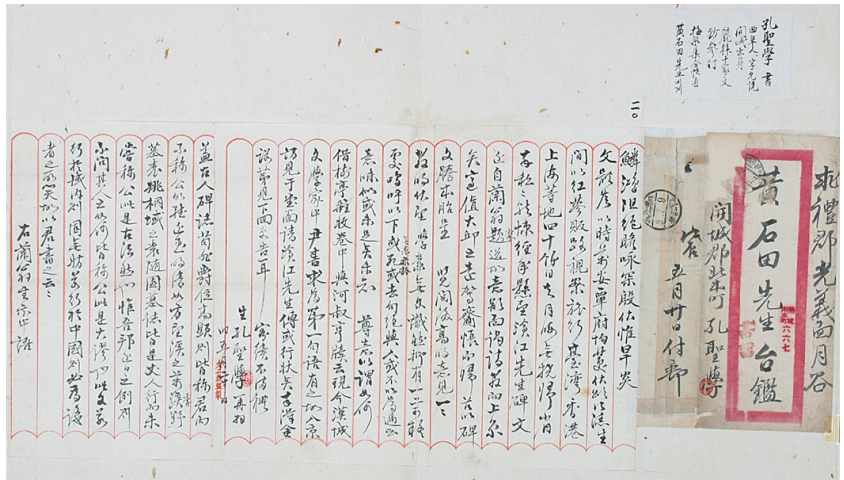
### 백삼, 글로벌 통신판매의 원조

정부가 관장하던 홍삼과 달리 백삼은 순수하게 인삼 상인들이 노력해 개척했다. 18세기 인삼 재배가 활발해지고 생산량이 늘면서 홍삼 제조도 급증했다. 정부는 인삼의 경작부터 가공, 판매까지 일체의 행위를 규제했다. 그러면서 홍삼 제조에 적합하지 못한 수삼은 농가로 귀속시켰는데 이의 처리가 문제였다.

초기에는 불합격한 수삼이 나오더라도 수삼을 홍삼용으로 납품하면 수지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매제로 삼업을 관장하면서 납품가는 떨어졌고 정부만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 인삼 농가들은 수삼이 홍삼용으로 불합격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이의 활용 방안이 시급했다. 이런 배경으로 홍삼포가 많았던 개성에서는 홍삼을 대신하는 백삼의 상품화가 본격화됐다. 백삼의 제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지만 후대에 활발해진 것이다.

상인들은 홍삼용으로 납품하는 것 이외의 인삼을 백삼으로 개발하고 판로를 확보했다. 인삼 상인 손봉상(孫鳳祥), 최익모(崔益模), 공성학(孔聖學)은 오늘날 백삼을





- 개성의 공성학이 1928년 5월 20일 구례에 살던 황석전에게 보낸 서간. 공성학은 서두에 자신이 홍삼 판로를 위해 타이완, 홍콩, 상하이 등지를 40여 일 사찰, 여행하고 지난해 그림에 귀항했음을 알렸다. 출처 : 박물포 포털 연구자업

개척한 선도자다. 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해외에 백삼을 판매하는 데 골몰해 개성 인삼 브랜드를 만들었으며 포장을 개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특히 이들의 통신판매법은 지금의 e-커머스와 같다. 신문, 잡지, 전단에 백삼 광고를 내고 통신 주문을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판매법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브랜드 전략과 포장 개선, 현대식 판매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 인삼밭을 군대가 지킨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인삼 농가의 가장 골치 아픈 일 중 하나는 인삼 도둑을 막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도 인삼 도둑은 끊이지 않았던 듯싶다. 1800년 이학규(李學逵)가 저술한 《삼서(參書)》에 인삼 도둑 막기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인삼 농가에서는 도둑을 막기 위해 삼대로 엮은 밭로 인삼밭을 둘러싸는 대신 몽우리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 주위를 막았다고 한다. 도둑이 밭에 들어오다가 건드리면 돌담이 무너지며 큰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학규는 이 방법이 도둑을 잡는 이점보다는 인삼에 주는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울타리 밖에 도랑을 파는 것은 장마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로, 깊게 파야 하는데 돌담을 쌓으려고 넓게 파는 것은 인삼 농사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 《삼서》는 밤에 사람을 사서 딱따기를 치며 순찰을 돌아 삼포를 지키는 당시 상황도 전했다. 사실 인삼 도둑의 역사는 인삼의 역사만큼이나 깊다.

### 일본인의 인삼 절도를 막아라

《조선왕조실록》에는 “인삼이 생산되는 곳으로는 폐사군(廢四郡)만 한 곳이 없는데, 여전히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캐 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삼이 극히 귀한 때에는 인삼밭을 봉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 시대에도 삼도독이 극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일본인들의 밭떼기 도적질이 극심했다. 특히 구한말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늘면서 이들의 인삼 절도가 심했다. 심지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초기에는 조선인들이 만든 홍삼을 몰래 빼돌리는 수준이었다. 개성 증포소에서 제조한 홍삼 가운데 불합격품을 빼돌리거나 증포소 이외의 곳에서 밀조했다. 이렇게 밀매로 큰돈을 벌게 된 일본인들은 1890년대 초 수삼을 직접 구입해 홍삼을 밀조해 파는 대담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당시에는 삼포주가 일본인에게 삼을 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엄한 감시망을 피해 갖은 방법으로 인삼밭을 통째로 도적질했다.



- 삼산봉표. 봉표란 나라에서 일정한 곳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계표로, 이 비는 정선군 정선을 회동리에서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인삼과 산삼이 많이 나는 곳으로 삼을 캐려는 사람들의 손길이 빈번했다. 이에 나라에서 삼의 주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를 세워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처 : 문화재청

개성과 가까운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일본인들의 인삼 절도는 더욱 심해졌다. 일본인 도채꾼들은 짐꾼과 호위대를 배에 태워 제물포를 출발, 개성과 가까운 벽란도로 갔다. 그 일당이 많을 때는 50명, 적을 때는 30명 정도였다. 칼과 총으로 무장까지 했으니 무장 강도였던 셈이다. 조선 말기 국가의 재무를 총괄하던 탁지아문과 의정부, 경기의 관찰사가 주고받은 문서에 당시의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1897년 11월 경기의 관찰사가 의정부로 보낸 보고서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인 복장을 하고 삼포에서 인삼을 매입할 목적으로 내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인삼을 거래하는 것은 통상조약에서 금하고 있는 바이니 궁내부와 외부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일본인들은 조선인으로 위장해 인삼 밀매에 나섰던 듯하다. 또 일본인 수십 명이 밭에서 인삼을 강탈하다 동네 주민과 싸움이 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극에 달한 일본인들의 행패가 당시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이때마다 일본 경찰은 쌍방 피해로 처리해 조선인들의 분노를 샀다.

일본인들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개성 인삼 농민들은 1898년 “무릇 일본인이 인삼을 그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서 캐는 것은 도적과 같이 다스려야 하며 아국인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파는 경우에도 엄히 다스려 도적이 도적에게 파는 폐단을 그치게 해달라”고 개성부윤에게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없고 오히려 개성민들에게 책임을 씌우려 하자 개성 민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인들의 인삼 절도 행위는 1894년부터 1899년까지 가장 왕성했다. 정부는 일본인들에 의한 도채 피해가 커지자 1898년 <삼정규칙>을 제정해 그들의 불법 행위를 막으려 했다. 일본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홍삼으로 제조될 수삼이





- 경성일지출상행(京城日之出商行)에서 발행한 조선 풍속 시리즈 엽서, 인삼 말리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했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 인삼 제조 광경을 촬영한 흑백 사진을 인쇄한 엽서, 사진 우측 상단에 'THE GRAND SIGHT OF THE GINSENG WORK HOUSE AT KAISYONG.'이라는 글귀를 넣었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삼포주에게 일종의 증명서인 빙표를 만들어 나누어 주고, 삼포를 팔 때는 구매한 사람에게 빙표를 인계하도록 했다. 증빙 없는 거래를 막으려 한 것이다.

## 삼밭에 군대를 파견하라

왕실이 전매권을 장악한 후에는 근본적인 절도 방지를 위해 개성 지방에 군대를 주둔시켜 삼밭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1899년 내장원은 개성부 삼포를 지키기 위해 왕명으로 개성부윤을 지휘관으로 임명해 해주, 황주, 강화 지방대를 관할하게 하고 삼포 소재 각 군에 군대를 배치해 인삼 절도를 막도록 했다. 심지어 인삼을 도둑질하는 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발포 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즉 발포 명령권을 각 관할 부대에 주고, 발포 사실을 사전이 아닌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만큼 인삼 지키기는 국가적 역점 과제였다.

군대는 인삼 수확기인 9, 10월에 투입돼 인삼 불법 유출과 홍삼의 밀매·밀조를 엄하게 단속했다. 파견 병력 수는 100~200명 수준이었다. 개성 지역에는 개성대 소속 병정이 있었지만 인근의 황주대, 해주대, 수원대에서도 파견 나왔다. 이들은 삼포를 감시하고 인삼 운반 호송도 담당했다. 주로 5년근 이상을 재배하는 삼포에 삼포주의 청원이 있을 때 병력을 주둔시켰고 1,000칸에 2명 내지 3명을 배치했다.



•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 개성인삼전매지청.

〈황성신문〉에 따르면 1899년 9월 해주, 황주, 강화 각 지방대의 병정 수십 명을 파견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강화병 150명, 해주병 100명, 경병 1중대를 추가 파병했으며 친위대 1중대까지 급파했다고 한다. 군인들이 인삼밭 경비에 나선 1899년에는 일본인들에 의한 절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1903년 9월에는 서울 병력 500명을 파견하고 추가로 강화병 150명, 해주병 100명, 서울 시위대 1개 중대를 보냈다. 개성 부대 병력 100명도 개성, 풍덕, 장단, 금천, 토산군에 파견하고 9월 18일에는 강화병 100명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했다.

이렇게 군대를 파견하는 것 이외에도 왕실과 조선총독부는 삼정과에 경무서를 설치하고 순검을 배치했다. 원래 경무서는 서울의 경무 본부 소속이었지만 변칙적으로 삼정과에 두었다. 삼정과에 배속한 경무서는 홍순(경무서장) 밑에 권임(경정급) 2명, 순검 40명 등을 둘 정도로 큰 조직이었다. 직접적인 삼포 감시는 정

복을 입은 순검이 많고, 사복을 입은 별순검은 검거를 담당했다. 별순검은 3~4 명이 조를 이루어 단속에 나섰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삼 단속 비밀경찰이었던 셈이다. 권임 이하의 순검에 대한 임명권은 삼정과장이 가졌다. 삼포를 지키기 위해 삼정과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인삼을 캐 때 순검은 타인이 인삼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채굴이 끝나면 한 사람씩 신체검사를 해 인삼 은닉 여부를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승인 없이는 인삼 한 뿌리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했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인삼 주산지의 경찰은 인삼 수확 철이 되면 비상이 걸린다. 관내 인삼밭 위치도를 상황실에 비치하고 순찰에 나서는가 하면 검문소마다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삼엄한 야간 검문을 실시한다. 인삼의 가치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 최고의 인삼은 무엇이 다를까?

### Q 인삼은 크고 통통할수록 좋은가요?

**A** 인삼의 크기가 약효나 품질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산에서 기르는 장뇌삼은 크기는 작지만 그 효능은 최고로 통한다. 오히려 재배 연수에 비해 너무 큰 인삼은 속이 무를 수 있어 연근에 맞는 적절한 크기를 좋은 것으로 친다. 인삼은 예로부터 사람의 형태를 닮은 것, 즉 머리, 몸통, 팔, 다리가 사람처럼 달려 있고, 부위별로 균형 잡힌 형태를 갖춘 인삼을 좋은 것으로 쳤다.

홍삼을 제조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겉보기에 통통하고 큰 인삼이어도 열을 가해 찌면 속에 구멍이 생기고 희끗희끗한 내백이 나타나는 것이 가끔 있다. 이는 비만인 사람이 걸으려는 건장하게 보여도 속은 허한 것과 같다. 따라서 홍삼 제조업체는 인삼의 크기는 물론 형태적 균형, 뇌두·동체·뿌리의 선명한 구분 등을 품질 기준으로 삼는다. 몸통에 2~3개의 굵은 뿌리가 있고, 모양이 완벽하며, 빨간 반점이 나 검은 반점이 없고, 원형을 유지한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좋다.

### Q 인삼의 뇌두는 제거해야 하나요?

**A** 아니다. 한방에서는 인삼을 강장제로 사용할 때 효능을 억제하고 구토를 유발한다고 해서 뇌두를 제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뇌두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노화 증상과 신체 생리적 대사 기능이 개선된 반면 구토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Q** 인삼을 오래 달이면 좋은 이유가 뭔가요?

**A** 인삼을 오래 가열하면 원래 인삼에는 없는 고기능성 사포닌이 생성되고 항산화 성분과 아미노당 화합물의 함량이 높아져 약효가 증가한다. 따라서 인삼은 오래 달여 먹는 것이 좋다. 옛말에도 인삼은 오래 달여서 복용하라고 했다.

**Q** 사포닌은 어느 부위에 많은가요?

**A**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타 식물의 사포닌과 효능 면에서 매우 다르다. 인삼의 사포닌은 부위별로 함량 차이가 있어 '잔뿌리 → 뇌두 → 굵은 뿌리 → 몸통' 순으로 사포닌 함량은 몸통보다 잔뿌리가 높지만 사포닌 종류에 따른 함량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다. 인삼은 사포닌의 종류와 그 함량 비율이 적절하게 이뤄진 인삼이 아니라 최고의 효능을 지녔다 할 수 있다. 인삼은 사포닌 이외에도 폴리아세틸렌, 다당체, 페놀성 성분 등 인체에 유효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인삼의 품질은 특정 성분의 함량도 중요하지만 여러 생리활성 물질의 균형적 분포도 중요하다.

**Q 인삼의 유통기한은 얼마인가요?**

**A** 밭에서 캐낸 그대로의 수삼은 수분이 70% 정도로 상온에서는 오래 보관이 어렵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는 한번 소비할 만한 양을 소량씩 포장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백삼이나 홍삼은 습기를 피하면 상온에서 2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며 진공 포장 상태라면 10년도 문제없다. 실제 진공 캔에 포장된 홍삼의 경우 오래된 것을 더 가치 있는 상품으로 치기도 한다.

**Q 인삼에는 철기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예로부터 인삼에는 철기 사용을 금한다고 해서 절단할 때는 대나무 칼을 썼고, 달일 때도 돌이나 옹기로 된 약탕기를 썼다. 인삼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페놀성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철(Fe)과 만나면 산화돼 그 효능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인삼을 달일 때 가마솥과 같은 철 용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요즈음 흔히 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 용기는 인삼 성분을 산화시키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무쇠솥이 아닌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 02

한국을

---

지킨

---

인삼 이야기

---

- 실�크로드부터 유카탄반도까지
- 독립운동 자금의 뿌리가 되다
- 인삼을 키워 군사력을 키우다
- 천금 같은 인삼을 왜 불태웠을까?
- 인삼에서 시작된 독도는 우리 땅
- 조선 경제의 심지, 심



## 실크로드부터 유카탄반도까지

실크로드가 동서양 교역의 길을 터주었다면 인삼이 일군 진생로드는 유럽은 물론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어진다. 나라 밖을 나서는 게 결코 쉽지 않던 시절, 우리의 인삼 상인들은 거침없이 세계를 누볐다. 때론 모진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민간 사절단 역할을 하며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선각자로 활약했다.

### 실크로드를 밟고 유배를 당하다?

동서양 문물 교류의 통로였던 실크로드에 고려인삼이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 이를 명확히 밝혀주는 문헌은 찾을 수 없다. 유럽으로의 인삼 전파는 동인도회사와 실크로드를 오가던 외교 사절,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어느 루트가 앞서는지 정확치 않다. 실크로드에 한국인이 처음

등장한 때는 7세기 중엽. 사마르칸트 왕인 와르흐만 재위 시기(650~670년)에 완성된 벽화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지난 1965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사마르칸트 시 북부 교외에 있는 아프리카시아브 궁전 벽화에 조우관(鳥羽冠)을 쓴 인물이 그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조우관은 새의 깃털을 꽂은 모자 형태의 복식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에 등장한다. 인제대 조운재 교수는 “당시 나당 연합군의 압력을 받던 고구려가 당을 견제하기 위해 서역으로 파견한 것”이라고 보았다.<sup>13</sup> 이로 미루어 삼국 시대부터 외교 사절이나 상인들이 실크로드 기행에 나섰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크로드에서의 인삼 장수가 문헌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고종 20년(1883년) 7월 14일 인삼 장수 문초운(聞肖雲)이 실크로드 최대 도시인 둔황 서쪽에 위치한 간쑤 성의 자위관 지역에서 장사를 했다는 기록이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에 나온다.<sup>14</sup> 청나라 관청인 순천부가 작성한 외교 문서를 인용한 이 사료에 따르면 문초운이 간쑤 성에 들어가 인삼을 사고팔았기에 붙잡아서 베이징으로 호송했다고 한다. 체포 사유는 러시아 통상 구역인 자위관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불법이며, 통행허가증도 없었기 때문. 그리하여 문초운은 베이징에서 조선으로 추방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의 전모는 대략 이렇다. 1882년, 동지 전후에 청나라에 보내던 사신 ‘동지사’를 따라 중국에 간 문초운은 사신단이 귀국할 때 신병을 핑계로 따라 나서지 않고 대신 200km쯤 떨어진 둔황 지역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당시 중국으로 가는 사행단에게는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인삼, 호피, 청심환 등 조선 특산품을 교역하는 것이 허락됐는데 문초운이 국제 교역에서 이윤이 큰 인삼을 가지고 실크로드까지 진출한 것이다. 문초운이 사신단 일행에게 “인맥을 통해 머



무를 곳이 있다”고 말했다는 사료 기록으로 미루어 그는 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최덕수 교수는 “문초운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확실한 만큼 다수의 조선 상인이 실크로드에서 장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sup>15</sup>

상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실크로드까지 진출한 것은 고려인삼이 고가로 거래되는 인기 상품으로 이윤이 컸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장사하다 조선으로 송환된 문초운은 유배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었으니 1894년 8월 1일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보면 “철원의 문초운을 즉시 풀어주라”고 전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아마도 유배는 중국 입장을 고려한 외교적 조치에 불과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 미주 이민사의 첫 장을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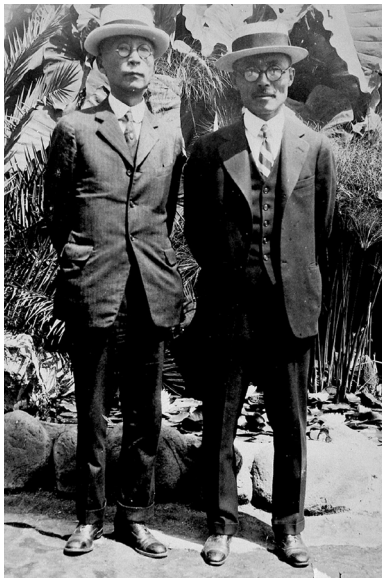
문초운의 행보에서 보듯 한국의 인삼 상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해외로 진출했다. 미국과 멕시코의 이민사에서도 인삼 상인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미주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1902년 12월 22일 한인 121명이 인천항을 떠나 하와이로 가면서 본격화됐다. 하와이의 수수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은 임금이 더 높은 철도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본토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미주 본토의 샌프란시스코에는 1903년 당시 20여 명의 한인 인삼 상인과 유학생이 살고 있었다.<sup>16</sup> 인삼 상인들은 최초의 이민자로 알려진 서재필(徐載弼)을 따라 1885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왔고, 1893년 이후에는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 1893년 1월에서 9월

까지 샌프란시스코 항구의 입국 기록을 보면 9명의 인삼 상인이 들어왔는데 ‘중국인’으로 표기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안도 출신으로 중국 노동자들 틈에 끼어서 이주했다. 특히 인삼 상인으로 이름이 높은 임상옥(林尙沃)이 태어나고 주로 활동한 평북 의주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에 정착한 인삼 상인들은 중국 여권을 갖고 들어와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인삼을 팔았다. 하지만 행색은 누가 봐도 조선인의 모습이였다. 자신들이 팔러 다

니는 인삼이 진짜 고려인삼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상투를 들고 짚신을 신는 등 조선 사람의 복장을 하고 다닌 것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지에서 더 나은 판매 구역을 차지하기 위해 인삼 상인끼리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잦았으며 미국산 인삼을 고려인삼이라고 속여 팔기도 했다. 돈이 생기면 주색잡기에 빠져버린 한인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본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는 이들의 비참한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1903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동포들을 모아 한인 친목회를 조직했다. 이것이 미국의 첫 한인 단체이자 미주 본토의 한인 사회를 주도한 공립협회의 전신이다.



• 1925년 LA에서 서재필(좌)과 안창호(우)가 찍은 사진. 이들은 중국과 미국을 누비며 국민회와 흥사단 조직을 강화했고, 특히 인삼 상인과 유학생이 주축이 된 미국 내 한인 동포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 나라 밖 애국 펼친 글로벌 소식통

미국 이민사가 보여주듯 한국인과 중국인이 있는 곳이면 한국 인삼 상인은 꼭 출현했다. 지구 반대편에 자리 잡은 남미도 예외는 아니었다. 황해도 출신 인삼 장수 김익주는 쿠바 등 남미 지역 중국인을 상대로 인삼을 팔았다. 그렇게 번 돈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동포들을 상대로 모금한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에 송금하곤 했다. 멕시코로 건너간 인삼 장수 박영순은 에네켄(용설란의 일종으로 선박용 밧줄 등의 원료)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미국 공립협회에 알렸는데 이는 국내 <대한매일신보>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 110년 전 멕시코 에네켄 농장.



- 100년 전 한인 멕시코 이민 직후 사진 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비참한 생활상이 인삼 장수 박영순에 의해 국내에까지 알려졌다.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 세계 28개국에 산재한 한인의 숫자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278만 3,254명이다. 그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는 홍콩 22명, 마카오 2명, 베트남 54명, 인도 15명, 필리핀 42명, 말레이반도 18명, 타이완 1,604명이 거주했다. 동남아 지역 한인은 대개 인삼 장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7</sup>

인삼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한곳에 정착하기보다 멕시코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한인들에게 조국의 소식을 전하고 모금 운동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孫基禎)이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처음 접한 것도 귀국 도중 싱가포르에서 만난 인삼 장수로부터였다. 해외를 떠돌던 인삼 장수들은 단순히 상업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소식을 동포들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까지 톡톡히 했다.

## 독립운동 자금의 뿌리가 되다

일제 치하 36년 동안 국내외에서 치열하고 다양하게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죽음을 두려워 않는 애국심과 투철한 민족정신이 그 근간이지만 물질 토대 없는 독립운동은 사실상 지속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독립운동 자금은 명문가의 아낌없는 헌신과 상인과 일반 백성들이 하나 둘 돈을 보탠 것이 큰 몫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상하이, 미주, 동남아에 흩어져 살던 해외 동포의 자금 지원은 독립운동 세력에게 큰 힘이 됐으며 이는 곧 항일 투쟁의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했다. 한인들의 해외 상업 활동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 어디를 가나 한인 인삼 상인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독립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독립운동을 활발히 한 몽양 여운형(蒙陽 呂運亨)의 인삼에 얽힌 일화는 유명하다. 일본 경찰의 조사 기록에는 몽양의 동남아 진출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몽양은 개성의 유명한 인삼 상인 홍순오로부터 외상으로 받은 개성 인삼 300근을 싱가포르에서 근당 100달러씩 받고 팔아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 일본 경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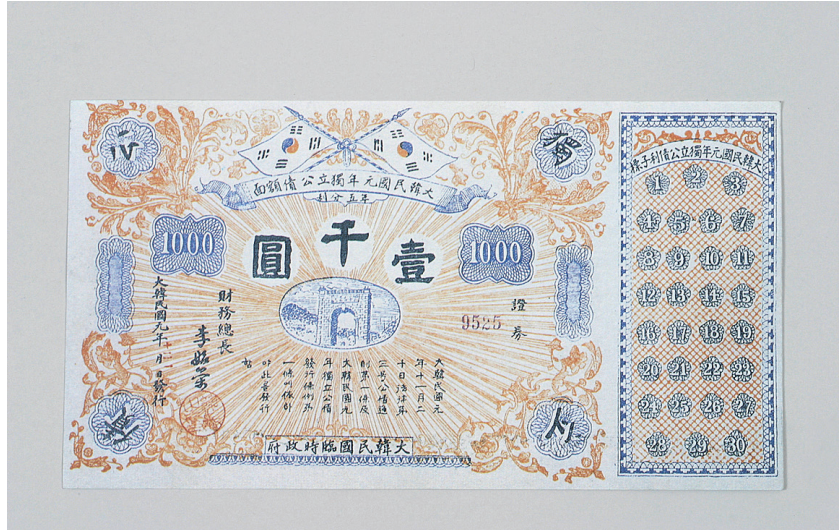
눈엣가시였던 여운형을 구속시키기 위해 그가 홍순오의 돈을 떼먹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했다. 여운형이 인삼 판매 대금에서 2,000달러는 가족에게 송금했으나 홍순오에게는 한 푼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운형은 이를 빌미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매도됐지만 사실은 독립자금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

## 독립운동의 거점, 상하이 인삼 상회

미주를 비롯해 멕시코, 동남아 등지에서 한인 상인들이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을 때 임시정부가 소재한 독립운동의 근거지, 상하이에서 활동한 상인들의 역할은 더 컸다. 한국은 1876년 개항 직후부터 중국 상하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더욱이 1883년 조선과 상하이 사이에 정기 항로가 개통됨에 따라 두 지역의 인적·무역 왕래가 더욱 용이해졌다. 초기에 상하이로 건너온 한인은 대개 정부 관리와 부호 자제, 상인이었는데 개항과 함께 한인 상인들은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에 입성했다. 그들은 양국의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후베이, 광저우, 쓰촨, 윈난 등 내륙 지역까지 들어가 인삼, 포목, 소가죽 등의 장사를 했다.<sup>18</sup>

일제 강점기 상하이로 이주한 한인들은 인삼 상점을 차리거나 인삼 행상에 나섰다. 한인 상인들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으면서 수입 대체재가 없는 인삼으로 큰 재력을 쌓을 수 있었다. 또 인삼 상회는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거점 연락처로 활용됐다. 당시 상하이에서 고려인삼을 취급한 큰 규모의 한인 상회로는 해송양행, 금문공사, 원창공사, 배달공사, 삼성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 1919년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지원할 독립운동 자금을 수령하고 발급한 애국금 영수증이다.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919년 발행한 1,000원 짜리 독립공채다. 하와이의 동포들이 이 독립공채를 가장 많이 매입했다.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해송양행의 설립자 한진교는 1916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관장한 민족 교육 기관인 인성학교 설립 비용과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김규식(金奎植)의 여비를 댔다. 1920년 안창호 선생이 홍콩, 베이징 등지로 미국 의원단을 만나러갈 때 비용을 제공한 것도 이들이다. 금문공사의 김시문(金時文)은 일본 경찰에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을 돕기도 했다. 김시문은 의열단 활동으로 체포된 황옥(黃玉)의 가족을 위해 1원을 국내 <동아일보>에 보냈고, 이 사실이 신문에 소개됐다.<sup>19</sup>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폭파를 시도하다 실패해 일경의 추적을 피해 항저우로 피신하던 의열단 나창헌(羅昌憲)과 병인 의용대 대원이던 고준택(高俊澤), 김석룡(金錫龍)도 김시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금문공사를 피난처로 활용했다.<sup>20</sup> 금문공사는 인삼 판매 대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임시정부의 김구(金九)와 독립운동 진영에 제공했다.

상하이의 한인 상인들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독립 자금으로 지원했지만 이 일은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만큼 증언 이외의 문헌적 자료는 드물다.



•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양손에는 권총과 수류탄을 들고 가슴에는 한인애국단에 입단할 때 쓴 자필 선서문을 붙인 채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윤봉길 의사는 독립 자금 마련을 위해 한때 인삼 행상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 시대를 앞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흥사단, 의열단, 민족혁명당 계열 단원들은 인삼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 자금을 조달했다. 인삼 행상은 수익이 컸으며 의심받지 않고 이동이 용이해 독립 자금 조달과 정보 수집에 유리했다. 윤봉길(尹奉吉) 의사가 한때 인삼 행상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는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의 일본 국왕 생일 천장절 기념식 행사에서 폭탄을 던져 중국 주둔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를 비롯한 일본 요인들을 사망케 했다.

김산(장지략)의 생애를 담은 님 웨일즈(Nym Wales)의 저서 《아리랑》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의열단원으로 광저우코뎬에 참석 후 쫓기는 몸이 된 김산. 그를 체포 위기에서 구해주고 말라리아 치료비를 대준 이는 홍콩의 인삼 장수 박 씨였다.

1919년 11월 17일 자 <상하이 일일신문>은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인삼 행상으로 변장해 항일 선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국어에 능통하여 체포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인삼 상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눈치챈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고려인삼의 중국 수출이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국에 보고할 정도였다.<sup>21</sup> 일제 치하 한인 상인들은 인삼 판매로 올린 막대한 이익을 조국 독립에 아낌없이 바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셈이다. 하지만 재력가였던 상하이의 한인 상인 상당수는 일본 경찰의 감시와 중국 공산당의 재산 몰수로 말년을 궁핍하게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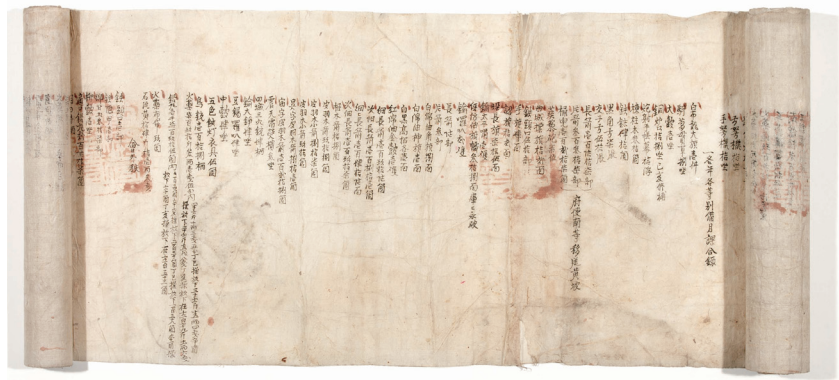
## 인삼을 키워 군사력을 키우다

현대 군사력은 군인의 수보다는 무기의 성능에 따라 좌우된다. 각국이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군비 경쟁을 멈추지 않는 까닭은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으로써 공격력을 강화하는 한편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 최대 이슈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유엔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핵무기 원료 물질인 우라늄, 플루토늄이 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재료뿐 아니라 일상에서 쓰는 평범한 소재마저 엄격히 통제한다. 2016년 초 유엔은 골프채 제조용 마레이징 강철을 북한 금수품으로 지정해 반입을 막았다. 마레이징 강철은 미사일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자재 하나하나가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인 것이다. 과거에도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견제는 상당했다. 무기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교역 물품의 반입과 반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자원이 빈약했던 고려와 조선은 인삼을 적극 활용했다.

## 인삼으로 화살과 화약을 만든다

고려 시대에는 화살촉의 중요 재료인 수우각(물소의 뿔)을 중국에서 반입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다. 무인정권이 지배하던 12~13세기 조정은 군사력 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충헌(崔忠獻)의 뒤를 이어 집권한 최이(崔怡)는 국왕을 대신해 전권을 휘두른 실권자였다. 최이 정권은 중국 상인으로부터 수우각을 들여오려고 시도했지만 당시 중국은 주변국들이 수우각을 화살촉으로 쓰는 것을 우려해 이의 반출을 칙령으로 엄격히 금했다. 수우각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무인정권이 송나라 상인을 잘 구슬려 매입한 기록이 《고려사》 열전 최이편에 나온다. 수우각을 반입하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송상이 수우각 4두를 바치자 인삼 50근을 대금으로 주었다는 내용이다. 송상은 중국 조정이 수우각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음에도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인삼을 얻기 위해 법을 어기며 고려에 이를 납품했던 것이다.



- 조선 시대 화약이나 총을 비롯한 각종 군사 무기류의 보유 상황을 파악해 목록으로 정리한 문서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 현자총통, 불씨를 손으로 점화·발사하는 유통식화포(有筒式火砲)로 제작 시기는 명종 10년(1555년) 즈음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조선 시대 화문 팔괘 무늬 거북 모양 화약통.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시대 군사력 증강에 인삼이 이바지한 공 역시 크다. 강력한 대포가 필요했던 조선은 화약 제조에 몰두했다. 한데 화약을 만드는 세 가지 주원료 중 유황과 분탄은 조선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염초는 중국에서 들여와야 했다. 염초의 확보는 국방력 증강의 중요한 열쇠였다. 이 일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 역시 역관과 상인들이다.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에서 인삼을 팔아 거둔 수익으로 화약 제조의 필수 재료인 염초를 구입해 들여온 것이다.

염초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인 세종은 국내에서 염초 제조용 흙을 구하면서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인삼 교역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염초를 반입한 것은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과감한 북벌론 뒤에도 인삼이 있다. 효종은 북벌을 위해 꾸준히 병력을 모으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군비 증강에 힘을 쏟았다. 결정적으로 인삼 교역에서 얻은 염초로 어느 정도 화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북벌론도 구상할 수 있었다.

## 대원군도 장길산도 인삼으로 군비 증강

고종 3년(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공한 병인양요로 큰 충격을 먹은 조정은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강화도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별효사와 별무사 800명을 주둔시키고, 그 비용을 충당하고자 수삼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수삼 1근당 세금은 2냥씩이었다.<sup>22</sup> 홍삼도 당초보다 7,000근 늘린 총 1만 5,000근을 제조해 강화도에 1만 근, 개성에 3,000근, 용진에 2,000근씩 나누어준 기록이 《고종실록(高宗實錄)》에 나온다. 이는 강화도 일대의 군사력을



- 강화산성, 병인양요·신미양요 등 조선 후기 외세 침략의 현장으로, 강화도 일대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삼세를 높였다. 출처 : 문화재청



-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쇄국을 강화하기 위해 세운 척화비. 출처 : 박물관포털 e뮤지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887년에는 무기 구매를 위해 텐진과 상하이로 홍삼 1만 5,000근을 수출하기도 했다.<sup>23</sup>

병인양요가 일어난 2년 후인 1868년 당시 실권자였던 대원군(大院君)은 군비 증강에 경각심을 높이는 충격적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조선으로부터 수교를 거절당하자 충남 덕산에 있는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南延君)의 묘를 도굴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원군은 수도권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증강하던 군사력을 지방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각 지역의 병력 수를 늘리는데 재정이 필요했던 조정은 당시 큰 수입원이던 인삼세로 이를 보충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기 1만 정, 탄환 3,000만 발과 기타 군 장비를 구입했다. 무기 구입비는 156만 원. 재정이 취약한 대한제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홍삼의 대금으로 이를 갚기로 계약했다. 무기 운반 회사인 미쓰이에 지불해야 할 수송 대금도 인삼 수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신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미쓰이는 인삼 위탁 판매권을 확보했다.<sup>24</sup> 이렇듯 홍삼은 국방비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인삼으로부터 나오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은 조정의 군대는 물론이고 반란군도 마찬가지였다. 의적이라고 일컬어지고 도적이라고도 불리는 조선 숙종 때 장길산(張吉山)은 인삼 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군자금으로 사용했다.<sup>25</sup> 장길산이 확보하던 지역은 황해도 구월산이지만 함경도, 평안도까지 그 세가 미처 강계 지방에서 나오는 인삼은 장길산 일당의 큰 수입원이 됐다.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가 백두산 인삼에서 얻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건국을 했듯이 든든한 자원인 인삼을 보유한 장길산 군대는 조정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을 키워가며 맹위를 떨쳤다. 장길산 부대의 주축 중 또 하나는 마상으로 이들이 튼튼한 말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도 군사력에 큰 힘이 됐다. 장길산은 끝내 잡히지 않았는데 관군의 추적을 피해 산을 잘 아는 심마니들의 보호 아래 깊은 산속으로 잠적한 것으로 추측된다.

## 천금 같은 인삼을 왜 불태웠을까?

영국에서 세계에 두 장밖에 없는 우표가 경매에 나왔다. 치열한 경쟁 끝에 한 상인에게 500만 달러에 낙찰됐다. 이 상인은 모든 경매 참가자 앞에서 낙찰받은 우표 한 장을 높이 쳐들어 보여주고 곧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고가의 우표를 불사른 행위로 경매장은 난리가 났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 아니라 낙찰자의 거만한 행동에 비난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러더니 작은 함을 열어 남은 한 장의 우표를 꺼내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500만 달러나 되는 우표가 이제 세상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우표의 값은 얼마이겠습니까?”<sup>26</sup>

이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한 극단적 행동이 물건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도 한다. 감자를 위해 군대를 동원한 프랑스 정부의 기지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질 좋은 감자 품종을 수입했지만 농민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대적인 홍보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한 홍보 담당자가 나섰



다. 그는 홍보 활동 대신 감자 시험 재배장에 완전 무장을 한 병사를 배치해 밤낮으로 삼엄한 경비를 서게 했다. 그러자 '얼마나 귀한 감자이기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감자밭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농민들 사이에 퍼졌고, 결국은 몰래 들어가 감자를 훔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감자를 재배한 농민들은 한철이 지나자 그 우수성을 알게 됐고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다. 이 덕분에 신품종 감자는 삼시간에 프랑스 전역에 보급됐다.<sup>27</sup>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반해야 할 때도 있다. 늘 귀한 몸으로 대접받았던 인삼은 어땠을까. 인삼이 오랜 시간 최고의 가치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

## 임상옥, 베이징에서 홍삼을 태우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뿌리, 인삼은 때때로 죽음으로써 생명을 이어갔다. 조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인삼인들은 위기가 오면 인삼을 불태워 그 가치를 지켰다. 금과 같은 인삼을 불태우는 일은 어지간한 결단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삼을 불태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삼이 천해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명품의 경우 재고가 많이 쌓인다고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각해 희소성을 유지하는 방식처럼, 둘째는 인삼을 재배하던 삼포민에 대한 관의 부당한 횡포와 이들을 옥죄기 위해 부과한 과중한 세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인삼을 태웠다. 삼업인들의 결기와 자존심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인삼을 통해 거상으로 거듭난 임상옥의 초상. 이는 KGC인삼공사가 미술해부학 전문가와 한국화가 등 전문가의 고증과 지문을 바탕으로 모습을 추정해 제작한 초상화다.

조선 시대 거상 가포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상도》를 보면 혈값으로 홍삼을 사려고 담합을 한 중국 상인과 맞서는 이야기가 나온다. 베이징의 상인들은 임상옥의 홍삼 독점에 불만을 품고 홍삼 불매 운동을 벌였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중국 상인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 사행이 끝나 귀국할 날이 차츰 다가오자 임상옥은 홍삼을 혈값

으로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베이징 상인들은 이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임상옥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기상천외한 사건을 벌였다. 가지고 간 홍삼 더미를 묵었던 숙소의 마당에 모두 쌓아놓고 불태우기 시작한 것이다. 홍삼이 불탄다는 소식을 들은 베이징 상인들은 부랴부랴 달려 나와 홍삼을 불더미에서 끄집어내며 임상옥에게 멈출 것을 통사정했다. 홍삼값은 10배나 올랐고, 그는 큰 이윤을 남겼다. 임상옥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거상의 길로 들어섰다.

## 삼업인의 기개가 빛난 저항의 상징

임상옥처럼 전략적으로 홍삼을 불태우는 일은 자주 있었다. 1898년은 황실의 재정 강화를 위해 홍삼 사업을 내장원이 관장하려던 시기로 인삼업 종사자들

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일본인들의 횡포까지 더해 지자 인삼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898년 3월 초 농민들은 각자 소유한 인삼 종자를 개성의 남대문 밖에 모아 길가에 뿌리거나 불태워버렸다. 또 앞으로 인삼 농사를 짓는 자는 장작불에 화장하기로 결의까지 했다. 이처럼 인삼 상인, 농민들은 인삼을 지키기 위해 극한의 수단으로 자식같이 귀한 인삼을 불에 태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밭주인 몰래 인삼을 채취해 빼앗거나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았다. 이를 개성부윤에게 여러 차례 청원을 해도 관이 막지 못하자 불만이 팽배했다. 오히려 관은 개성 삼포주들이 일본인과 짜고 인삼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해 벌금을 물리거나 가두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한 항의가 불을 부른 것이다.

삼업인들의 기질을 보여주는 사건이 같은 해 또 일어났다. 1898년 8월 조정은 이용익(李容翊)을 내장사장으로 임명했다. 내장사는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삼, 광업 등을 관장했다. 이용익은 왕의 특지를 가지고 개성에 내려가 홍삼 제조를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인삼 상인들이 크게 저항했다. 삼포인들은 삼업을 포기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종자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왕의 명을 받고 내려간 이용익이 격앙된 주민들의 습격을 피해 달아날 정도였다. 결국 그해 9월 이용익은 서울에서 군대를 불러 이들의 보호 아래 홍삼을 제조했다. 이듬해 가을에는 내장원이 홍삼 전매에 나서 과세를 실시하자 개성 지역의 인삼 농민들이 재배를 포기하고 인삼 종자를 불태웠다. 삼업인들의 기가 얼마나 켜졌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들이다.

## 삼중 과세에 대한 불만이 타오르다

삼업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인삼을 불태운 것은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삼 관련 세수에 불만이 컸다. 인삼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삼이 거래될 때 내야 하는 수삼세와 인삼을 재배해 4년근 이상이 됐을 때 삼포에 매기는 삼포세, 홍삼 매매에 따른 홍삼세까지 하나의 작물에 여러 가지 세금이 붙었다. 이 중 인삼 농민들에게 원성을 산 것은 삼포세였다.

작물을 수확한 후 내는 수삼세와 홍삼세가 있는데 밭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였다. 밭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타 작물과의 형평에도 어긋났다. 조정에서는 인삼에서 나오는 세수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들여 그런 처사를 한 것이다. 농민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특히 조정이 홍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홍삼용 수삼의 납품가는 낮게 책정해 농사 수익이 예전보다 낮아진 상태였다.

내장원이 삼포세를 강력하게 징수하려 하자 삼포민들은 집단적인 저항을 했다. 1900년 1월 군수가 삼포세를 내지 않은 삼포주를 구속한 것을 계기로 수백 명의 삼포민이 군청으로 몰려가 죄수를 탈옥시키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하나의 땅에서 세금을 두 번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세 징수 과정에서 관원들의 부정도 많았다. 삼포주에게 술과 식사를 강요하고 삼포의 칸수를 멋대로 늘려 세금을 높이 매기기도 했다. 4년근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불량한 인삼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갖은 횡포를 부렸다. 삼포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삼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1907년 삼세가 혁파됐다.



- 1899년 궁내부 내장원이 왕실의 재정 확충을 위해 설립한 인삼전매회사인 삼정사의 사규를 기록한 문서.



- 삼포세 징수로 삼업인과 잦은 마찰을 일으킨 구한말 궁내부 내장원 전경.

## 수급 조절로 지킨 고려인삼의 명성

반대로 인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삼을 태운 이야기도 전해진다. 1902년부터 1903년까지 서울 주재 이탈리아 총영사를 지낸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가 경험한 한국의 실상을 담은 《꼬레아 꼬레아니(Corea e Coreani)》에도 홍삼을 불태운 이야기가 나온다.

몇 년 전, 인삼 작황이 특별히 좋을 때가 있었다. 정부는 이 일이 중국의 구매자들에게 알려져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관보로 칙령을 공포했다. 인삼의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안 황제는 모월 모시 노제섬 봉우리에 서 인삼 70상자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지시한 그날 그 시각에 제물포의 주민들은 성 위에서 70상자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인삼을 갖지 못했다.

이렇듯 정부가 나서서 인삼을 불태워 수급을 조절하기도 했다. 1881년 김윤식(金允植)이 조선 최초의 외교관인 영선사로 중국 톈진에 주재하게 됐을 때 리홍장(李鴻章)을 만나 나눈 담화에도 조선 시대 인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엿보인다. 리홍장이 김윤식에게 “조선에는 인삼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국제 상품으로서 매우 가격이 높은 것인데 어찌하여 많이 심지 아니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윤식은 “많이 심으면 값이 천하게 되오”라고 답했다.

파종 단계에서부터 생산량을 조절해 인삼값을 지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로 하면 반드시 산다(必生即死必死即生)’는 정신으로 고려인삼의 명성을 지켜왔다.

## 인삼에서 시작된 독도는 우리 땅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역사적 근거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속 안용복(安龍福)과 관련한 기록이다. 《동국문헌비고》 ‘여지(輿地志)’에 나오는 ‘1695년 안용복의 독도 점유와 왜인 추방’ 기록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에 뼈기를 박는다. 여기에는 안용복이 1695년에 울릉도에 들어온 왜인들을 쫓으면서 송도(당시 독도)가 곧 우산도(당시 울릉도)이며, 우리 영역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동국문헌비고》는 우리나라 고대부터 내려오는 모든 문물제도를 광범위하게 기록한 백과사전이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 편찬이 울릉도에서 채취하는 인삼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 울릉도 인삼, 영토 분쟁의 방패

영조 45년(1769년) 10월 14일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은 상인들이 울릉도에서 인삼을 몰래 채취하니 왜인들이 알면 외교 분쟁이 일어날까 걱정된다고 영조에게 보고했다. 당시 국내 인삼값이 엄청 뛰자 울릉도에서도 인삼이 생산되는 것을 안 장사꾼들이 몰래 캐 나오곤 했던 것이다. 1769년 11월에는 울릉도 인삼을 이웃 고을로 가져가다 적발되고, 12월 9일엔 강원감사 홍명한(洪名漢)이 울릉도 인삼을 사적으로 밀매한다는 혐의<sup>28</sup>로 교체되는 등 울릉도 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에 홍봉한은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sup>29</sup>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울릉도에서 인삼이 산출되는데 장사치들이 몰래 들어가서 캔다고 합니다. 만일 왜인들이 알게 되면 뽕나무를 두고 싸우다가 모두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헌이 부족하여 지금 울릉도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고증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널리 모아서 이로써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들과 화친하는 문건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간청하였다. 왕이 허락하였다.

—《영조실록(英祖實錄)》 권113, 영조 45년

영조는 홍봉한의 건의를 받아들여 즉시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고 현지의 지형과 물산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지리지인 《강역지(疆域誌)》 편찬이 시작됐으며, 이는 《동국문헌비고》라는 더 큰 사업으로 발전했다.<sup>30</sup> 울릉도에서 인삼이 나는 것을 왜인들이 알면 울릉도를 놓고 영토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해 울릉도 특산물을 문서로 정리, 외교적 분쟁에 대비한 것이다.



-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조선 영조 때(1770년 추정) 정상기가 제작한 42만분의 1 축척의 지도로 축척과 방위가 매우 정확하며, 독도가 표시돼 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 인삼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다

당시 일본에서는 고려인삼의 인기가 엄청 높았다. 그래서 조선과 단교되더라도 인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도에 인삼이 산출되는 것을 알면 왜인들이 몰려와 마구 채취할 것이고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것이 뻔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백과전서 편찬에 힘을 쏟은 조정은 이후 조선의 영토를 지키고자 울릉도 지역의 실정을 조사하고 몰래 들어가 사는 일본인이 있는지 수색해 토벌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때 중요 임무 중 하나가 인삼 찾기였다. 《정조실록(正祖實錄)》(1799년 3월)에 채삼군을 파견하는 기록이 나온다.<sup>31</sup>

1795년부터는 울릉도 내의 인삼 채취를 금하던 정책을 바꾸어 울릉도 토산물로 인삼을 진상하게 했다. 육지에서 삼이 귀해진 까닭도 있지만 울릉도에 대한 확실한 영토적 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공식적으로 공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먼 길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울릉도 채삼은 심마니들에게는 큰 고역이었다. 주로 산에서만 살던 심마니들에게 풍량이 거센 뱃길에서 겪을 뱃멀미는 큰 공포였고, 울릉도에 들어가 인삼을 캐는 일은 사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 때문에 입도를 해야 하는 심마니 선발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병폐가 생겼다. 인삼 산출 지역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만 한 것은 아니다. 청나라의 국경이 인삼이 산출되는 요동 백두산을 경계로 그어지고 이를 지키기 위해 주변국과 끊임없는 국경 분쟁을 겪은 것 또한 인삼이 한 나라의 영토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1세기에 와서도 자원은 영토 분쟁의 씨앗이다. 금은보배와 같았던 인삼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터. 인삼은 조선의 찬란한 문



- 평안도 지역을 그린 군사 지도.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 지역은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장악하면서 군사적 위기가 높아졌던 곳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지도가 만들어졌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물을 전승시켜준 《동국문헌비고》의 탄생 주역이며, 안용복의 독도 이야기를 생생히 남김으로써 독도의 파수꾼 역할도 했다. 인삼은 조선의 국토와 문화를 수호한 신초인 것이다.

# 조선 경제의 심지, 심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2015년도 총 수출액 5,329억 달러 중 반도체는 약 642억 달러로 12.6%를 차지한다. 자동차, 플랜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다. 반도체가 한국의 대표적 상품이듯 물산이 풍부하지 않았던 조선 시대의 대외 교역에서 인삼은 한국의 대표 상품이었다. 높은 고부가가치로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한 점, 무게나 부피가 작으면서 가격이 꽤 높은 점도 반도체와 유사하다. 주로 산삼이 거래됐던 조선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최상품 인삼은 금처럼 비싸게 판매된다.

## 최고의 삼, 금과 어깨를 겨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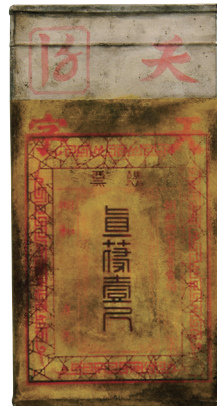
2016년 시세로 금 한 돈(3.75g)은 19만 5,000원, 은 한 돈은 2,719원 정도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삼 가운데 최상품인 홍삼 '천삼 10지 600g'의 소비자가는 620만





- 1928년 홍삼 제조 규정이 발효되면서 고려홍삼임을 증명하는 빙표를 포장 케이스에 부착했다.

원으로 1g당 1만 300원 정도다. 이를 귀금속에 주로 쓰는 단위인 돈으로 환산하면 인삼 1돈에 3만 9,000원이 된다. 2016년 시세로 비교하면 ‘은 1돈(2719원) < 인삼 1돈(3만 9000원) < 금 1돈(19만 5000원)’으로 최상급 인삼은 은의 약 14배, 금의 5분의 1 정도 가치다. 이를 산삼으로 적용하면 금과 같은 가치라는 기록들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금 시세가 강세라 이 정도지만 10년 전만 해도 최상급 홍삼은 은의 23배, 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보다 가치가 더 높았다. 300~400년 전 조선 시대 인삼(산삼) 시세는 시기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했다. 자연에서 채취하는 야생삼이기 때문에 산출량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를 했던 것이다. 1601년의 인삼 1근 가격은 무명 16필이었다는 기록이 《선조실록(宣祖實錄)》에 남아 있다. 당시 표범 가죽인 표피 1장이 무명 70필로, 인삼값은 표범 가죽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 경성지점에 있던 고려삼업사의 인삼차 등을 소개한 광고지.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 1900년대 처음으로 사용한 수출용 포장.

18세기 중반의 쌀값으로 환산하면 영조 13년(1737년)에 공물을 인삼 대신 쌀로 바치는 공가가 인삼 1냥(37.5g)당 쌀 2석 10두였다. 2016년 5월 현재 중품 쌀 1가마(80kg), 즉 1석의 소매가격은 16만 원이다. 조선 시대의 쌀 1석은 현재 1석의 0.6배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해도 그 가치는 매우 높았다. 조선 시대 외국인들이 조선의 풍물을 전한 저술을 보면 인삼을 금과 맞바꾸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과장이 아닌 사실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인삼은 산삼을 의미한다.

## 시대를 뛰어넘는 수출 효자 상품

일본으로의 인삼 수출은 17, 18세기 들어 활발히 이루어졌다. 1609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후 매년 40여 척의 무역선이 은, 동, 납, 유황 등을 싣고 동래





• 최첨단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재의 홍삼 제품. 자료 제공 : KGC인삼공사

왜관에 들어와 교역했다. 우리의 주 수출품은 인삼과 마른 해삼, 중국산 명주 실과 비단이었고, 주 수입품은 은과 동 등이었다. 초기에는 인삼 300~500근의 공무역만, 1638년 무렵에는 사무역까지 허용했다. 특히 17세기 중엽에는 일본 사람들의 인삼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일본 수출이 급증했다. 그러다 18세기 중반부터 격감했는데 이는 산삼이 희귀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본이 대량의 은 유출로 인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인삼 수요는 여전히 높았다. 일본은 중국 광둥에서 미국의 값싼 삼을 수입하고, 조선에서 인삼 종자를 유입해 국내 생산에 착수했다. 이로써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전반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국제 결제 수단이었던 인삼과 은의 감소로 동아시아 3국의 무역도 함께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18세기 인삼 수출은 청국으로 가는 사행 경비 마련을 위해 허용했는데, 역관 1인당 인삼 80근의 휴대가 가능했다. 1797년부터는 1인당 포삼(포장한 홍삼) 120근의 수출을 허용했으며 1811년부터 밀무역을 막고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 포삼 수출 허용량을 늘렸다. 1851년에는 4만 근까지 급증했다가 1853년부터 2만 근 내외 수준으로 변동했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인삼을 수출했으니 그 교역 규모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외국 삼이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다들 우리 삼의 가치는 뛰어넘지 못해 여전히 인삼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1908년 당시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1887년 한국 홍삼의 가치는 미국삼의 2배, 일본삼의 4배에 달했고, 1892년에는 미국삼의 5배, 만주 인삼의 2.5배, 일본삼의 4배, 청국 인삼의 10배에 이르렀다.<sup>32</sup> 이처럼 귀하게 여겨진 조선 시대 인삼의 가치는 금값에 맞먹을 정도였으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의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했다.

## 인삼은 어디서 어떻게 자랄까?

**Q** 인삼은 한 번 재배한 땅에서는 다시 못 자라는 게 사실인가요?

**A** 인삼은 땅을 가리는 성질 때문에 연작을 하면 제대로 크지 못한다. 대표적인 '기지(忌地)' 식물로 한 번 인삼을 심은 땅에는 10년이 지나도 다시 재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장기간 기지가 필요한 이유는 토양 속의 병원균 때문이다. 인삼은 한 번 심으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4~6년 성장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인삼뿌리에 치명적인 병원균이 증식해 토양 속에 잠복한다. 여기에 다시 인삼을 재배하면 잠복한 병원균 때문에 뿌리썩음병이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보통은 토양 내 병원균의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처녀지를 찾아 인삼밭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배기술의 발전과 병원균 방제법의 개발 등으로 땅을 가리는 기간이 점차 줄고 있다.

**Q** 인삼밭에는 왜 까만 가림막이 있는 건가요?

**A** 인삼은 땅뿐 아니라 재배 환경에도 민감하다. 반음지성 식물이라 해가림 밑에서 재배해야 하고, 습도 또한 너무 마른 것과 습한 것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 조절을 잘해야 한다. 생육 초기의 5~6월에는 건조 피해, 7~8월 장마철에는 과습 피해를 받기 쉽다. 이러한 까다로움 때문에 이식 후 수확기까지 3~5년 동안 재배 조건을 잘 맞춰야 한다. 기르는 사람의 정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다.



**Q** **체너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색 경작지가 있나요?**

**A** 국토 면적이 좁은 한국은 초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재배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은 한국전쟁 이후 사람의 발길이 끊긴 북방 한계선 아래 민통선 안까지 들어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삼 초작지가 많고 전작물이 없어 땅의 유기질이 풍부하며 기후도 맞아 재배지로 적합하다. 최근 인삼 연작이 가능한 농법 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어 연작이 대중화될 날도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인삼의 생산량이 유독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인삼은 다른 작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고 병에도 약해 생산량이 극히 적다. 그렇다고 비료를 많이 줄 수도 없다. 오히려 생리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귀하게 키우고 얻어지는 만큼 인삼 한 뿌리의 가치는 높다.



**Q 고려인삼은 무엇 때문에 유명한가요?**

**A** 대한민국이 인삼의 종주국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인삼은 2,000여 년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이었다. 한국은 대륙에서 뻗어 나온 반도 국가로 기후가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아 사계절이 뚜렷하고, 인삼 재배에 가장 유리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질 또한 인삼 재배에 적합하다. 지리적으로 인삼 재배에 가장 적합한 기후와 토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삼 경작 기술과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인삼이 세계 최고의 품질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Q 미국삼, 시베리아삼, 브라질삼은 다른 종류인가요?**

**A** 고려인삼은 학명이 *Panax ginseng*이다. 미국과 캐나다에 인삼과 비슷한 미국삼 즉 서양삼 또는 화기삼(*Panax quinquefolius*)이라는 식물이 있다. 고려인삼과 같은 *Panax*속 식물이지만 인삼과는 다른 종으로 해외에서 인삼을 대신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삼을 인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시베리아삼(*Siberian Ginseng*)은 인삼과는 거리가 먼 오갈피나무의 뿌리다. 브라질삼, 태국삼 등도 모두 인삼과 거리가 먼 식물이다. 인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그 명성을 차용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 03

## 세계와 만남 인삼

- 대항해 시대, 유럽으로 입성한 고려인삼
- 루이 14세에게 진상한 인삼
- 유럽 근대과학은 왜 인삼에 몰두했을까?
-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인삼 광풍
- 근대 서구 의사들, 인삼을 처방하다
- 북미 인삼농장, 세를 확장하다





## 대항해 시대, 유럽으로 입성한 고려인삼

인삼은 언제 처음 서양에 알려졌을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600년대 초반으로 추측된다. 유럽의 해외 팽창, 즉 대항해 시대가 가져온 결과물로 말이다. 1498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이끄는 포르투갈 선단이 인도 서해안의 캘리컷(Calicut)에 상륙한 이래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인도양과 더 멀리는 동아시아의 바다로까지 진출해 약탈과 탐험, 모험을 동반한 거대한 해상 무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갔다. 이들이 원한 것은 무엇보다도 후추와 같이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동양의 향료였다.

엄청난 이익만큼이나 커다란 위험이 따르던 이 장거리 무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국 상인들은 엘리자베스 1세의 특허장을 받아 1600년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를 세웠다. 그러자 이미 여러 개의 회사가 동인도 무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던 네덜란드에서도 1602년 6개의 회사가 합병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를 세웠다. 그 후로도 1616년에 덴마크 동인도회사가, 1664년에는 루이 14세의 인가를 얻어 프랑스 동인도회사가 정식으로 발족했고, 스

코틀랜드, 독일, 스웨덴, 프로이센 등에서도 유사한 회사가 문을 열었다. 이 중 당시 동인도 무역의 대표 주자는 영국과 네덜란드였다. 유럽 역사에 인삼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 역시 영국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최초 기록은 인삼을 동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 찾고 있다.

### 희망봉에서 인삼 찾기?

1611년 영국 동인도회사는 피터(Peter)라는 직원에게 희망봉에서 닌진(Ningine)이라는 뿌리를 찾아오라고 지시를 내렸다.<sup>33</sup> Ninzin, Ningine, Ninsi 등은 17~18세기에 인삼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었다. 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카나(Kanna)라고 부르던 이 뿌리는 오늘날 인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었다.<sup>34</sup> 카나는 남아프리카에서도 기운을 북돋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터라 부족 내에서도 상류층만 사용할 수 있는 약초였다. 희망봉에 도착한 피터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뿌리를 구해 오라는 임무를 받은 네덜란드 상선 두 척을 만났다. 결국 두 나라의 선원들은 이 신기한 뿌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희망봉의 항구에는 이 뿌리를 유럽 선원에게 팔려는 원주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인도회사 직원들은 그것을 구리 조각과 바꾸었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 캐러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찾아보면 원주민들이 가져온 것과는 사뭇 달리 작고 덜 여문 것이라 실망했다고 한다. 이런



• 인삼으로 착각했던 아프리카 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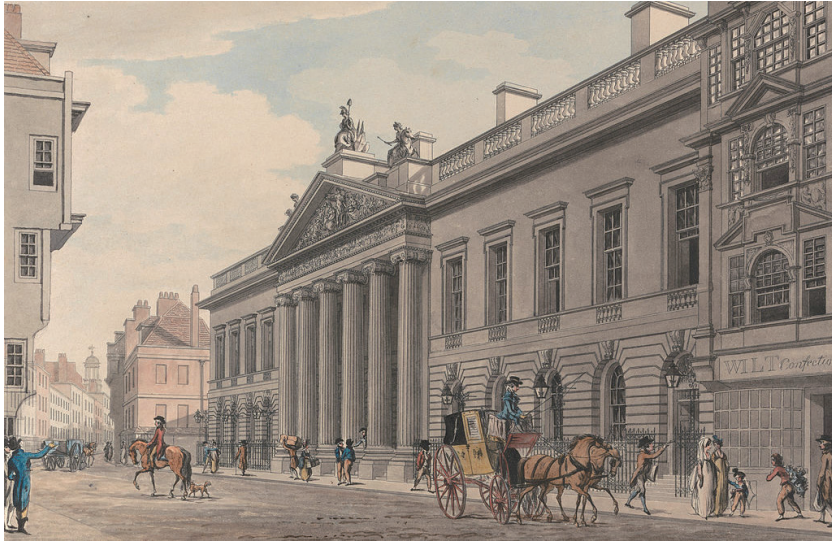


• 아프리카 희망봉 고지도.

기록은 당시 동인도회사가 이 뿌리를 얻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정황을 말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질 좋은 인삼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고급 인삼의 대명사로 등장한 것이 고려인삼이다.

### 드디어 영국 땅을 밟은 고려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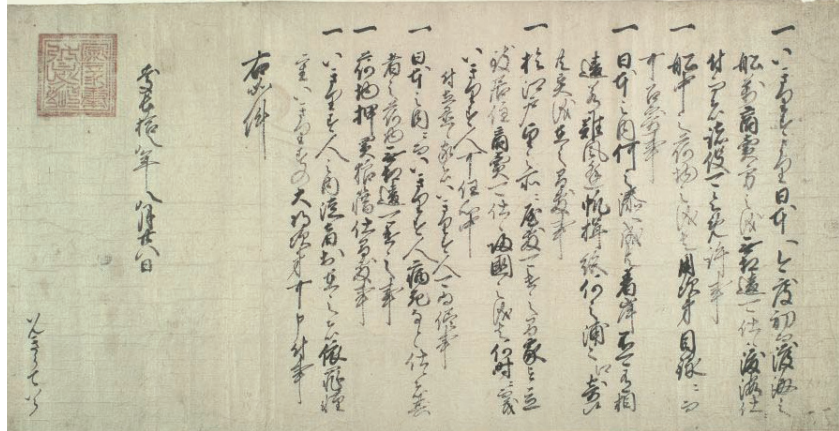
1617년 일본 히라도(平戸)에 주재하던 동인도회사 관리 리처드 콕스(Richard Cocks)는 런던의 본사에 작은 꾸러미와 함께 중요한 서한을 보냈다. 히라도는 1550년 일본 최초로 유럽 국가와 무역을 개시한 항구 도시로, 1636년 나가사키가 부상



• 영국의 동인도회사 전경.

하기 전까지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이었다. 그곳에서 콕스는 멀리 희망봉에서 보내온 인삼(카나)을 받았다. 그런데 그 뿌리가 너무 말라서 아무런 성분도 남아 있지 않은 까닭에 일본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난감해진 콕스는 런던의 동인도회사 본부에 ‘한국에서 온 매우 좋다는 인삼 뿌리와 함께 보내니 비교해 달라’는 주문을 넣는다. 인삼이 앞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상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콕스는 은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인삼이 일본에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황제가 쓰시마 번주에게 한국과 교역할 독점권을 주었다는 말도 덧붙여 본부에 전했다. 당시 번주는 인삼 뿌리만으로도 일본 황제에게 바치는 조공을 대신할 수 있었다.<sup>35</sup> 동인도회사의 이 공식 서한은 동아시아의 인삼, 특히 고려인삼이 영국 땅에 들어갔음을 말해주는 최초의 기록이다.





• 일본과 동인도회사의 교역을 보여주는 문서. 도쿠가와 이에아스의 직인이 찍혀 있다.

## 영국 동인도회사 알짜 교역품

이후 인삼은 영국 동인도회사의 교역품 목록에서 사무역(Private Trade) 품목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사무역은 배의 선장이나 회사의 관리가 개인적으로 일정량의 물건을 배에 실어 거래할 수 있는 특혜를 일컫는다. 보석, 사향, 용연향과 같이 매우 귀하고 값비싸며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인삼이 포함된 것이다. 동인도회사가 인삼을 사무역 품목으로 분류한 이유는 많은 양을 거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였다. 워낙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을 거래할 경우 가격이 하락할 우려도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구한 인삼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무역 거점을 돌며 행하던 현지 무역에서 귀중한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어떤 상인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유럽에 들여오기도 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인삼이 “너무 귀해서 파운드당 25플로린에 팔렸다”고

도 한다.<sup>36</sup> 영국에서 인삼은 고관대작들 사이에서 귀한 선물로 쓰였다.

18세기 후반 미국이 자기 땅에서 나는 인삼을 중국에 직접 수출하기 전까지 인삼은 특히 영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 중요한 무역품이었다. 영국 의회에서는 인삼이 동인도회사에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고 언제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며 품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sup>37</sup> 사실 영국인들은 인삼 무역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 최상급만 선별해 적은 양을 높은 값에 사고팔았던 것이다. 동서를 잇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인삼은 귀히 여겨져 대접받는 세계적 상품이었다.



## 루이 14세에게 진상한 인삼

1686년 9월 1일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는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 태양왕이라 불린 루이 14세가 시암(Siam, 태국)의 외교사절단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1664년에야 동인도회사를 창립한 프랑스는 뒤늦게 뛰어든 해외 무역에서 경쟁국 네덜란드의 방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동양에 교두보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던 프랑스는 중국, 인도와 더불어 동양의 강국으로 알려진 시암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외세에 시달리던 시암의 국왕 프라 나라이(Phra Narai) 또한 유럽 국가 가운데 우방을 찾고자 했고,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프랑스였다. 이런 두 나라의 외교에서 인삼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낸다.

## 쿨리에서 나는 고려인삼

시암은 1681년 최초의 사절단을 프랑스에 보냈고 1684년 두 번째 사절단을 파견했다. 그들을 성대하게 환영한 루이 14세는 곧 그에 대한 보답으로 1685년 시암에 외교단을 파견했다. 이 외교단은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사절로서의 성격도 짙어 종교인과 과학자가 대거 포함됐다. 그들은 아시아의 문물과 산물을 자세히 조사해 본국에 상세히 보고했다. 이때 프랑스 사절단은 인삼을 처음 직접 접했는데 특히 프랑수아 티몰레옹 드 슈아지 신부(François-Timoléon de Choisy)와 예수회 선교사 기 타샤르(Guy Tachard)는 자신들이 본 인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본국에 보냈다.

드 슈아지는 인삼이 중국의 운람수슈안(Hounlam-sout-chouan)과 쿨리(Couli)에서 자라는 뿌리식물이라면서, 이 지역 말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sup>38</sup> 프랑스식으로 표기한 ‘운람수슈안’은 그 발음으로 미루어 윈난[Yúnnán]과 스촨[Sichuán]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남부의 윈난 성, 쓰촨 성, 광시 성에서 재배하는 삼을 삼칠삼(*Panax notoginseng*)이라 하는데, 이는 고려인삼(*Panax ginseng*)과는 별개의 종으로 중국 남부뿐만 아니라 인도와 베트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쿨리’에서 나는 인삼은 유명한 고려인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서구의 기록에서 Caule, Cauli, Caoli, Corai, Cory, Core 등으로 표기되거나 발음됐고, 조선 시대에도 유럽에서 여전히 옛 명칭인 고려로 불리곤 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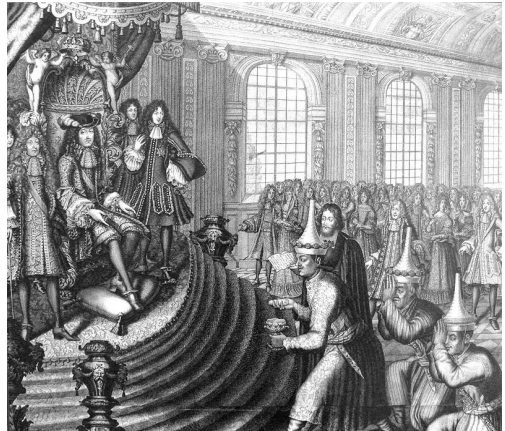
## 외교를 돈독히 다진 특급 선물

1686년 새로운 시암 사절단이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했다. 오랜 시간 말을 탄 부작용으로 심각한 치루를 앓고 있던 루이 14세는 염증과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시암의 사절단에게 최고의 환영연을 베풀었다. 거울의 방에는 은으로 만든 가구들이 배치됐고 왕은 자신의 거처와 보물실, 왕의 정원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1,500명이나 되는 고관대작이 참석한 이 환영 행사에서 인삼의 역사에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로 남은 일이 벌어졌다. 시암의 대사가 루이 14세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인삼을 진상한 것이다. 기록에는 인삼이 ‘잔캄(Jancam)’으로 표기돼 있는데, 선물 꾸러미에는 인삼과 더불어 ‘차를 우려내고 인삼을 익히기 위해 물을 데우는데’ 은주전자 하나와 중국의 다기도 들어 있었다.<sup>40</sup>

바로 다음 해인 1687년 루이 14세는 교황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선교권을 인



• 태양왕 루이 14세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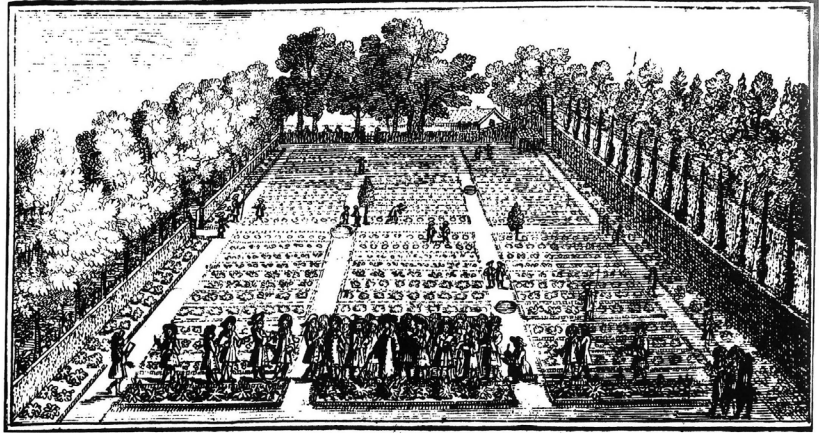
• 시암 대사가 루이 14세를 만나는 모습.

정반아 5명의 예수회 신부를 청나라에 파견했다. 이들은 강희제(康熙帝)의 궁정에서 천문학, 수학, 물리학, 지리학, 동물학, 식물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으며, 특히 식물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 이들의 연구에서 인삼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특히 루이 다니엘 르 콩트(Louis Daniel Le Comte)는 인삼의 외형적 특징과 복용법을 소개하면서 인삼이야말로 중국이 자랑하는 탁월한 강심제이자 만병통치약이라고 보고했다. 또 다른 신부 앙투안 토마(Antoine Thomas)는 1691년 앓아누운 자신에게 강희제가 인삼을 하사해 2회 복용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 기록으로 남겼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중국에서 황제가 인삼을 하사하는 일은 신하를 총애한다는 최상의 징표였기 때문이다.

## 국왕의 어의, 인삼을 연구하다

루이 14세 시대는 국왕의 신체가 곧 국가의 신체와 동일시되던 때였다. 또한 이 시대 프랑스는 잦은 전쟁으로 군인과 백성의 건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아직 화학약품이 등장하기 전, 약이란 대부분 식물에 의존한 것이었기에 식물 연구는 국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해외 팽창에 따라 들어온 다양한 산물 가운데 약초는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파리에 ‘국왕의 정원(Jardin du Roi)’을 새롭게 조성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국왕의 어의를 비롯한 의학자, 약학자, 식물학자 등은 해외에서 가져온 식물의 종자를 이곳에 심고 열정적으로 연구했다. 중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평가받던 인삼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인삼이 위



• 프랑스가 파리에 조성한 '국왕의 정원'에서 교수 투른느푸르가 현장 실습을 하는 장면.

낙 귀하고 대단히 비싼 약초인지라 진기한 표본 정도만 들여올 수밖에 없다<sup>41</sup>며 안타까워했다. 국왕의 정원에서 식물학 교수로 봉직한 앙투안 드 쥐시외(Antoine de Jussieu)는 곧 인삼의 역사와 품질에 관한 기록을 작성했다.<sup>42</sup>

국왕의 어의 클로드 부르들랭(Claude Bourdelain)도 인삼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놀라운 효능으로 중국에서 칭송받는 인삼은 주로 동부 타타르(만주) 지방에서 자라며, 병으로 크게 쇠약해진 환자나 노인에게 힘을 북돋아준다고 주장했다.<sup>43</sup> 1718년에 간행된 《왕립과학원사(Histoire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의 '식물학(Botanique)' 장에는 그때까지 알려지거나 연구된 인삼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인삼에 대하여(Sur le Gin-Seng)'라는 논고가 실리기도 했다. 루이 14세가 실제로 인삼을 복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어의들이 인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프랑스 왕립과학원은 수십 년이 지난 후까지도 시암 사절단이 진상한 인삼의 일부를 귀중한 수집품으로 소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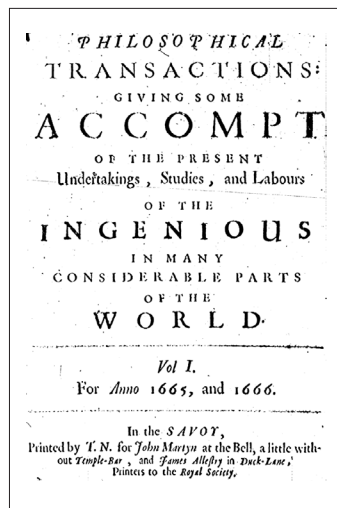
## 유럽 근대과학은 왜 인삼에 몰두했을까?

근대를 연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과학혁명이다. 그 과학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한 집단이 있었으니, 영국의 '왕립학회'와 프랑스의 '왕립과학원'이다. 1662년 국왕 찰스 2세의 인가를 받아 출발한 왕립학회는 세계 최초로 과학 학술지를 발간했는가 하면 과학언어를 만들고 동료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실험 방법을 체계화하는 등 근대과학의 기초가 될 시스템을 구축했다.

몇 년 뒤 프랑스도 재상 장바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의 주도로 왕립과학원을 설립했다. 민간인에게 개방한 영국의 왕립학회에 비해 프랑스 왕립과학원은 국왕 직속의 관료 과학자로 이루어진 중상주의 진흥 정책 기관의 성격이 강했다. 두 기관은 이렇게 성격에 차이가 있었지만 과학이 신성을 대치하게 되는 역사적 변화에 모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 왕립학회 카탈로그 속 ‘한국에서만 자라는 야생 인삼’

왕립학회는 1665년 기관지인 《철학회보(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를 창간했다. 그 창간호에 실린 글 가운데 인삼에 대한 논문이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일 것이다.<sup>44</sup> 프랑스인 멜키세덱 테브노(Melchisédech Thévenot)의 《신기한 여러 여행 이야기(Relation de divers voyages curieux)》에서 발췌, 번역한 인삼론이 그것이다. 과학자 테브노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상주의 정책에 부응해 해외 여러 곳의 자연과 자원, 문물을 소개하는 학술 동아리를 이끌고 있었다. 이 학술 동아리는 동물학, 식물학, 지리학, 항해술, 의학 등 실용적이고도 경험적인 지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비전은 곧 프랑스 왕립과학원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 인삼에 대한 논문을 실은 영국왕립학회 기관지 《철학회보(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 창간호 표지.

《철학회보》에 실린 테브노의 인삼론을 살펴보면, 우선 허브나 나무, 돌 등을 이용하는 중국 의학의 독특성에 대해 묘사한 뒤 중국인들이 숭배하다시피 하는 인삼의 효과를 소개했다. 1파운드당 은 3파운드를 지불할 정도로 귀한 이 약재는 놀라운 원기 회복제이자 강장제로 만병통치약이라 불린다는 것이었다. 국왕의 인가까지 얻어 출범한 왕립학회 기관지의 창간호에 인삼론이 실렸다는 것은 영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들이 인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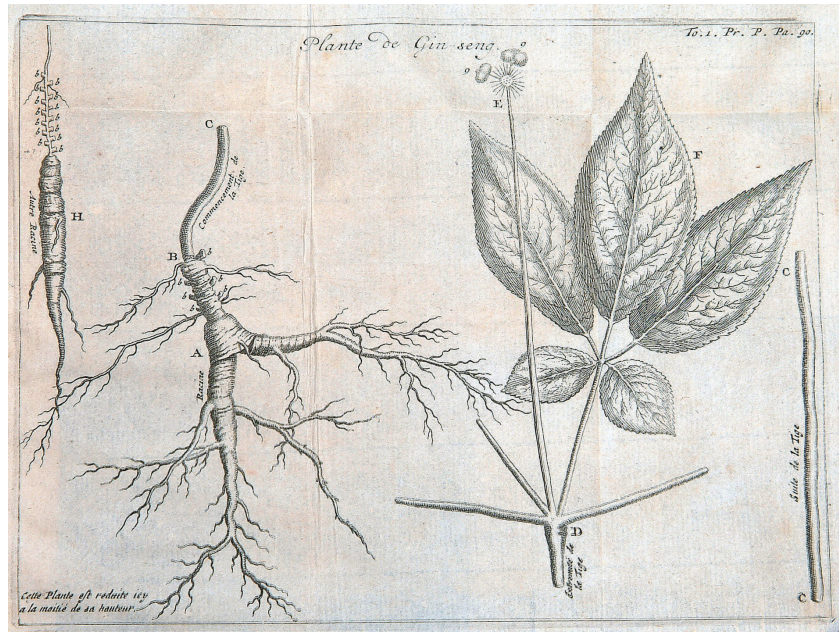
보여주는 증거다. 곧 많은 과학자가 인삼을 동아시아로부터 직접 들여와 관찰하고, 그 효능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왕의 주치의이자 이후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의 설립자 역할을 한 한스 슬론(Hans Sloane)은 특히 인삼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13개가 넘는 인삼 표본에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일본 인삼의 씨와 잎까지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누리기도 했다. 인삼이 귀한 대접을 받은 정황은 이미 1681년 <왕립학회 주요 수집품 카탈로그>에 인삼 뿌리(The root Ninzin, corruptly called Ginseng)가 들어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될 것이다.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졌는데, 야생 인삼이 한국에서만 자란다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맨드레이크나 기타 뿌리처럼 두 개의 다리로 갈라져 있음. 달콤한 맛.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쓴맛이 난다. 가장 낮은 온도에서 단맛이 있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서 쓴맛이 남. 야생으로, 어디서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자란다. 또한 톡킹, 중국,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다. 간질, 고열과 다른 만성적, 심각한 질환에 쓰인다. 단독 혹은 약재와 함께 쓰인다. 매우 값비싼 식물로 은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sup>45</sup>

## 자르투의 인삼 보고서, 유럽에 전역에 출판

테브노의 인삼론이 1650년대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립과학원에 서의 인삼 연구는 영국보다 늦은 1690년대에 이루어졌다. 1687년 중국에 입국해 강희제의 궁정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1713년 유럽에서 인삼이 알려지



- 프랑스 선교사 자르투가 본국에 보낸 편지에 그린 산삼. 이를 보고 캐나다에서 산삼 찾기가 시작된다. 출처 : 명지대 LG연합분고

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문헌이 나타났다. 프랑스 예수회 수사이던 피에르 자르투(Pierre Jartoux)가 쓴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sup>46</sup>

자르투는 1709년 강희제의 명령으로 중국 지도를 만들기 위해 만주 지방을 여행했다. 한국과의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인삼을 직접 본 이후 큰 관심이 생긴 자르투는 인삼의 외형, 자생지, 가공 방법 등에 대해 아주 자세한 묘사를 남겼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엄청난 명성을 누리는 인삼의 효과를 스스로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말에 오르기조차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했을 때 인삼을 복용한 뒤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자르투는 유럽의 의사들도 인삼

의 성분을 정확히 알아서 적절한 양을 처방한다면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르투의 문헌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돼 인삼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유럽 최초 인삼 박사 학위 논문 탄생

사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인삼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였다. 그런 상황에서 1736년 2월 9일 파리 의과대학에서는 유럽 최초로 인삼을 주제로 작성한 박사 학위 논문의 심사가 펼쳐졌다.<sup>47</sup> 튀카 오귀스탱 폴리오 드 생바스(Lucas Augustin Folliot de Saint-Vast)가 쓴 논문의 제목은 〈인삼, 병자들에게 강장제 역할을 하는가? (An infirmis à morbo viribus reparandis Gin Seng?)〉였다. 생바스는 자르투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삼을 식물학적으로 개괄한 뒤 인삼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을 비롯한 중국의 의서에 근거해 인삼이 설사, 이질, 기력 약화, 위와 창자의 통증, 실신, 마비 증세, 무기력증, 경련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약이며 쇠약해진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독보적인 효능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생바스의 논문은 인삼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지적해 매우 흥미롭다. 식도락가와 주정뱅이는 인삼을 복용해도 큰 효과가 없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발열이나 염증성 발열이 나타나거나 개 혹은 뱀에게 물렸을 경우 등에도 복용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삼은 다른 약재와 적절하게 혼합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인삼이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IV.

**MEDICAMENTORUM** vires experientia impetrans confirmat, quas à certis principijs dimanant ex analysi Chymicâ pulcherrimè, sepiùs etiam obnoxia experimentis pariter, eadem Chymicis ignis extorquet principijs plantâ edulâ, quæ fupellicij plantâ toxicâ: nec semper fapori & odori nimium crede, faporem amygdalaceum referri geminum scammonium quod fumosa virtute pollet cathartico, dum anagallâ in alimoniam edidit. Cetera inest principiorum equidilbet mixti compositæ, à quæ eurgit virtus, quæ solâ ad adulterâ, nova nâscitur proles, à rasiâ sic degente, ut ipsi prorsus contrarios genitas efficit. Mixtum itaq; quale natura edidit, exhibe, ipsius munda natura, & ubi fecundus voluque conferentem edes efficitur. Quæ non Orbis hic America nuper in Medicinâ ministravit medicamina, uti stabilium argumentum. Cortex Peruvianus nullâ pariter aut, febri intermitentem verum & nunquam laudandam latè recondit. Sima-rouba nuperit ad nos advectâ diarrhæ, dysentericæ, aliorum quorundam remediolorum, qui & ipsiusmet Ipecacuanhe virtutem eluolentis, pretiosissimum, spodiâta declarat experientia, medicamen. Num fapori aut odor, nunc analysi Chymicâ, tantæ tamque fupellicij in aliarum vegetabilium lateres indicavere virtutes i Cortex Peruvianus olois inopi faporem amaro atque hypticum exhibet. Sima-rouba nec odoris nec faporis aut tantum docet, quæ tamen utriusque virtutis, non solâ inferioris, ac fupellicij contrarias agnovit. Undenam in his Americanis vegetabilibus virtutes i nisi in ipsorum nativo contextu, venenalis fibrâ languidiores atque latentes ad totum revocant, hinc fibrarum retinuum robur, colleses lasâ redintegrando, secretiones ac principij Diaphoreticæ jurat. Sic in febribus intermitentibus, sic in diarrhæ & dysentericâ ad totum retinuum robur, colleses lasâ redintegrando, secretiones ac principij Diaphoreticæ jurat. Sic in febribus intermitentibus, sic in diarrhæ & dysentericâ ad totum retinuum robur, colleses lasâ redintegrando, secretiones ac principij Diaphoreticæ jurat.

... confirmat: quoniam, ad hunc idem textum, in apone jam constitit, tale virtus reddunt, ut retardat morte, tempus & occasio ex fupellicij ad alia admodum medicamenta, fupellicij possunt fupellicij reoperantur.

... Quid sit celebratum laudibus radicibus non veram paterem crediderit? Qui non alia, quæ in Asiaticis regionibus natura producit medicamina, innulla proferit? Qui non incolas Medicinæ leges, Melicij: habere potius ad legendi, ornatumque quam ad fupellicij utilitatem, non procollocavit? Feras, non miris quam alias plantam, arcti legibus & fupellicij Medici, fupellicij agnosce. Cortex Peruvianus, Ipecacuanha, Sima-rouba in ipsiusmet morbis, quibus experientia præcipue compertum, non tamen innoxia ad Empiricis exhibentur. Moxque quosque famam Gu Seng, qui Medicinæ principiorum rudis, tam à sua natura, fupellicij plantam temerario laudibus. Ad ipsiusmet Seng Medici scripte que ad radicem istam horatâ aut deterrere debent. \* Galidâ atque Compositâ parum pro-fusa. In febribus malignis & epidemias cum summi cautione, ac tantum remittente febre utrumque in phlogisticis, heclicis atque fupellicij, tantum camo-pepis & angus fupellicij. In hemorrhagis parç, nec nisi ubi prius cogitâ caudâ. \* In affeibus frigidis, fupellicij atque venetis, infusam est innoxia tenabilis; at languidis aut caducis vires addece aut recare, diuturnis animi moribus & febribus heclicis maceratis & exhaustis, open fere jactuandam tanquam, prodromi adhibito à crispis ad drachmam sensim, aquâ calidâ, horâ fupellicij infusam, vel in pulvere, vel in extracto, vel si mavis alia remediis admixtam à gravis decem ad sexaginta, & certis in casibus alia, prout requiritur necessitas. \* In Medicamentis simplicitate elicit virtus, quæ semper major, quæ naturam propriâ stimulat. In re tam simpliciter tantam Energiam laetæ quâ mirum i principiorum legitimo & felici consilio consuevitque mixti prodiit virtus, quæ semper major, quæ nihil innoxia caudâ, vicidâ aut terribis partibus, aut adulterata aut obvia fupellicij: hinc vegetabilium tota magis proxi impis simplicia natura, quam mineralium famulâ, hinc, quæ medicamentum innoxia elige quod alimentum potius quam Pharmaci genium reddat, quoque magis per infirmos via naturam fupellicij, quam expurgando debilitat.

Ergo infirmis à meris viribus expurgandâ Gin Seng.

**DOMINI DOCTORES DISPUTARUM**

M. Andree Iulij Serræ.	M. Jacobus Trem, à Regiâ M. Petrus Affrey, Chirurgicalis
M. Theophrasti Galeni.	M. Petrus Alberti Cavallaria, Professor.
	M. Michaelis Regii, Medicinæ, et M. Damiâ Regii, Anatomie, et M. Adamo Mollano, Anatomie Simpliciorum Regie Sicilie.
M. Philippo Devere de Brivis, Dantis Hippocratis Regis, Medicinæ præcipuè	M. Gulielmus de Hæpoy, M. Franciscus Sallij.

Proponebat Parisiis, LUCAS-AUGUSTINUS FOLLIOY DE SAINT VAST, SAN-LAUDREUS. Confidentissimè, Baccal. Medicinæ, A. R. S. M. 1736. à sextâ ad meridiam.

Ergo QUESLAE, Universitatis & Societatis Medicinæ Typographus, 1736

- 1736년 파리 의과대학에 제출한 플리오 드 생바스의 인삼에 관한 논문.

건강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식품으로서의 특징도 지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마치 오늘날 인삼의 활용을 예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큰 관심과 호응 속에 무사히 통과된 이 논문은 인삼이 강장제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서양 최초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기억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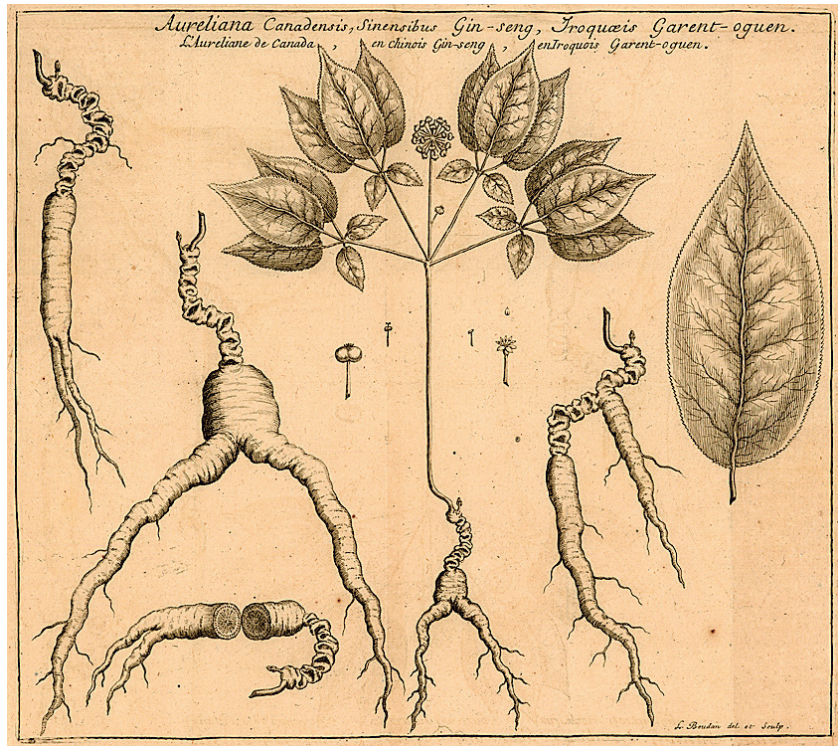
##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인삼 광풍

1716년 인삼이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면서 세계 인삼 무역은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북미삼의 발견은 사실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다. 1713년 만주에서 인삼을 직접 본 뒤 그 모습을 상세히 그려낸 예수회 수사 자르투의 기록이 유럽에 널리 퍼져나갔는데, 그 문헌을 접한 프랑스 출신 예수회 수사 조제프 프랑수아 라피토(Joseph François Lafitau)가 1716년 몬트리올과 오타와 사이 북위 45.31도 지역에서 비슷한 식물을 발견한 것이다. 라피토는 이것이 자르투가 언급한 인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그곳의 원주민인 이로쿼이(Iroquois)족이 이 식물을 가랑토깅(Garangto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사람의 다리 혹은 허벅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중국어로 사람을 닮은 식물이라는 인삼의 뜻과 매우 흡사하지 않은가.<sup>48</sup>

사실 북미 대륙에서 인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라피토가 아닌 미셸 사라쟁(Michel Sarrazin)이었다. 프랑스 왕립과학원 멤버이던 사라쟁은 1697년 캐나다령





• 북미삼 표본 그림

프랑스(퀘벡)에 어의로 파견됐는데 그곳에서 인삼을 채집한 뒤 ‘아랄리아(Aralia)’라고 표기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인삼과 비슷한 식물이라고 생각한 그는 ‘넌진 혹은 인삼 종(種)’이라는 메모를 붙여 프랑스로 보냈다. 하지만 그의 발견은 주목받지 못했고, 북미삼 발견의 공은 라피토에게 넘어갔다.

## 고려인삼의 품질에 밀리는 미국삼

북미에서 발견된 인삼. 귀하기 짝이 없는 인삼을 대량으로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무역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하지만 과연 미국삼이 아시아 인삼과 같은 종인지 확신이 없었다. 흡사하지만 똑같은 식물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같은 인삼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이도 많았다.

영국인들은 비교적 손쉽게 표본을 구할 수 있었던 미국삼을 영국 땅에 들여와 재배하려 했다. 런던 근교의 페컴, 에섹스의 업톤, 옥스퍼드와 에딘버러의 식물원에 인삼을 심었으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메릴랜드에서 들여온 미국삼을 첼시 정원에서 키우던 식물학자는 꽃도 피고 씨앗도 완벽했는데 정작 심으니 새싹이 나지 않는다고 실망했다. 심지어 3년간 묵히며 기다려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북미삼이 발견된 직후 프랑스인 모피 장수들은 그것을 중국에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네덜란드 상인들도 동양으로 인삼을 수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동원해 캐나다와 미국의 산속을 뒤지게 했다. 곧이어 미국의 농장주와 식물학자, 영국의 사업가, 식물학자들이 가세했다. 식물학자로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던 피터 콜린슨(Peter Collinson)은 해외 무역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는 영국 땅에서 북미삼을 재배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삼을 중국에 보내 팔기 시작했다. 파운드당 40센트를 받고 사들인 인삼은 10달러에 팔렸고, 그것들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북미삼이 아시아 인삼에 비해 효능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캐나다산 인삼은 색깔, 향기, 투명성뿐만 아니라 함유된 성분과 효능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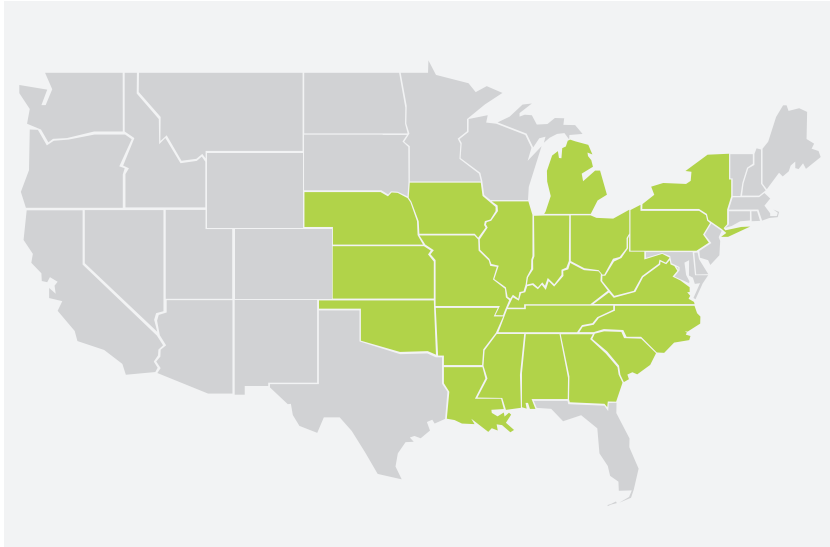


훨씬 열등하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났다.<sup>49</sup> 그 내용은 심지어 토비아스 스몰렛(Tobias Smollett)의 유명한 소설 《험프리 클링커의 모험(The Expedition of Humphry Clinker)》에도 나온다. 소설의 주인공이 런던에서 구입한 미국산 인삼이 과연 동인도회사가 취급하는 중국산과 같은 효능을 지녔을지 의심하는 것이다.<sup>50</sup> 중국에 미국삼을 수출한 콜린슨조차도 중개상에게 자기 물건이 “미국산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비밀을 지켜줄 경우 첫 거래의 이익금 전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다.<sup>51</sup>

### 과육이 자초한 북미삼의 몰락

1747년 매사추세츠의 스톤브리지에서 야생삼이 다량으로 발견되면서 미국 곳곳에서는 서부의 금광 개발과 흡사한 삼 찾기 열풍이 일어났다. ‘인삼 찾기 광풍(A Rage After Ginseng)’이라고 불리게 된 이 움직임은 애팔래치아 산맥의 서쪽으로까지 번져나갔으며, 18세기 미국의 지리서며 교과서는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에서 인삼이 발견된 사실을 특종 뉴스로 알리거나, 인삼을 그 지역의 ‘특산품’ 혹은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등록하기에 바빴다. 이때 인삼 채집에 동원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모럴 해저드에 빠지기도 했다. 갑작스레 큰돈을 만지게 되면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가 하면, 술독에 빠지는 등 온갖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과 미국



- 동부에 치우쳐 있는 북미의 인삼 재배 지역.

최대 모피상 존 제이컵 애스터(John Jacob Astor) 등 이 당시 인삼 교역에 관여한 위인은 꽤 많다.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대니얼 분(Daniel Boone)이다.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 정착한 최초의 미국인으로, 서부 개척의 길을 닦은 영웅으로 꼽히는 그는 모피상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인삼 거래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다. 켄터키에서 캔 인삼을 말에 싣고 산을 넘어 필라델피아에 갔다 팔아 엄청난 이익을 냈던 것이다. 그런데 인삼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무분별한 채취가 이어지고, 실제로 더 이상 인삼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지역도 많았다. 18세기 중반에 벌써 몬트리올 주변에서는 “더 이상 한 뿌리도 없다”는 한탄이 들려왔다. 1786년 미국의 한 인삼 상인은 영국의 주문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귀하가 요청한 100파운드 정도의 인삼을 구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나는 내 조카를 고용해서 이곳 펜실베이니아의 체스터 카운티에서 200마일 정도 서쪽으로 갔다. 거기 인삼은 판매용으로 파내졌거나 돼지들이 너무 많이 파먹어서 이제 사람이 사는 곳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 몇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듯하다.<sup>52</sup>

인삼의 대량 채취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너무 많은 북미삼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콜린슨은 서양 상인들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북미삼을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 중개상이 예술적으로 눈가림을 해서 은밀하게 팔았기 때문인데,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것이 사기였음이 밝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3</sup>

## 근대 서구 의사들, 인삼을 처방하다

서양 의사들에게 인삼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17세기 초반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한 인삼은 17세기 후반 과학자들의 탐구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의료에도 직접 사용되기 시작했다. 1680년 영국 요크셔에서 활동하던 의사 윌리엄 심슨(William Simpson)은 인삼을 이용해 치료에 성공한 사례를 엮은 작은 책자를 펴냈다.<sup>54</sup> 예를 들자면 유명한 시인이자 비평가이던 앤드루 마블(Andrew Marvel)이 오랫동안 고열과 폐종양을 앓은 나머지 너무 말라서 ‘완벽한 해골, 뼈만 남은 주머니’에 불과했는데, 인삼을 써서 온전히 회복된 덕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다는 증언을 실는 식이었다. 심슨은 이 환자에게 인삼 추출액을 끓은 소에서 짠 우유에 섞어 매일 마시게 했다. 심슨이 사용한 인삼은 동인도회사가 들여온 아시아 인삼으로, 고려인삼으로 추정된다.

## 제법 꼼꼼한 의사들의 인삼 처방

북미삼이 발견된 뒤 미국의 의사들도 인삼을 환자에게 처방해 병을 고치려 하곤 했다. 매사추세츠에서 활동한 의사 새뮤얼 스티스(Samuel Stearns)는 인삼을 만성기침과 폐질환 치료에 자주 사용했다. 아침저녁으로 인삼 조각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만든 탕약에 설탕을 섞어서 식자마자 마시도록 처방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기록을 남겼다.<sup>55</sup> 실제로 이 시기 영국과 미국에서 출간된 약전(藥典, Pharmacopoeia)이나 약품 해설서(Dispensatory)에서는 인삼을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다. 질 좋은 인삼을 골라야 하며, 인삼을 약으로 조제할 경우 특별히 세 번 우려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있다. 그런데 북미삼과 아시아 인삼이 효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됐다.

흥미로운 점은 인삼 처방에 대한 조언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과용할 경우 치명적이니 적당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부자들은 매일 아침 아주 적은 양을 먹는다”는 구체적 사례를 곁들이기도 했다.<sup>56</sup> 둘째는 젊은이와 다혈질 체질에게는 처방하지 말라는 경고다. 인삼의 성질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혈기 왕성한 젊은이에게는 너무 많은 열을 발생시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허약 체질의 노인에게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인삼을 사용해서 실패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생식기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독미나리(Hemlock)와 인삼으로 만든 탕약을 처방했는데 오히려 궤양이 커졌다고 한다.<sup>57</sup> 성병에 걸린 남성에게 오랫동안 인삼을 사용한 치료를 했으나 전혀

## GINSENG.

WANTED a quantity of good and well-dried GINSENG, for which Two Shillings per pound will be given, in any kind of goods, if cured agreeable to the following directions, viz. Immediately after digging, wash the roots perfectly clean, at the same time sever the small branches from the main root---this done, string the roots in small bunches as convenient, hang them in an upper room, otherwise out of the sun, where there is a free circulation of air, until they are perfectly dried---By attending to this direction, it will be found, that the roots not only appear of a brighter complexion, but in a great measure retain their size and weight.

WILLIAM MOORE.

N. B. Said Moore has all kinds of Writ-India GOODS, by wholesale---also, all kinds of NAILS by the cask---8 by 6 and 7 by 9 GLASS by the box.

Greenfield, August 13, 1827.

## ON SELF-INFLICTED MISERIES AND DIS-APPOINTED HOPES.

With 70 Coloured Engravings, on Steel, price 2s. 6d., post-free from the Author, 42 stamps, the new medical work.

MAN and WOMAN: their Physiology, Functions, and Sexual Disorders, including Pregnancy, Miscarriage, Midwifery; Remedies to remove the diseases and Irregularities of both sexes, and to obviate the disadvantages of Marriage. By Dr. HORACE GOSS, Surgeon, 55, Great Queen-street, Lincoln's-Inn-fields, London. Sold by the Author, and all Booksellers. It contains cases and cures by Dr. Goss's Three Great Restorative Patent Medicines. No. 1. The Restorative Balm of Ginseng, prepared from the real Chinese plant so famous for restoring Virility, and for curing Barrenness, Weakness, Nervousness, and Physical Incapability, 11s. the bottle. No. 2. The Restorative Alternative, a radical cure for Syphilis, Sores, Skin Diseases, and the Effects of Mercury, 4s. 6d. No. 3. The Restorative Balsam, infallible cure for Gonorrhoea, Gleet, and all diseases of the Urinary Passages, 4s. 6d. Sold at all the wholesale houses, by LLOYD, 68, Fleet-street, and all medicine vendors; also by the proprietor, Dr. Goss, with medical advice and assistance.

Mrs. Doctor Goss attends and corresponds with ladies. Her Female Debilitant Pills, procurable only from Mrs. Goss.

- 1787년 신문에 실린 인삼 광고

- 1855년 신문에 실린 인삼 제품 광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성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삼 뿌리를 몇 년 동안이나 씹어 먹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불평도 보인다.<sup>58</sup> 그런데 이런 사례는 당시 유럽 사람들 사이에 인삼이 정력제 혹은 최음제로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당시 가장 대표적인 약전에서는 인삼의 효능을 동양에서 “여자를 너무 밝힌 나머지 발기부전이 된 남자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명시했다.<sup>59</sup> 19세기 중엽에는 런던의 외과의사 모리스 고스(Morace Goss)가 ‘인삼연고’를 개발했는데, 그는 이 연고가 ‘불임, 불안, 성기능 장애’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sup>60</sup>

## 위장병부터 신경증까지, 만능으로 통하다

북미삼을 발견하기 전까지 유럽에서 인삼은 심지어 의료인들조차 일반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공급이 부족해 구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값이 너무 비싸 환자들에게 쉽게 처방할 수도 없었다. 한 의사는 “인삼은 너무 비싸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sup>61</sup> ‘보일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 로버트 보일(Robert Boyle)은 “인삼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천상에서 보내온 약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인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영국에서 가장 돈 많은 아버지를 둔 백만장자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인삼을 주재료로 삼은 다양한 의약품이 나타났다. 1790년대 런던에서는 ‘앤토니 박사의 아일랜드 알약’이 널리 알려졌는데, 인삼을 주원료로 만든 이 약은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 특효약으로 통했다.<sup>62</sup> 인삼차 또한 약처럼 사용했는데, 인삼차를 집중 처방한 의사들은 인삼이 중국의 차를 상용하면서 생겨난 모든 부작용을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특히 허약 체질 개선과 장기간 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혈병 방지에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sup>63</sup> 매일 울부짖는 심각한 히스테리에 시달리던 여자에게 인삼차를 꾸준히 마시게 해서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증언이 신문에 실렸는가 하면, 심지어 인삼 추출물로 만든 안약이 시중에서 팔리기도 했다. 1790년에 영국의 <타임스> 지에는 “지난 5년간 신경증에 시달리던 5만 명의 환자가 인삼차만으로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광고가 실렸다.<sup>64</sup>

19세기에는 인삼이 담배의 대체재로 거론되는 한편 아편중독자를 치료하는 특효약이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갔다.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가들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 ‘보 몬테(Beau Monde)’에서는 인삼 펀치(Ginseng Punch)와 인삼 줄렙(Ginseng Julep)을 내놓아 영국에까지 화제가 되기도 했다.<sup>65</sup>



## 북미 인삼 농장, 세를 확장하다

1916년 8월 미국에서는 꽤 큰 인삼 농장을 경영하던 사람들이 전국적 단위의 인삼협회를 설립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103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이 ‘미국인삼재배자협회(American Ginseng Growers’ Association)’는 이듬해 미시건의 랜싱에 모여 무려 사흘 동안 협회 창설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기록한 회의록은 20세기 초 미국의 인삼 재배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다.<sup>66</sup> 참가자들은 우선 왜 인삼협회가 필요한지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미시건, 위스콘신, 미네소타처럼 인삼 재배가 활발한 지역에는 이미 주 단위의 인삼협회가 있었다. 따라서 굳이 전국 단위의 단체가 필요한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연합국가로서의 미국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국 단위의 인삼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출발했다. 하나는 적극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인삼의 병해충을 방지하고 극복하자는 게 목적이었다. 인삼 전염병으로 인해 몇 해 동안의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치는 농가가 꽤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북미삼을 중

국으로 수출하는 데 전국적 차원의 단일 창구를 구축하지는 것이었다. 아주 민을 만한 중국인 중개상을 찾아내 협회가 파견하는 주재원 자격으로 내내 중국에 거주하게 하자는 말이다. 이것은 인삼 가격의 폭락을 막고 수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군소 인삼 재배자들은 개별적으로 판매나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중국 측 농간에 놀아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있었다. 협회의 첫 모임에서 회장은 약 4,000명에 달하는 미국 내 인삼 재배자 모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다.

## 인삼 재배 안내서가 쏟아지다

한국과 비교해볼 때 미국의 인삼 재배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8세기 중엽 무분별한 채취로 야생삼이 고갈되기 시작했지만 19세기에 들어서서야 인삼을 재배해야겠다는 발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씨앗을 뿌려 인삼을 재배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기술도 부족한 데다 북미삼은 고려인삼과 달리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종이라는 믿음까지 있었다.

1870년대가 돼서야 버지니아의 에이브러햄 위스먼(Abraham Whisman)이 북미삼 재배에 일단 성공했다. 곧이어 뉴욕 주의 조지 스탠턴(George Stanton)이 상업화할 만큼의 인삼 재배에 성공하면서 '미국 인삼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다. 그가 개발한 방법은 밭을 간 노지에 인삼을 심었다가 나중에 나무 판때기로 만든 해가림막을 세워 적당히 빛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의 인삼밭은 처음에는 12m<sup>2</sup>(129평방피트) 정도였는데, 거기서 재배한 인삼은 막상 말리고 나니 5파운드 정도밖에 안 났

다. 1880년대가 되면 펜실베이니아, 오키오, 미시간, 켄터키, 인디애나,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에서 상업적 재배가 시작됐다.

인삼 재배가 시작되고, 그에 종사하는 농부가 늘어나면서 인삼을 홍보하는 책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891년 《과학적 미국인(Scientific American)》에 실린 인삼 특집 기사는 이후 아시아의 여러 신문에 번역돼 소개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sup>67</sup> 중국의 인삼을 자세히 묘사하고 인삼이 지닌 명성과 효능을 소개하는가 하면, 북미삼이 중국삼이나 고려인삼과 같은 종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춥고 건조한 기후를 지닌 북중국에서 인삼 소비가 드문 반면, 덥고 습한 남중국에서 오히려 차와 음식, 약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삼을 복용한다는 등 다소 애매한 정보도 들어 있다.

곧이어 아주 다양한 인삼 재배 관련 책자가 나타났다. 미국 농무성에서는 1895년부터 인삼 재배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삼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편지로 문의하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Q&A 형태로 인삼 재배의 노하우를 정리해 출판하기도 했다. 인삼의 질병만 집중적으로 파헤친 매뉴얼도 등장했다. 미시건대 등에서 실험한 인삼의 효능에 대한 보고서부터 인삼의 상업화 전략과 특화에 대한 경영 전문서까지 나타났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아도 참고할 가치가 충분한 다양한 안내서가 출판 시장에 등장했던 것이다.

## 최고급 인삼은 역시 고려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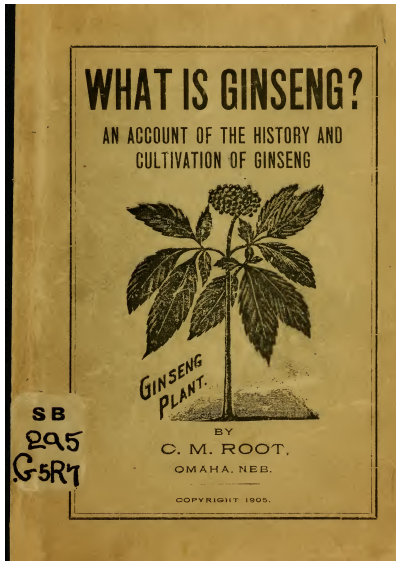
그 가운데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입문서 《인삼이란(What is Ginseng?)》은 특히 흥미로운 내용을 가득 담았다.<sup>68</sup> 이 책의 저자는 중국에서도 최고급 인삼은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등 고려인삼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중국의 고관대작이 송도(개성)에서 보내온 인삼의 포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해놓았다.

방수가 되는 비단 보자기로 싸여진 커다란 고리버들 바구니. 보자기는 황실(조선 왕)의 인장이 찍혀 있다. 관세청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도 찍혀 있다.

바구니 안에는 향기 나는 톱밥과 솜 덩어리 혹은 누에고치 등이 채워져 있고 흰빛과 금빛의 종이로 싸인 작은 꾸러미가 있고, 각각의 꾸러미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생석회가 들어 있다. 이 생석회는 인삼의 위아래에 누워 있다.

인삼 자체는 자수가 놓아진 비단이나 금봉어 겹질로 만든 봉투에 싸여 있다. 이제 진짜 인삼의 실물을 발견할 차례다. 작은 말린 인삼은 4~5인치 정도로, 표면은 반짝거리며 울퉁불퉁한 호박(Amber, 琥珀)처럼 생겼는데, 마치 머리가 없는 사람의 축소판 같다.

저자는 “인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작물”이라고 극찬하는 한편 일본산 인삼 종자는 절대로 사지 말라는 당부도 늘어놓았다. 인삼은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비록 북미삼이 상대적으로 혈값에 거래되고 있을지라도 인삼은 크지 않은 땅을 가진 사람이 적은 노동력만으로도 가장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자기 남편이 죽고 자식과 함께 남아 미래가 막막한 과부라면 남겨진 작은 땅을 인삼밭으로 가꾸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 11 —

But to be safe, let us cut this in two and still there would be \$5,000 a year.

How many quarter sections will match this?

Those who already have farms and families of boys can put in an acre of ginseng for each boy, and so keep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on the old homestead.

The main work in cultivation, is done in the preparation and starting the seed. The mulching of the beds every year takes the place of cultivation as each year's mulch rots, it makes a large amount of humus that keeps the ground cool and moist. Land that is intended for ginseng ground should be free from weed seed. It should be put in some bed crop for a year and not a weed allowed to go to seed. Ginseng may be grown in timber land. This is the way it grows naturally. It is often found under climbing vines where the sun peeps but once a day. This matter of shade is a vital one in growing ginseng. If we do not have natural shade we must provide artificial.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regarding the best height for artificial shelter. Some have contended that 4 or 5 feet was high enough, but the most successful growers, and those who have been the longest in the business provide shelters 8 to 10 feet high. There is a distinct advantage in these shelters. They tend to keep the air cooler and reflect the sun less than the 5 and 6 feet shelters.

The high shelters are more pleasant to walk and work under. Tall people are not bumping their heads, and do not acquire headaches so noticeable under low shelters.

With the 24 feet wide shed a row of posts must be set in the center. It makes little difference whether they

- 인삼 재배 입문서 《What is Ginseng?》 1905년 발간된 이 책은 고려인삼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 북미 지역에 조성된 초기 인삼밭의 모습.

흥미롭게도 인삼 농사는 여러 명의 아들을 둔 농부가 누구에게 농장을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테스트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식들에게 각각 10달러어치의 인삼 종자를 사주고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라는 것이다. 어떤 자식은 그것을 팔아 저축을 하고, 다른 자식은 옷을 사거나 학교 등록금으로 쓸 것이며 노잣돈을 만들어 집을 나가는 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종자로 인삼을 키워낸 자식이야말로 진정 재산과 농장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인삼 재배가 그만큼 인내심과 경영 능력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 04

## 인물과 예술로 만나는 인삼

- 구구절절 편지 속 최고급 선물
- 최고 권력자가 누리는 최고의 사치
- 문학 속 숨은 인삼 찾기
- 1,500년을 이어 인삼을 노래하다
- 가부키에 왜 인삼이 등장했을까?



## 구구절절 편지 속 최고급 선물

선물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선물하는 사람 자신과 동일시된다. 국가 정상 외교에서 국빈 선물이 의전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각국 정상은 자국 문화를 상징하거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신중하게 고른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 단골로 전하는 선물은 고려인삼이다. 이는 고려인삼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임을 보여준다.

### 김정희가 노스승에게 전한 선물

인삼은 예로부터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귀한 물건이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사이에 오간 편지가 이를 보여준다. 다음은 유흥준(兪弘濬)의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에 대한 평전서인 《김정희》에 나오는 내용이다.

보내주신 두 뿌리의 인삼은 아주아주 정미해서 현재 저의 몸은 이 약의 도움을 크게 입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 인삼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묘품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약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것을 먹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보낼 때마다 수십 뿌리를 보내주시어 이 늙은이가 항상 원기를 보양하기에…

조선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사상가인 추사 김정희가 중국의 스승 옹방강(翁方綱)에게 인삼을 선물로 보내자 옹방강이 보내온 감사의 서신이다.<sup>69</sup>

추사는 24세 때인 1809년 청나라 동지사에 끼어 60일 동안 연경(燕京, 베이징의 옛 지명)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연경의 최고 석학이던 옹방강과 이름난 서예가이자 문학가이던 완원(阮元)과의 교류를 통해 추사의 학문의 깊이와 폭은 더욱 깊고



• 추사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 그의 글씨가 빛나는 편지가 현재까지 다수 전해지고 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 김정희와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권돈인의 <세한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넓어졌다. 추사는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연경 학자들과 서신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하고 책, 시화, 붓, 종이 등 선물을 주고받았다. 추사는 당시 80대였던 옹방강의 건강을 염려하며 귀한 조선의 인삼을 보냈다. 이를 받은 옹방강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에는 제자에 대한 사랑과 예의가 절절히 배어 있다. 추사가 인삼을 보낸 이야기는 또 있다. 지금은 <세한도(歲寒圖)>라 하면 가장 먼저 추사를 떠올리지만 그와 같은 시기의 문인 권돈인(權敦仁)이 그린 세한도도 쌍벽을 이루는 작품이다. 그런데 조선 현종 때 영의정을 지낸 권돈인이 진송의 시제 문제로 인해 안동 김씨 세력과 다투다 파면돼 귀향을 갔다. 그러자 추사는 평생 우정을 나누며 정치적 수난을 함께한 권돈인의 귀향지로 인삼을 보냈다. 선물을 받은 권돈인은 추사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고마움과 우정을 담았다.

지난 동지설달 사이에 선편(船便)이 오랫동안 단절되어... 거의 60일 가까이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인삼과 담배를 많이 보내주시니 인삼은 먹어서 원기(元氣)를 보충하고 담배는 피워서 장기(瘴氣)를 막게 되었으니, 더없이 머리 들어 사례하는 바입니다.

## 신라 유학생 최치원의 감사 선물

추사에 앞서 신라 시대 최고의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도 중국의 관리에게 인삼을 선물로 보냈다. 동봉한 서신에는 겸손하게 고려인삼의 귀함을 전했다.

해동의 사람 모습 인삼 일구, 은 장식 감자에 담음.  
해동의 정성은 든 가야금 일장, 자춧 비단 가방에 담음.  
인삼과 가야금 등은 모양이 천성을 받고 울림이 풍이를 품었습니다.  
형체를 갖추어 이미 거짓 모양이 없고 재질이 완전하여 허상이 나지 않습니다.  
(중략)  
진실로 적어 변변치 못함이 부끄럽지만 장수하시기를 빌며  
앞의 약물은 해동이 지역에서 캐서 천지를 건너왔습니다.  
비록 삼야오엽이란 이름은 비취볼 수 있지만 특별한 질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만수와 천산의 험함을 지나와도 남은 향이 있음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경이함을 헤아리지 않고 문득 진헌합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약초가 혹 야로(野老)의 하찮은 약초나마 같기를 바랍니다.<sup>70</sup>

신라 시대 국비 유학생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진출했다. 고변의 종사관으로 지내던 시절 윗분의 생일 선물로 고국 신라에서 구해 온 인삼과 거문고를 올리며 동봉한 서신이다.

이 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인삼의 형태와 향기까지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산을 넘어와도 향이 남아 있다고 한 구절은 신라 삼의 품질이 좋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산삼이었다. 당시 산삼을 구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신라에서 당나라 수도 시안까지 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 가져올 정도로 정성을 다했

음은 놀라운 일이다.

최치원과 김정희, 권돈인의 인삼 관련 서신 세 통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신라와 조선 시대 최고의 석학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보낸 마음을 담은 것이다. 험한 천산과 바다를 건너와도 향이 남은 인삼만큼이나 그 마음의 깊이가 깊다.

## 조상이 남긴 위대한 선물

조선 시대에는 인삼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시문을 함께 붙였는데 이와 관련된 시가 많이 남아 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유희인(俞好仁)은 향덕 현감으로부터 인삼을 선물 받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감사를 표했다.

관서지방 선약이라 빛깔 고운 인삼을  
천리에서 받아보니 그대 마음 알겠네  
소년 시절 일찍이 <고려인삼찬>을 읊고서  
영약(인삼)이 나무 그늘 좋아한 줄 알았네  
(중략)  
맘디 맑은 남계수로 보글보글 끓이니  
팔다리 모양 지닌 귀한 너와 어울려

조선 중기 문인 서거정(徐居正)도 강원감사 조간에게서 인삼 선물을 받고 시문을 남겼다.



약성이 인삼은 예전부터 나왔다. 한 가지에 세 줄기가 가장 좋다. 갑자기 은혜를 입어 어쩔 줄 모르겠다. 병든 몸이 소생하여 미칠 듯이 기뻐한다.

소중한 선물을 받고 크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 상류층에서도 인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삼국, 고려, 조선 시대의 인삼은 금은보화의 가치와 맞먹었다. 인삼이 유럽에까지 전해져 태국 대사가 루이 14세에게 선물하고 세계적 문호들이 인삼에서 힘을 얻은 것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귀한 선물로 취급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귀한 인삼이 한반도에 자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주어진 신의 선물이다. 역사와 유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인삼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 최고 권력자가 누리는 최고의 사치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西遊記)》에 손오공이 인삼과에 대한 욕심으로 곤혹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온다. 인삼과는 열매 모양이 갓난아기처럼 생겨 눈, 코, 입, 귀와 팔, 다리까지 갖추었으며, 천지의 기운이 서려 냄새만 맡아도 수명이 360세나 늘어나고, 하나만 먹어도 4만 7,000년을 살 수 있는 신비의 영약으로 묘사돼 있다. 중국에서 인삼을 불로초로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삼과를 사람 모양으로 그린 것은 인삼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 왕들이 사랑한 신비의 불로초

고대 제왕들의 최대 꿈은 불로불사(不老不死)였다. 지금이야 현대의학에 힘입어 무병장수의 꿈을 이뤄가고 있지만 고대에는 자연으로부터 불로초를 얻으려 했다. 인삼은 동양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수명을 연장시키는 영약으로 인정받아왔다.



• 불로초를 구하고자 영원한 진시황, 이사, 서복이 동쪽을 바라보는 모습의 동상.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선과 중국의 왕실에서 인삼은 필수 보약이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각종 문헌에 자주 나온다.

특히 진시황(秦始皇)에 대한 전설은 인간의 불로장생에 대한 꿈을 보여준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신선의 술법을 담은 방사(方士) 서복(徐福)과 3,000명의 동남동녀(童男童女)를 삼신산으로 보냈다는 전설은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대변한다.

진시황이 구하던 불로장생의 영약은 고려인삼으로 서복 일행이 찾은 삼신산은 지리산 또는 제주도 한라산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서복 일행이 배를 타고 서귀포 정방폭포 해안가에 도착해 한라산으로 올라가 불로초를 구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데 이를 토대로 서귀포에 서복기념관이 세워졌다. 서귀포란 지명도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

19세기 베트남의 개혁 군주인 민망 황제도 인삼 마니아였다. 민망황제가 즐겨 먹은 베트남 전통 보양주인 민망탕(明命湯)은 정력에 좋은 술로 통한다. 민망탕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고려인삼. 질 좋은 민망탕을 주조하기 위해 다양한 약재와 화룡점정으로 인삼을 넣는데 인삼 중에서도 고려인삼을 써야 명주로 인정한다. 19세기 베트남에는 중국 인삼, 서양 인삼이 들어와 고려인삼과 함께 경쟁하고 있었지만 그중 고려인삼을 가장 높이 쳐주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고려인삼은 정력제로 인식된다. 인삼 애호가 민망황제가



• 인삼으로 건강을 지킨 조선 시대 최장수 왕 영조 어진  
출처 : 박물관 포털 e뮤지엄

무려 142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인데, 이쯤 되면 민망황제의 정력의 원천을 인삼으로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는 물론 유럽 왕실에서도까지 애용하던 인삼. 종주국 조선 왕실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약재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이 위독할 때 혹은 왕족의 피로 해소를 위해 인삼을 처방한 내용이 자주 나온다. 조선 시대 최장수 왕인 영조는 82세까지 살았다. 어의의 증언에 따르면 영조는 자신의 건강 비결을 인삼의 정기라 생각해 72세 되던 해 한 해 동안 20여 근을 먹는 등

1752년부터 1766년까지 14년 동안 무려 100여 근을 복용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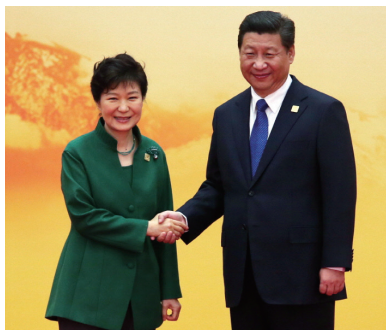
또 정조 22년 동지사로 연경에 다녀온 서유문(徐有聞)이 현지에서 듣고 본 내용을 정리한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에는 청나라의 건륭제(乾隆帝)가 중병이 나 홍삼을 매일 달여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태상황(건륭제)이 선달 초승에 마침 차가운 날 음식을 과도하게 잡수고 병환이 심해져 날마다 홍삼 녀 돈씩을 달여 쓴다”는 베이징 상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 명사들의 건강을 지킨 홍삼

서양의 왕실과 상류층에서도 인삼의 인기는 대단했다. 1686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태국 대사로부터 인삼을 선물 받자 프랑스와 영국에서 인삼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특히 프랑스 상류층에서는 인삼을 동양의 불로초로 인식하기도 했다. 루이 14세가 인삼을 진상 받기 전부터 영국은 태국인들이 인삼즙



- 1984년 5월 3일 서울 절두산 성지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출처 : 청와대

을 즐기는 보양 문화를 소개할 만큼 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터였다. 1660년 설립된 영국왕립학회의 중요 소장품에도 인삼이 들어가 있다.

현대에 와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 II)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이 고려인삼을 복용해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홍삼차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당시 주(駐)로마교황청의 배양일(裴洋一) 대사는 “교황을 접견하러 갈 때 홍삼차를 선물로 전해드린 적이 있다”며 이후 교황을 직접 모시는 주교가 “교황님이 홍삼차를 매우 좋아하신다”고 귀띔해주었다고 말했다. 그 후 배 대사는 홍삼을 교황에게 가끔 보냈다고 한다. 시한부 목숨을 선고받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생명을 고려인삼이 연장케 해준 것은 유명한 일화다. 미테랑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1995년 암 선고를 받아 힘겨운 투병 생활을 했다. 당시 주치의인 필립 드 퀴페르 박사는 고려인삼이 항암에 좋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한국에서 인삼 엑기스를 구해 복용시켰다. 1995년 5월 퇴임한 미테랑 대통령은 6월부터 타계하기 직전까지 7개월간 인삼을 복용했다. 결국 암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3개월 시한부 생명을 6개월 이상 연장시킨 것은 고려인삼의 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 주는 주요 선물 중 하나도 고려인삼이다.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정성을 담아 전달한 선물은 홍삼 가운데서도 으뜸인 천삼이었다. 천삼은 전체 홍삼 중에서 약 0.5%밖에 산출되지 않는 귀한 인삼으로 같은 무게의 은보다 훨씬 비싸다.

## 문학 속 숨은 인삼 찾기

한국 소설에서 인삼은 흔하게 나온다. 인삼을 소재로 한 내용도 있고, 인삼 찾집, 독삼탕(獨參湯), 뇌물로 바치는 인삼 등 일상 속 다양한 소재로도 등장한다. <운수 좋은 날> <빈처> <술 권하는 사회> 등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현진건(玄鎭健)도 소설에서 인삼을 단골로 다루었다.

약 한 첩 들어가 보지 못한 위장에는 인삼과 녹용이 그야말로 선약 같은 효험을 드러내었다. 최주부는 하루바삐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해타산도 모조리 잊어버렸다.

—<운수 좋은 날>

소설 <타락자>에서 주인공 나는 기생 춘심과 연분이 있는데 춘심이 주인공의 체력 보강을 위해 독삼탕을 끓여 내온다.

춘심은 소리쳐 웃으며 별안간 나를 부둥켜안는다. 나는 마녀에게나 덮친 듯이 머리끝이 쭈뼛하였다. 돌의 그림자는 이불 속으로 사라졌다. … 따라준 독삼탕을 마시고 문간에서



발발 떠는 그와 작별한 나는 인적 없는 쓸쓸한 거리로 나왔다.

개성 출신 문학가의 소설에서는 인삼이 더욱 생생하게 그려졌다. 대표적인 소설가가 박완서(朴婉緒)다. 개성이 고향인 그는 어렸을 때 인삼에 대해 보고 들은 내용을 소설에 녹여냈다. 장편소설 《미망》에서는 송도에 온 경성의 고위 관리를 최고 VIP로 모셔 인삼탕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인삼 잎과 인삼 껍질을 넣고 끓였기 때문에 인삼탕이라 했고 세안용 비누도 인삼을 넣고 만든 독특한 거였다. 다실에서는 백삼 분말 차나 홍삼 엑기스차를 인삼 웨하스나 인삼정 과에 곁들여 마실 수가 있었으니 그야말로 호강의 극치여서 중앙의 고급관리도 인삼장에서 대접을 받고 나면 오래도록 자랑거리로 삼곤 했다.

인삼탕이 유행했던 당시의 개성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미망》에서는 개성 삼포민들이 일본인의 인삼 절도를 막다가 고초를 당하는 이야기와 인삼으로 거부가 된 주인공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황석영(黃皙暎)의 대하소설 《장길산》에는 장길산 부대가 인삼 장사로 군자금을 마련하는 내용과 인삼 재배의 기원이 나온다. 장길산은 황해도와 함경도 강계 지방을 근거지로 활약해 인삼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인의 슬픈 멕시코 이민사를 소재로 한 김영하(金英夏)의 소설 《검은 꽃》에는 유카탄반도까지 흘러 들어간 인삼 장수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에서 살인적인 더위와 노동, 비인간적인 대우로 참담한 생활을 하던 조선인의 실상을 미국 교포 사회와 한국에 알린다. 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이라 더 큰 감동을 선사한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삼을 팔고 있는 박만석이올시다. 중국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서 인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박만석이 기둥에 묶인 그들의 손과 발을 보고 혀를 찼다. ... 박만석은 다 찢어진 홀고의적삼에 맨발인 이정과 돌석의 처지를 동정하여 주머니에서 띠소씩을 꺼내 이정과 돌석에게 건네주었다. 내, 이 사실을 곧 대 한에 알리도록 하겠소이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오. 박만석은 실제로 그 사실을 공립신문 과 대한매일신보에 편지로 써 보냈다. 그가 11월 17일에 쓴 편지는 12월야야 조선에 도착 하여 각 신문에 실렸다.

다음은 김탁환의 소설 《나, 황진이》에서 황진이가 독백하는 대목이다.

어떤 이는 내 피부가 껍부안<sup>71</sup>이 울고 갈 만큼 좋다고 칭찬하지만 자세히 살피면 10여 년 분대(기생 특유의 화장술로 볼에 분을 많이 바르고 대로 눈썹을 진하게 그려 웃지 않아도 웃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화장술. 부작용으로 종기 및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난다)로 입은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삼탕(인삼 잎을 달인 물. 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고와 진다)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인삼의 잎을 달인 물로 세안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대목이 암시하듯 당시 개성 지방 여성들은 인삼의 잎 등 부산물을 이용해 화장을 했다. 개성 지역에서는 인삼의 꽃이 필 무렵, 꽃심 부분을 따 목욕물에 넣으면 살결이 예뻐진다고 해 인삼탕을 애용했다.

또 인삼잎차는 기미와 잡티 등을 예방하고 주름살을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조선 시대 궁녀들은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인삼 물로 목욕했다. 인삼의 7효설 가운데 하나인 ‘탁독합창(托毒合瘡)’은 체내의 독을 제거해 피부를 곱게 만들고 종기를 삭히는 효능을 의미한다.

서양의 소설에도 인삼이 등장한다. 저자가 인삼을 직접 복용해 효과를 보았거나 그 사례를 간접 체험해 소설에 녹여낸 경우가 많다. 더글러스 케네디(Douglas Kennedy)의 《빅 픽처》에서 주인공 벤 브래드 포드는 인삼을 매일 아침 먹는다.

내 사무실 책상에는 아홉 가지 알약이 놓여 있다. 위산 제거를 위한 잔탁 150밀리그램 캡슐 한 알, 천연적으로 기력을 북돋우기 위한 한국 인삼 소프트 캡슐 두 알, 화학적으로 기력을 보충하기 위한 텍제드린 5밀리그램 알약 두 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비한 발리움 5밀리그램, 몸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베타카로틴 세 알...

주인공의 사진을 전시·판매하려는 화랑 대표가 인삼을 먹는 장면도 등장한다.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하는 남편을 붙잡지 않으리라 결심했어요. 화랑을 팔아버리고 아이다호에 있는 오성급 리조트로 갔죠. 그곳에서 인삼을 싣혀 먹고 난 다음 두 시간 동안 렌터카를 타고 몬태나로 왔어요.

2016년 4월 한국을 방문한 더글러스 케네디는 실제로 인삼 애호가임을 밝혔다. 그는 집중이 필요할 때나 장시간 글을 쓸 때 인삼 캡슐을 먹는다고 한다. 인삼을 복용하면 피로감이 말끔히 가신다고 독자와의 대화에서 말하기도 했는데, 이날 한국의 애독자가 케네디에게 고려홍삼을 깜짝 선물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영국 군인 에번 제임스(Evan James)가 쓴 기행문 《백두산 등정기》에는 저자가 인삼의 효능을 믿지 않다가 산행 중 인삼차를 먹은 후 심한 위통이 사라진 효과를 본 이야기가 있다. 인삼의 위장 장애 효능과 관련된 이야기는 18세기 영국 소설가 토비아스 스몰렛의 《험프리 클링커의 원정》에도 나온다. 마음고생

을 하던 학자가 의사가 처방한 인삼탕을 복용한 후 위장이 놀랍도록 편안해졌다는 내용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유람하고 돌아와 서간체와 기행문 형식으로 쓴 이 책은 스몰렛의 걸작으로 당시 베스트셀러였다. 서양 작가들의 경험처럼 실제로 홍삼이 위장 장애의 주원인인 헬리코박터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인삼학술대회에 발표되기도 했다. 서양에서도 인삼의 의학적 담론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문호 막심 고리키(Maxim Gorky)도 인삼 애용자였다. 고리키와 절친한 사이였던 소설가 예브게니 자먀틴(Yevgeny Zamyatin)은 고리키가 서거한 직후 망명지 파리에서 그에 대한 회상기를 남겼다. 소련 공산 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보였던 자먀틴은 정치적 박해를 받았는데 고리키의 도움으로 망명을 하는 등 많은 지원을 받았다. 고리키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는 정열적으로 일하는 고리키를 보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했다. 이 대목이 회상기에 나온다.

고리키에게 하루는 도대체 몇 시간이나 되는 거지? 담배를 피워대는 불그스름한 콧수염 사이로 끝없이 기침을 해대면서 결핵으로 반쯤은 잡아먹힌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힘이 솟아나는 것일까? 한번은 그에게 그런 점에 대해 물었다. 그는 비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를 간식당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는 짙은 색깔의 호리병을 내밀면서 그것이 신비한 효험을 지닌 인삼즙이라고 설명했다. 그를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만주에서 가져다 준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바로 이 인삼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지 않을까?

자먀틴은 고리키의 정열적인 활동과 창작이 인삼에서 나온 것으로 믿었던 모양이다.

# 1,500년을 이어 인삼을 노래하다

- 1 까만 어둠 헤집고 올라오는 꽃대 하나  
인삼 꽃 피어나는 말간 소리 들린다.  
그 끝을 무심히 따라가면 투명 창이 보인다.
- 2 한 사내가 꽃대 하나 밀어 올려 보낸 뒤  
땅속에서 환하게 반가부좌 가만 뜬다.  
창문 안 들여다보는 내 눈에도 삼꽃 핀다.  
무아경, 온몸에 흙물 쏟아져도 잔잔하다.  
깊고 깊은 선정삼매 고요히 빠져있는  
저 사내, 인삼반가사유상의 얼굴이 환하게 맑다.
- 3 홀연히 진박새가 날아들어 묵언 문다.  
산 너머로 날아간 뒤 떠오르는 보름달,  
그 사내 침묵의 사유가 만발하여 나도 환하다.

—〈인삼반가사유상〉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시조 부문 당석작인 배우식 작가의 시조다. 이근배 시인은 이 작품에 대해 “오랜 흠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인삼 뿌리에 생각을 입혀서 소리와 빛깔을 알맞게 구워내고 있다. 쉽게 찾아지지 않는 글감을 골라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사유를 명징한 이미지로 엮어내는 시적 기량이 믿음직스럽다”고 평했다.

이 시조는 인삼의 특성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고구려의 한시 <인삼찬(人蔘讚)>과 비교할 수 있다. 양나라의 도홍경이 《명의별록》과 《신농본초경》에 관한 저술을 모아서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를 엮었는데 그 안에 고구려인이 지었다는 <고려인삼찬(高麗人蔘讚)>이 실려 있다. 도홍경이 《본초경집주》를 엮은 시기는 5세기 말경이니 이 시는 적어도 그 이전에 지어졌을 것이다.



- ‘인삼반가사유상’이라고 노래할 만큼 인삼과 반가사유상의 분위기가 닮았다.



-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三椏五葉(삼아오엽) 背陽向陰(배양향음)

欲來求我(욕래구아) 椏樹相尋(가수상삼)

줄기는 셋에 얽은 다섯 / 해는 등지고 그늘로 향하네

나를 얻으려 한다면 / 피나무 우거진 곳으로 가게

〈인삼찬〉은 인삼의 생김새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인삼이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자생지가 산속의 피나무 숲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한시를 지은 이가 누구인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한문에 능하고 산삼에 깊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을 자주 오가는 사신이나 학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삼의 신비함에 대한 경외와 찬미는 5세기 고구려 문인과 21세기 대한민국 시인 사이의 1,500여 년을 뛰어넘어 이어지고 있다.



## 가부키에 왜 인삼이 등장했을까?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내놓으면 애플 마니아들은 출시 첫날에 맞춰 밤을 새워 줄을 선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세일 첫날에도 애호가들은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린다. 17, 18세기 일본에서도 그와 같은 진풍경을 볼 수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고려인삼이었다. 당시 에도에서는 인삼의 판매 시간에 맞춰 밤 새 줄을 서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집권기(1716~1745)는 인삼 열풍이 거세게 불던 시기였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동의보감》이 전해져 조선의 약재에 관심이 높아졌고, 그중에서도 인삼은 투기 열풍이 일 정도였다. 앞서 도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 시대부터 서민들도 인삼을 접하게 되면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8대 쇼군에 취임한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막부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강력한 개혁을 펼친 것으로도 이름이 높는데, 일각에서는 인삼을 사들이려고 은화를 너무 많이 써 경제 개혁이 불가피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이렇게 인삼 열풍으로 인해 벌어진 다양한 촌극은 당시의 문화 예술과 접목돼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 인삼에 살고, 인삼에 죽던 에도 시대

1674년 에도에는 인삼좌(人蔘座)가 등장했다.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민층 사이에도 인삼 수요가 급증하자 막부가 거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삼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인삼을 팔게 한 것이다. 지나치게 영리 위주로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진짜 인삼을 판매했던 자는 엄벌로 다스려 사형까지 시킨 기록도 있다.

인삼좌는 에도 중심가에 위치했는데 인삼 열풍을 입증하듯 언제나 인삼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인기 절정의 수입품답게 인삼을 판매했던 날이면 전날 밤부터 줄을 서서 날밤을 새우거나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줄을 세울 정도였다. 특히 사무라이들은 인삼좌를 점령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닥불을 피우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 때문에 이웃 상가로부터 화재가 발생할까 염려된다는 항의가 끊이지 않아 인삼좌를 몇 차례나 이전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인삼좌는 이런 외중에 품질을 우려해 미리 정해놓은 하루 매상고에 다다르면 한 낮이라도 무조건 문을 닫았다. 이 같은 인기로 인삼을 사러 온 하인이 인삼을 구하지 못하자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소문까지 난무했다. 인삼 열기가 너무 지나쳐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막부는 1710년 인삼 소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조선의 실학자 이익(李瀾)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왜인의 풍속에 병이 생기면 반드시 인삼을 쓰고, 얻지 못하는 자는 죽으니 만약 무역을 막으면 죽음으로써 다투어 시비가 벌어지기 쉬울 것이므로 부득이 교역을 허락하였다”고 당시 실상을 전했다.



- 일본 에도 시대의 거리 풍경.



- 일본 나고야 성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후기 인삼(가는 삼)으로 추정.



- 에도 막부는 국내 유통용이 아니라 오로지 고려인삼 수입을 위해 특수 화폐인 인삼대왕고은(人蔘對往古銀)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는 은 함량 80%에 길이 10cm, 무게는 210g에 달했다. 1710년 당시 인삼대왕고은은 120개로 인삼 한 관을 살 수 있었다.

## 통신사 살인 사건을 담은 가부키

인삼 열풍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불렀다. 1764년 11차 조선통신사를 수행하던 무관 한 명이 살해되는 전대미문의 외교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통신사 조엄(趙巖) 일행이 에도에서 의전 절차를 마치고 돌아올 무렵인 4월 7일 군졸을 통솔하던 무관 최천종(崔天宗)이 숙소에서 피살됐다.

범인으로 쓰시마 출신 역관 스즈키 덴조(鈴木傳藏)가 체포됐다. 심문에서 덴조는 “최천종이 거울을 잃어버렸는데 자신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말채찍으로 때렸기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이 살인 사건은 역관들이 사행 때 가지고 간 인삼 교역 대금을 놓고 벌



- 일본 도쿄 가부키 극장의 전경을 담은 흑백 사진 엽서.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어진 분쟁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사건은 훗날 일본의 문학이나 일본 전통 연극인 가부키의 소재로 다루어질 정도로 관심이 컸다. 연세대 허명진 교수에 따르면 <명화잡기(明和雜記)>나 <사실문편(事實文編)>을 비롯한 일본 측 기록 대부분은 인삼 판매 대금을 돌려싼 다툼 때문에 살해했다고 보았다.<sup>72</sup> 최천종 살해 사건을 소재로 한 일련의 외국인 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 가부키와 조루리(반주에 맞춰야기를 읊는 전통 공연)로 무대에서 상연되기도 했다. 오사카와 교토에서 1767년부터 1883년까지 42회, 에도에서 5회 공연됐다고 한다. 가부키는 인기를 끌어 관중이 넘쳤으나 중지됐다.<sup>73</sup>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한 막부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부키의 줄거리가 바뀌었다.



## 일본 속담, “인삼 먹고 목을 맨다”

1824년에 나온 《에도가이모노히토리안나이(江戸賣物獨案内)》는 에도의 3,000개 가게와 취급 상품을 소개하는 일종의 쇼핑 가이드북이다. 이 가이드북은 “백제국 이달성 옹의 처방으로 천수불로를 누리고 수명을 늘려주는 양약”이라는 선전 문구로 ‘조선인삼원’이라는 약을 소개했다.<sup>74</sup> 이는 여러모로 일본에서 인삼의 인기가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 인삼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을 정도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삼의 상상 초월 인기가 죽음을 부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 중에 일본 국민 문학인 《주신구라(忠臣藏)》도 있다. 에도 천하의 명약인 고려인삼을 다 죽게 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먹고 기사회생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고려인삼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인삼이 얼마나 비쌌던지 인삼을 사느라 진 빚을 갚지 못해서 목을 매달아 죽는다는 우스개 이야기로 끝난다. 이 이야기에서 파생돼 “인삼 먹고 목을 맨다”는 일본 속담이 생겨났다. 한 소녀가 병든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유곽에서 몸을 판 돈으로 인삼을 샀다는 내용도 민담으로 전해진다. 이 민담의 무대인 오시하라는 도쿄의 아사쿠사 거리로 도쿠가와 막부가 공창제를 인정한 에도 시대에 유곽이 몰려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 몸을 팔아 인삼을 산 소녀의 이야기는 불로장생 명약으로 알려진 인삼에 대한 당시 일본인들의 믿음을 담고 있다.

# 세계인들은 인삼을 어떻게 먹을까?







“ 동양권에서는 뿌리삼이 중심이지만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뿌리, 가공 제품, 드링크 등 모든 타입의 인삼이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판매된다. 중국은 뿌리삼이 주류이고 일본은 환제와 정제, 드링크제가 많이 소비된다. 화교가 많은 동남아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뿌리삼이 대세다. 서양에서는 정제, 캡슐 타입이 일반적이다. 미국도 서구와 비슷하지만 한국인과 화교 등 아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부는 뿌리삼과 차 위주로, 동부는 홍삼 카페를 중심으로 소프트한 인삼류가 인기가 ”





# 05

## 인삼의 놀라운 힘

- 우리 몸을 지키는 완벽한 한 뿌리
- 내 몸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다 : 면역력 증강
- 피로와 스트레스야 가라 : 피로 개선
- 혈액순환을 돕는 혈관 청소부 : 혈행 개선
- 뇌의 노화는 늦출 수 있다 : 기억력 개선
- 몸 안의 노폐물을 막아내다 : 항산화/항노화
- 암과 대적이다 :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
- 그 밖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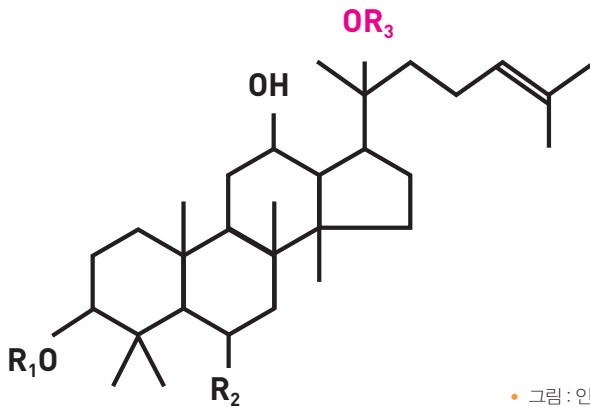
## 우리 몸을 지키는 완벽한 한 뿌리

약효가 있는 물질은 대부분 독성도 함께 지니게 마련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삼은 독성 성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약효는 뛰어나면서 부작용은 거의 없는 신비한 약재인 것이다. 이 덕분에 인삼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만병통치 약으로 통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식물로 꼽힌다. 그런 만큼 함유 성분에 따른 약효가 과학적으로 속속 증명되고 있다.

### 인삼의 주성분 사포닌

인삼을 달이다 보면 거품이 많이 난다. 인삼이 사포닌(Saponin) 성분을 다량 함유했기 때문이다. 사포닌은 그리스어로 '거품'을 뜻하는데 한 분자에 비극성 부위와 극성 부위가 같이 들어 있어 거품을 잘 만들어낸다. 이 사포닌은 인삼의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인삼의 효능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인삼사포닌'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포닌이라 부르는 화합물은 식물에 널리 분포돼 있다. 그러나 독특하게 담마란(Dammarane) 구조의 인삼사포닌은 파낙스속 식물 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인삼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그 종류는 매우 많으나 인삼이 주로 함유한 것은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 Rd, Re, Rg1 총 6종류다. 인삼의 사포닌 함량은 건조중량 대비 2~5%로 특히 가는 뿌리 쪽이 높다. 인삼을 가열하면 이들 사포닌 중 일부가 변화해 Rg3가 생성되는데 이 Rg3는 홍삼의 특이 성분이기도 하다. 또한 인삼사포닌은 체내에 들어오면 장내 세균에 의해 ‘컴파운드 케이(Compound K)’라는 성분으로 구조가 변한다.



• 그림 : 인삼사포닌의 구조

		R1	R2	R3
Ginsenoside	Rb1	gic-gic	H	gic-gic
	Rb2	gic-gic	H	gic-ara
	Rc	gic-gic	H	gic-ara
	Rd	gic-gic	H	gic
	Re	H	gic-rha	gic
	Rg1	H	gic	gic

## 오래 달여야 효과 높아

인삼에는 특히 면역 증강 작용을 하는 다당체 성분이 들어 있다. 이 다당체는 일반적인 중성당 외에도 산성당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파낙시놀(Panaxynol), 파낙시돌(Panaxydol) 등과 같은 폴리아세틸렌 성분은 암세포 성장 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여러 종류의 페놀성 성분, 정유 성분, 알칼로이드 등도 있으나 이들의 함량은 그리 높지 않다.

인삼 성분은 가공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특히 인삼의 사포닌은 오랫동안 가열하면 담마란 골격의 20번 위치에 붙어 있는 당이 떨어져 나가서 진세노사이드 Rg3, Rg5, Rk1과 같은 사포닌이 생성되는데, 이들의 약효가 특히 강하다. 또한 인삼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아미노당 화합물도 새로 생성된다. 이러한 성분 변화 때문에 인삼을 오래 달이면 항산화, 항암,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증진 등 대부분의 약효가 증가한다. 따라서 인삼은 생으로 그냥 먹기보다 오랫동안 달여서 복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홍삼이 백삼보다 약효가 더 강한 이유도 홍삼을 제조하는 공정 중 가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 내 몸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다 : 면역력 증강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에 대해 면역력 증강,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총 5가지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그중 면역력 증강 효과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친구와 똑같이 찬바람을 맞았는데 친구는 멀쩡하고 나만 감기를 앓거나, 똑같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는데 나만 급성 장염에 걸린다면 그건 면역력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면역력은 한마디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힘이다.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에 저항해 무력화시키는 힘이 바로 면역력이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잔병치레를 많이 하게 된다. 인삼사포닌과 다당체는 면역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활성을 강화한다. 우리 몸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병사의 숫자를 늘리고 무기를 현대화해 수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감기, 신종플루, 에이즈 대항력을 높인다

감기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데 인삼이 감기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준다. 일본 가네코 박사와 나카니시 박사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 인원 1만 2,295명 중 인삼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감기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4.89%인 반면, 매일 3g씩 3개월 동안 복용한 그룹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복용이 감기 발생 빈도를 70%나 감소시킨 것이다. 이것은 인삼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up>75</sup>

한편 가네코 박사는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2개월 동안 인삼을 복용한 사람 중 감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28.6%이었던 반면 위약을 복용한 사람은 73.3%나 증상이 나타났다. 인삼이 감기 증상의 발현 빈도를 60% 감소시킨 것이다.<sup>76</sup>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인삼을 복용하면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속설이 전해왔는데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인삼은 감기뿐만 아니라 사스,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저항성도 키워준다. 2009년 신종플루 H1N1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H1N1 바이러스에 대한 인삼의 효과를 연구한 중앙대 김홍진 교수 연구팀





에 따르면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물은 감염 14일 후 오직 10%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인삼을 같이 투여한 그룹은 66%가 생존했다. 또한 인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체중 감소도 방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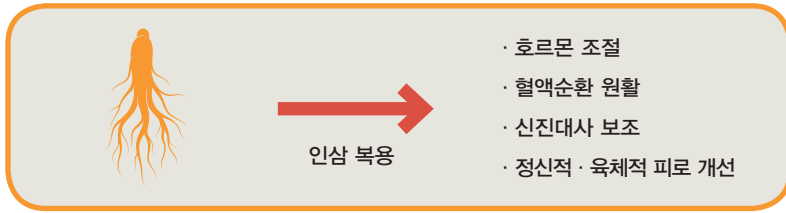
인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이즈(AIDS), 즉 후천성면역결핍증이다. 인삼은 에이즈 환자의 면역력 감소를 억제해주시기도 한다. 서울아산병원 조영걸 교수는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인삼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에이즈 치료제는 오래 투여할수록 점점 약효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인삼을 같이 투여하면 에이즈 치료제의 약효 저하를 막아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8</sup> 예로부터 인삼은 자양강장제로 통해 인삼을 복용하면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없어진다고 했다. 인삼은 뛰어난 약효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몸의 수호천사로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 피로와 스트레스야 가라 : 피로 개선

피로나 스트레스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정신적·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됐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두통, 현기증, 변비, 식은땀, 식욕 부진, 오한, 위장 장애, 정신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로는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고갈되고, 여러 기관에 독성 물질이 축적돼 나타난다. 인삼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 피로를 날리고 활력을 더하다

인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신진대사를 돕는다. 또 체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물 시험을 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인삼은 스트레스로 인한 운동력 저하를 현저하게 방지해주므로, 인삼을 투여한 동물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오래 수영을 할 수 있으며, 더 오래 걷는 것으로 밝혀졌다.<sup>79</sup>

노인병원에서 야근하는 간호사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본 가네코 박사는 이런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삼의 항피로 효과를 시험했다. 그 결과 야근 간호사가 인삼을 복용하고 근무하면 일을 마치고 느끼는 피로도가 112에서 82로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0</sup>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인삼을 복용한 그룹은 운동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철인삼중경기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인삼이 시즌 후반기에 나타나는 피로와 운동력 감소를 막아주었던 것.<sup>81</sup> 또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삼은 특히 근육 내 산소 활용도를 개선해 운동력을 증진했다.<sup>82</sup> 이런 효능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복용하는데 운동선수의 경우 인삼은 금지 약물 대상이 아니므로 더욱 애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삼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인삼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불면, 이상행동 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up>83</sup>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발간된 《신농본초경》에도 인삼은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 혈액순환을 돕는 혈관 청소부 : 혈행 개선

나이가 들면서 자주 졸리고 몽롱해진다. 눈앞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저하된다. 한쪽 어깨가 시리고 한쪽 팔이 다른 팔에 비해 빠근하면서 감각이 둔해진다. 병원에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 자신도 모르게 살짝 풍이 왔다 갔다고 한다. '이러다 나중에 진짜 중풍으로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인 중풍은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는 뇌혈관 질환이다. 정도에 따라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감각 이상, 언어 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회복이 어려운 무서운 질병이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신체 일부가 마비돼 재활 치료를 받는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혈관이 신축성을 잃고, 노폐물이 쌓여 좁아지면 혈액을 통한 영양 공급이 장애를 받게 된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때 제대로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뇌혈관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 혈관 탄력 유지와 혈액순환을 돕다

인삼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톡톡히 한다. 혈관 내부에 있는 내피세포에서 'NO'라는 혈관 확장 인자가 방출되면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량이 증대한다. 인삼은 이런 'NO'의 방출을 촉진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유연성을 확보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sup>84</sup> 인삼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양을 낮추고, 지질대사를 개선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도 기여한다. 혈관내피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해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인삼을 복용하면 우리 몸 구석구석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됨과 동시에 노폐물도 효과적으로 제거돼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낡고 부식된 수도관을 깨끗이 닦아주고 지저분한 물도 말끔히 정화해주는 이치와 같다.

##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

반면 혈관에서 혈소판이 응집돼 혈전이 생성되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피

가 덩어리져 모세혈관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 또한 응집된 혈소판이 좁아진 혈관을 막으면 영양 공급과 노폐물 수송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이 뇌에서 일어날 경우 뇌세포에 손상이 오고, 심한 경우 혈전이 혈관을 막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된다. 인삼은 우리 몸에서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억제해 이러한 혈액순환기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sup>85</sup> 특히 홍삼의 이러한 작용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고혈압 환자에게 반가운 인삼

일본 닛세이 병원의 야마모토 박사 팀은 인삼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인삼을 10개월 동안 식전에 투여하고 혈압의 변화를 살폈는데, 정상인의 경우 95%가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는 51%가 혈압이 떨어졌으며, 저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63%가 불변, 31%가 혈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삼 복용이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 것으로 밝혀졌다.<sup>86</sup>

이 외에도 인삼이 혈액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인삼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다만, 인삼이 혈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인삼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의 건강을 지켜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므로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하다.<sup>87</sup>





물론 인삼이 혈압을 높인다는 사례도 일부 보고돼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인삼에 매우 예민한 사람의 경우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이 가렵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복용량을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서서히 늘리면 대부분 해결된다.

## 뇌의 노화는 늦출 수 있다 : 기억력 개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희미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한 번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 일이 종종 생긴다. 사람의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마련인 것. 이런 뇌세포의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해도 늦춰 줄 수는 있다. 인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키우다

인삼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두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나 각종 영양소를 두뇌 곳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히 뇌세포가 활발히 활동하고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좋아지게 된다. 이화여대 오세관 교수 연구팀은 노화가 진행된 동물을 대상으로 인삼의 활성에 대해 시험했는데 인삼을 투여한 동물이 미로를 더 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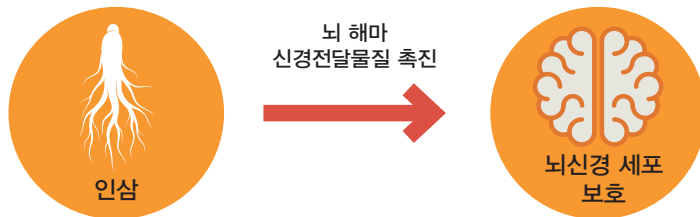


찾아가고 과거의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등 인삼이 노화로 인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저하를 방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삼이 노화와 관련된 각종 인자를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을 해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인삼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돼 있다. 인삼은 뇌의 해마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뇌신경 세포를 보호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인체 시험에서도 인삼을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오래 복용할수록 기억력 증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sup>88</sup> 인삼을 장기 복용하면 주의력이 향상되고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빨라지며, 노인성 신경 및 정신 증상이 개선되고 노화에 의한 인지 능력 손상이 방지된다.

## 치매 물질을 억제하는 인삼사포닌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의 하나로 꼽힌다. 치매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될 정도로 뇌 기능이 손상돼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병인가? 치매는 두뇌에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 침전물이 생성돼 이것이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치료 약물은 개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인삼사포닌이 치매의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 침전물의 생성을 억제하고, 뇌신경 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 김만호 교수 연구팀은 실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인삼을 복용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삶의 질 또한 훨씬 개선됨을 보고했다.<sup>89</sup> 기억력이 감퇴하고 치매가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인삼을 꾸준히 복용해 발병을 막고, 혹 이미 증세가 나타났다면 이를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 몸 안의 노폐물을 막아내다 : 항산화/항노화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위해 ATP(Adenosine Triphosphate)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이 만들어지는데 활성산소종은 말 그대로 반응성이 매우 커서 우리 몸 이곳저곳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성격이 포악한 악당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런 활성산소종은 체내 노폐물로 인해 생길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라 외부로부터도 끊임없이 유입된다. 노화와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물질로 꼽히는 활성산소종이 체내 DNA에 손상을 주면 세포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런 활성산소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노화의 적신호를 늦추다

인삼은 지질의 과산화 반응을 막아 노화를 억제해준다. 인삼을 장기 복용하면 혈청콜레스테롤, 포도당,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감소하고 간의 항산화효소 활성은 증가한다. 인삼의 약효를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몸을 맑고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인삼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 활성산소종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sup>90</sup>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과산화 물질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우리 몸의 세포에 준 손상이 쌓이면 노화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인삼을 장기간 복용하면 노화로 인한 주의력 저하를 비롯해 지각 능력과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 저하 등의 증상이 개선된다. 노인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억력 장애를 개선해주는 것이다. 또한 피부 노화를 막는 역할까지 한다.<sup>91</sup>

흰쥐를 이용한 시험 결과 인삼을 계속 투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삼 투여군은 털도 빛이 나고 체력도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한의서에서도 인삼을 장기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산다”고 했다. 몸을 건강하게 대청소하고 싶다면 인삼을 가까이 두고 애용하는 것이 좋다.

## 암과 대적하다 :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

암은 현대 의학학이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난치병 중 하나다. 우리 몸의 정상 세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분열하고, 성장하고, 죽지만 간혹 정상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 대부분 제거해버린다. 하지만 미처 제거하지 못해 살아남은 돌연변이 세포는 분열과 성장을 계속하고, 이것이 암으로까지 발전한다. 인삼은 이러한 암의 예방과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해 건강을 지켜준다.

### 예방부터 치료까지 든든한 보조 약재

암은 우리 체내에서 발암 물질이 정상 세포를 공격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데서 시작된다. 발암 물질은 외부의 오염된 환경에서 체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기도 한다. 이 돌연변이 세포는 암의 씨앗이



된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땅으로 나오면 암이 되는데 이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

현대 과학은 암이 땅속에서 성장하는 동안 미리 알아낼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땅 위로 올라와야 겨우 검출할 수 있을 뿐이다. 땅 위로 올라온 암세포는 통제받지 않는 증식을 계속해 거대한 암 덩어리가 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인삼은 이러한 암의 발전 단계 곳곳에 작용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첫째, 발암 물질의 생성을 막아 암 발생의 첫 단계를 억제한다.

둘째, 면역력을 증진해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는 우리 몸의 능력을 키워준다.

셋째, 암의 씨앗이 되는 돌연변이 세포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면서 증식하는 과정을 차단한다.

넷째, 증식한 암세포의 세포사멸(Apoptosis)을 유도해 직접적인 암 치료를 돕는다.

다섯째,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하는 것을 억제한다.

여섯째, 암 치료 후 암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한다.

일곱째, 항암제를 도와 암 치료 효과를 증대한다.

여덟째, 항암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인삼은 암의 발생 초기부터 치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작용해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물론 그렇다고 인삼이 암을 다 치료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암 환자는 정상적인 현대 과학적 치료를 하면서 인삼을 치료 보조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암과 인삼

인삼이 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다. 원자력병원 윤택구 박사 연구팀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강화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주민 4,634명을 대상으로 인삼 복용과 암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그 결과 인구 1,000명당 연간 암 발생 환자의 수가 인삼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9.6명인 데 비해 복용한 경우는 4.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인삼을 자주 복용할수록 암 발병 빈도가 낮아짐을 확인했다. 이것은 인삼이 실제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연구로 인삼 복용이 암 발생 건수를 51%나 낮춰준을 보여준다.<sup>92</sup>

서울대 약대 서영준 교수 연구팀은 동물 시험으로 피부암에 대한 인삼의 예방



효과를 연구했다. 그 결과를 보면 발암 물질을 투여한 동물은 16주 만에 모두 암이 발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암 물질과 인삼을 같이 투여한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암 발생이 억제됐다. 이것은 인삼의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암 발생의 촉진 단계를 차단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up>93</sup>

길병원 이성재 교수 연구팀은 인삼이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시험(실험을 받는 사람도 실험자도 어떤 약을 투여했는지 모르게 진행되는 시험)에서 인삼을 12주 동안 복용한 환자는 투여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정신적·육체적 기능이 향상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4</sup>

대만의 슈(Shu) 박사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삼 복용과 환자의 생존율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전체 연구 대상 1,455명 중 암 발병 전 인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27%였는데, 인삼을 복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삼을 복용한 환자는 삶의 질이 향상됐으며 많이 복용할수록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5</sup>

## 그 밖의 효능

### 갱년기의 불안을 잡다 : 갱년기 증상 개선

여성들에게 45~55세는 제3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 즉 갱년기다. 난소 기능이 쇠퇴하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 폐경에 이르면서 신체 전반적인 노화가 가속화된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는 것은 물론 불안감,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갱년기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삼이 이 걱정적인 시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인삼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적혈구의 변형력을 개선해 난소를 포함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촉진돼 갱년기 증상이 완화된다.<sup>96</sup> 특히 인삼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진시켜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기억력 감퇴를 완화한다.<sup>97</sup> 과거 갱년기 증상은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졌고, 증세가 심하지는 않지만 남성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갱년기는 위기의 시기로 꼽힌다. 이를 건강하게 넘길 수 있도록 평소 인삼을 복용해두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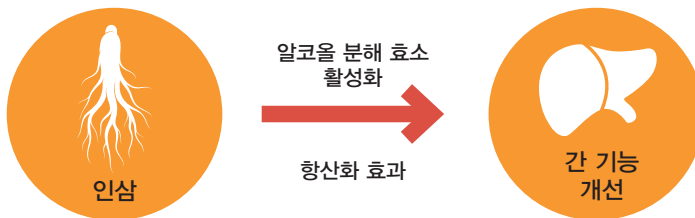
### 성 기능을 높이다 : 강장 효과

성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퇴하기도 하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해 저하되기도 한다. 인삼은 성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컷 흰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인삼은 노화로 저하된 흰쥐의 정자 생성 능력을 회

복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인삼은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성 기능 이상에 도움을 주고, 발기부전에도 효과적이어서 발기 정도, 성욕, 만족도 등을 향상시킨다. 남성은 물론 갱년기 이후 여성의 성 기능을 높이는 데도 인삼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sup>98</sup> 현대인의 성 기능 장애는 매연, 농약, 화학제품 등 각종 환경 독성 물질의 작용으로 유발되는 사례가 많다. 인삼은 환경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생식기 내 독성 물질의 작용을 방어해주고 정자의 운동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sup>99</sup>

### 애주가라면 놓치지 말자 : 간 기능 개선

“내 몸이 천 냥이면 내 간장은 900냥”이라는 광고 카피가 있을 만큼 우리 몸에서 간의 역할은 중요하다. 간은 식사를 통해 흡수한 영양분을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전환해 저장시키고, 이를 각각 필요한 장기로 다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각종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다양한 영양분의 대사와 저장을 돕는다. 그러나 과도하게 음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간 손상의 위험은 커진다. 그리고 간에 이상이 생기면 여간해서는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간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인삼이다. 간 독성 물질은 간세포의 단백질 합성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인삼이 이를 막고 해독을 촉진해 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으로부터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어해주는데 이것은 인삼의 항산화 효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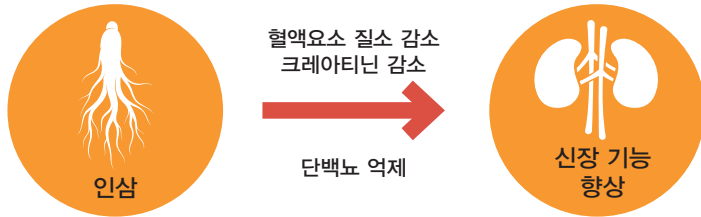
또 인삼은 급성 혹은 만성 간염의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sup>100</sup> 사실 알코올은 간 건강과 상극이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에틸알코올( $C_2H_5OH$ )인데 간에서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 $CH_3CHO$ )로 대사되고, 다시 다른 효소에 의해 아세트산( $CH_3COOH$ )으로 대사된다. 이때 중간 단계에 있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강한 독성을 지녀 두통, 구토, 불쾌감의 원인이 된다. 인삼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신속히 제거해 알코올 독성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알코올로 인한 지방간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sup>101</sup>

## 신장의 부기를 줄이다 : 신장 보호

신장은 우리 몸에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체내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한다(배설 기능). 둘째, 체내 수분과 전해질, pH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준다(항상성 유지 기능). 셋째, 혈압 유지, 빈혈 교정, 칼슘과 인의 대사 등에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한다(내분비 기능).

그러나 신장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잘 복구가 되지 않고 치료가 어려워 평생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손상되기 전에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삼은 신장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 만성 신부전을 유도한 동물 시험에서 인삼은 신장 독성 지표 물질인 BUN(Blood Urea Nitrogen, 혈액요소질소)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단백뇨를 억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로 많이 사용하는 백금착화합물인 시스플라틴은 신장에 독성을 많이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삼은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장 독성을 억제해 BUN,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독성으로 인해 신장이 붓는 현상을 줄여준다.<sup>102</sup>

## 혈당을 낮추다 : 당뇨 증상 개선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혈중 당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다. 당뇨병은 2가지로 분류하는데 제1형 당뇨는 인슐린 부족이 원인으로 주로 소아에게서 나타난다. 반면 제2형 당뇨는 성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그 자체보다도 각



종 합병증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인삼은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에 수반되는 여러 합병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환자를 괴롭히는 피로감, 손발 저림, 다음, 다뇨 등의 증상 역시 완화해준다.<sup>103</sup> 이런 효능을 주목한 전통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인삼을 당뇨병 치료약으로 사용해왔다.

## 인삼의 효능, 제대로 알고 있을까?

**Q**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다. 인삼은 체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에너지가 빠르게 공급돼 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체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겨울철에 식사를 하고 나면 추위가 덜 느껴지는 것과 유사하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 한국-중국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인삼이 열을 올리는지 시험했다. 고려인삼, 서양삼(화기삼), 위약(가짜약)에 대해 인체 시험을 했으나 그 결과에서 복용 전과 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2013년 경희대 양덕춘 교수팀도 인삼이 열을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상 시험에서 확인했다.

《동의보감》에는 인삼의 약성이 온(溫)하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뜨겁다는 말이 아니라 온후(溫厚)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서양삼 즉 화기삼 수출상들이 이를 마케팅 관점으로 삼아 고려인삼은 열을 올리고 자신들의 삼은 열을 내린다고 선전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 까닭에 이게 속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여러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 인삼이 열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Q** 인삼을 여름철에 섭취해도 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름철에 기력을 돋우고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을 애용하고 있다. 한방에서도 여름철에 더위 먹고 피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처방인 생맥산, 황기인삼탕, 청서익기탕 등에 인삼을 넣는다. 무더운 여름철은 쉽게 피로하고 몸이 허약해지기 쉬운 때다. 인삼은 우리 몸의 기력을 돋우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을 준다.

**Q 인삼이 맞지 않는 체질이 있나요?**

**A** 인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매우 안전한 생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 그러나 간혹 인삼에 예민한 사람도 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이 가려워지거나, 변이 묽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복숭아밭에만 가도 알레르기가 생기고, 새우만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처럼 인삼에 예민한 사람은 처음에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 점차 인삼 복용량을 증가시키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된다.



**Q 인삼이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A** 결코 아니다. 인삼은 오히려 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 여성 갱년기 치료의 한 방법으로 호르몬 요법이 있다. 그런데 이 요법은 효과는 매우 좋으나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삼은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호르몬 요법과는 달리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안전하다.



**Q 수술 후에는 인삼을 먹으면 안 되나요?**

**A** 인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그래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보통의 경우 이는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출혈이 있는 사람, 수술 환자라면 지혈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출혈이 있을 때는 인삼 복용을 삼가고, 수술을 앞두었다면 수술 전후 1주일만 복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Q 하루 얼마나 복용하는 게 좋은가요?**

**A** 성인의 인삼 1일 권장복용량은 건조한 인삼을 기준으로 6~12g이다. 보통 인삼 1~2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인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권장복용량의 10배 정도를 먹기도 한다. 어린이는 체중에 따라 성인량을 줄여 복용하면 된다. 체중 60kg인 성인에게 1일 인삼 한 뿌리 정도라면 체중 30kg인 어린이는 반 뿌리 정도를 복용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갓난아기는 어떨까. 이 세상 어디에도 갓난아기에게 복용을 권장하는 약은 없다. 갓난아기는 아직 모든 신체가 미숙해 작은 자극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삼도 마찬가지다. 한편 인삼 복용은 공복에 하는 것이 흡수 효율 면에서 유리하지만 위장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식후가 낫다.



## 참고 문헌 및 주석

1. 이 장의 내용은 양정필, 여인석, 『조선인삼 기원에 대하여』, 『의사학』 제13권 1호를 인용,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2. 1761년 화재로 소실돼 1763년 증보해 『조선인삼경작기』로 재출간했다.
3. 『속중실록』 권45, 33년
4. 염정섭, 「18세기 가삼 재배법의 개발과 보급」, 『국사관 논총』 제102집, 2012, p.6
5. 염정섭, 위 논문, 2012, p.13
6. 염정섭, 위 논문, p.26
7. 염정섭, 위 논문, p.17
8. 양정필, 「한말-일제하 금산 인삼연구」, 『한국사학보』, 51, 2013을 참고해 정리했다.
9. 양정필, 위 논문 p.202(『매일신보』, 「금산인삼과 그의 유래」, 1931.1.16)
10. 양정필, 위 논문, p.202(『매일신보』, 「장생불사의 영약은 본도 특산의 백미, 금산인삼」, 1935.11.30)
11. 양정필, 위 논문, p.201(『군산일보』, 「금산인삼」, 1930.1.10)
12.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p.128
13. 김종찬, 「실크로드와 한국불교 문화」, 『불교신문』, 2012.10.13
14. 배한철, 「실크로드에서 인삼 판 조선상인」, 『매일경제』, 2012.10.31
15.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주최,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 국제학술회의, 2012
16.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사』, 역사비평사, 2014, p.76
17. 「필리핀한인동포 1.5-2세대 한글 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http://manilaseoul.com>, 2012.10.03
18. 김광재, 「일제시기 상하이 고려 인삼 상인들의 활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40집, p.224
19. 김광재, 『어느 상인독립군 이야기』, 선인, 2012, p.100
20. 김광재, 위 책, p.101
21. 일본 고등경찰 제4163호, 상하이정보, 1922.12.28
22.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관리와 삼세장수」, 『규장각』 19집, 1996, p.161
23. 양상현, 위 논문, p.126
24. 조기준, 「인삼무역과 삼정고」, 『사회과학논총』, 1975, p.48
25. 정석중,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 일조각, 1983, p.167
26. 김청수 · 장수철, 『인생을 바꾸는 3분 성공체크』, 더난출판, 2004
27. 김청수 · 장수철, 위 책, p.74
28. 『승정원 일기』에 홍명한이 이 사건에 관계하지 않았음이 뒤늦게 밝혀진다.
29. 박인호,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 학위 논문, 1995, p.27
30. 박인호, 위 논문, p.26
31. 손승철, 『조선후기 수토기록의 문헌사적 연구』, 『한일관계사 연구』 51집, 2015, p.111
32. 조경미, 「대한제국 홍삼 전매정책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5, p.31
33. William Foyster, ed., *Letters Received by the East India Company*, 6 Vols. (London: Sampson Low, Marston & Co., 1896~1902), Vol. 5 (1617), p.18

34. Thomas Salmon, *Modern History: or, the Present State of All Nations*, 31 Vols. (London, 1725~1738), Vol. 27 (1735), p.133
35. William Foyster, ed., *Letters Received by the East India Company*, 6 Vols. (London: Sampson Low, Marston & Co., 1896~1902), Vol. 5 (1617), pp.17~18
36. George Henry Loskiel, *History of the Mission of the United Brethren among the Indians in North America*, trans. Christian Ignatius La Trobe (London, 1794), p.117
37. Parliament of Great Britain, *Jordan's Parliamentary Journal, for the year MDCCXCIII*, 3 Vols. (London, 1792~1793), Vol. 2 (1793)
38. François-Timoléon de Choisy, *Journal ou suite du voyage de Siam en forme de lettres familières fait en M. DC. LXXXV et M. DC. LXXXVI* (Amsterdam: Pierre Mortier, 1687), p.323
39. 이혜민, 「루이 14세의 인삼: 17세기 말~18세기 초 프랑스의 본초학 지식 형성」, 『의사학』 제25권 제1호, 2016, pp.111~145 참조
40. Michael Smithies, ed. and trans., *The discourses at Versailles of the First Siamese Ambassadors to France, 1686-1687* (Bankok: The Siam Society, 1986), pp.84~87
41.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 「Sur le Gin-Seng」, *Histoire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 1718, pp.41~45
42. Bibliothèque di Museum d'Histoire Naturelle à Paris, Mss 1151, p.4
43. Jean-Baptist du Hamel, *Regiae Scientiarum Academiae Historia* (Paris: Étienne Michallet, 1698. Rev. ed. Paris: J.-B. Delespine, 1701), p.451
44. Melchisedec Thévenot, *Relations de divers voyages curieux* (Paris, 1655);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 1 (1665~1666), p.249
45. Nehemiah Grew, *Musaeum Regalis Societatis* (London, 1681), p.227
46. 「The Description of a Tartarian Plant, Call'd Gin-seng」, in *Philosophical Transactions*, Vol. 28 (1713), pp.237~247
47. 이혜민, 「루이 14세의 인삼: 17세기 말~18세기 초 프랑스의 본초학 지식 형성」, 『의사학』 제25권 제1호, 2016, pp.111~145
48. J. F. Lafitau, *Mémoire...concernant la précieuse plante du gin-seng de Tartare, découverte en Canada* (Paris, 1718)
49. AbbéAlexis Rochon, *A Voyage to Madagascar and the East Indies*, trans. Joseph Trapp (London, 1793), p.378
50. T. Smollett, MD, *Humphry Clinker* [1771] (London: G. Routledge & Co., 1857), p.31
51. William Darlington, ed., *Memorials of John Bartram and Humphrey Marshall* (Philadelphia, 1849), pp.125~127
52. William Darlington, ed., *Memorials of John Bartram and Humphrey Marshall* (Philadelphia, 1849), p.561
53. L. W. Dillwyn, ed., *Hortus Collinsonianus: An Account of the Plants Cultivated by the*



- Late Peter Collinson* (Swansea, 1843), p.37
54. William Simpson, MD, *Some Observations Made Upon the Root called Nean, or Ninsing, Imported from the East-Indies* (London, 1680)
  55. Samuel Stearns, *The American Oracle* (London, 1791), p.584
  56. Abbé Alexis Rochon, *A Voyage to Madagascar and the East Indies*, trans. Joseph Trapp (London, 1793), p.379
  57. Franz Swediauer, *Practical Observations on the More Obstinate and Inveterate Venereal Complaints* (London, 1784), pp.98~99
  58. William Cullen, *A Treatise of the Materia Medica*, 2 Vols. (Edinburgh, 1789), Vol. 2, p.161
  59. John Hill, *History of the Materia Medica* (London, 1751), p.591
  60. 「Advertisements & Notices.», *Reynold's Newspaper*, 13 May, 1855; 20 May, 1855; 27 May, 1855; 3 Jun. 1855
  61. William Cullen, *A Treatise of the Materia Medica*, 2 Vols. (Edinburgh, 1789), Vol. 2, p.161
  62. Michael Devlin, *Pillula salutaris; Or, the justly celebrated Dr. Anthony's Irish pills* (London, 1790), p.1
  63. Count Belchingen and J. A. Cope, *An Essay on the Virtues and Properties of the Ginseng Tea* (London, 1786), p.8
  64. 「Advertisement.», *The Times*, 31 Aug. 1790, p.1
  65. 「Beau Monde Drinks of Washington.», *The Manchester Guardian*, 4 Jan. 1864, p.2
  66. J. H. Koehler, *To the Ginseng Growers of America* (Wausau: Wis., 1917)
  67. *Scientific American*, Vol. 64, No. 2 (January 10, 1891)
  68. Charles Marvin Root, *What is Ginseng* (Omaha: J. M. Roueek, 1905)
  69. 유홍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110
  70. 양정필 · 여인석, 「삼국-신라 통일기 인삼 생산과 대외교역」, 『의사학』 13권 제2호, 2004, p.193
  71. 양귀비의 언니로 피부가 너무 고와 화장을 하지 않고 현종을 만난 일화로 유명하다.
  72. 허경진, 「조선 후기 신 지식인 한양의 중인들 '장교 최천종 피살사건」, 『서울신문』, 2007. 5.7
  73. 허경진, 『조선의 중인들』, 알에이치코리아, 2015, p.301
  74. 김시덕, 『맛있는 역사』, 서경문화사, 2016, p.57
  75. *J Pharmacol Sci*, 95, 2004, pp.158~162
  76. 『약용인삼』, 일본공립출판사, 2000, pp.249~256
  77. *J Ginseng Res*, 35, 2011, pp.104~110 / *Biol Pharm Bull*, 36, 2013, pp.1002~1007
  78. *Curr HIV Res*, 4, 2006, pp.447~457 / *AIDS Res Human Retrovirus*, 24, 2008, pp.181~193 / *Clin Vaccine Immunology*, 16, 2009, pp.1127~1131
  79. *J Ginseng Res*, 37, 2013, pp.144~166; 35, 2011, pp.331~338; *Am J Chin Med*, 15, 1987, pp.19~29
  80. *Ther Res*, 21, 2000, p.1641
  81. *Acta Therapeutica*, 19, 1993, pp.337~347

82. *Clinical Ther*, 13, 1991, pp.373~382
83. *J Ginseng Res*, 35, 2011, pp.331~338
84. *J Ginseng Res*, 37, 2013, pp.64~73; *Eur J Pharmacol*, 367, 1999, pp.41, 51
85. *Pharmazie*, 64, 2009, pp.602~604; *J Ethnopharmacol*, 77, 2001, pp.259~264
86. *Hypertension Res*, 39, 2016, pp.449~456
87. *J Am Soc Hypertension*, 8, 2014, pp.537~541
88. *J Ginseng Res*, 39, 2015, pp.250~256; *Phytother Res*, 27, 2013, pp.1293~1299 ;  
*J Ethnopharmacol*, 115, 2008, pp.441~448 ; 66, 1999, pp.123~129
89. *Nutritional Neuroscience*, 15, 2012, pp.278~282; *J Ginseng Res*, 35, 2011, pp.457~461
90. *Nutrition Res*, 32, 2012, pp.718~726; *Food Chem Toxicol*, 47, 2009, pp.769~773;  
49, 2011, pp.2229~2235; *J Ginseng Res*, 37, 2013, pp.442~450
91. *J Med Food*, 15, 2012, pp.1015~1023
92. *Int J Epidemiol*, 27, 1998, pp.359~364
93. *Cancer Letters*, 150, 2000, pp.41~48
94. *J Clin Pharm Ther*, 31, 2006, pp.331~334
95. *American J Epidemiology*, 163, 2006, pp.545~653
96. *J Ginseng Res*, 37, 2013, pp.30~36
97. *Int J Gynecol Obstetrics*, 67, 1999, pp.169~174
98. *J Urology*, 168, 2002, pp.2070~2073, *Urology*, 65, 2005, pp.611~615, *British J Clin Pharmacol*, 66, 2008, pp.444~450; *J Sexual Med*, 7, 2010, pp.1469~1477; *J Womens Health*, 13, 2004, pp.427~430
99. *BJU International*, 94, 2004, pp.663~668; 83, 1999, pp.842~849; *Food Sci Biotech*, 12, 2003, pp.659~663
100. *Planta Medica*, 65, 1999, pp.614~619; *Int J Mol Sci*, 13, 2012, pp.2314~2330; *Liver Int*, 33, 2013, pp.1071~1084; *J Ginseng Res*, 35, 2011, pp.243~249; *Planta Medica*, 63, 1997, pp.136~140
101. *Molecules*, 20, 2015, pp.11604~11616; *J Ginseng Res*, 39, 2015, pp.105~115; 37, 2013, pp.194~200; *Food Function*, 5, 2014, pp.528~534; *J Ethnopharm*, 141, 2012, pp.1071~1076
102. *Lab Invest*, 94, 2014, pp.1147~1160; *J Ginseng Res*, 37, 2013, pp.379~388; *J Mol Histol*, 43, 2012, pp.603~613; *Biol Pharm Bull*, 29, 2006, pp.2051~2055
103. *Diabetes Care*, 18, 1995, pp.1373~1375; *Am J Chinese Med*, 33, 2005, pp.397~404;  
*J Med Food*, 17, 2014, pp.128~134, *Int J Pharm Res Allied Sci*, 5, 2016, pp.55~59

## 저자

### 박정일 교수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부학장. 서울대에서 약학 석사·박사 학위 취득. 1988년부터 서울대 약대 교수로 재직하며 인삼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2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고려인삼학회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고려인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 설혜심 교수

연세대 사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석사·박사 학위 취득. 2003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011년 연세대 최초 '최우수 교육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근대 초 영국사를 주전공으로 역사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베스트티처상, 연세대 최우수업적 교수상 등을 수상했다.

### 옥순중 박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겸임교수. 서강대 영상대학원에서 PR 전공 박사 학위 취득. 전남일보 사회부장, 경제부장,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KGC인삼공사 홍보실장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10대 브랜드 자문위원, 고려인삼학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했다.

##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려인삼 이야기

발행일 2016년 10월

지은이 박정일, 설혜심, 옥순중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기획·제작 네오미디어 [www.neo-media.co.kr](http://www.neo-media.co.kr)

편집장 박윤선

책임편집 강현숙

교정·교열 유미영

디자인 디자인창

일러스트 이신혜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436-01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및 판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있습니다.



